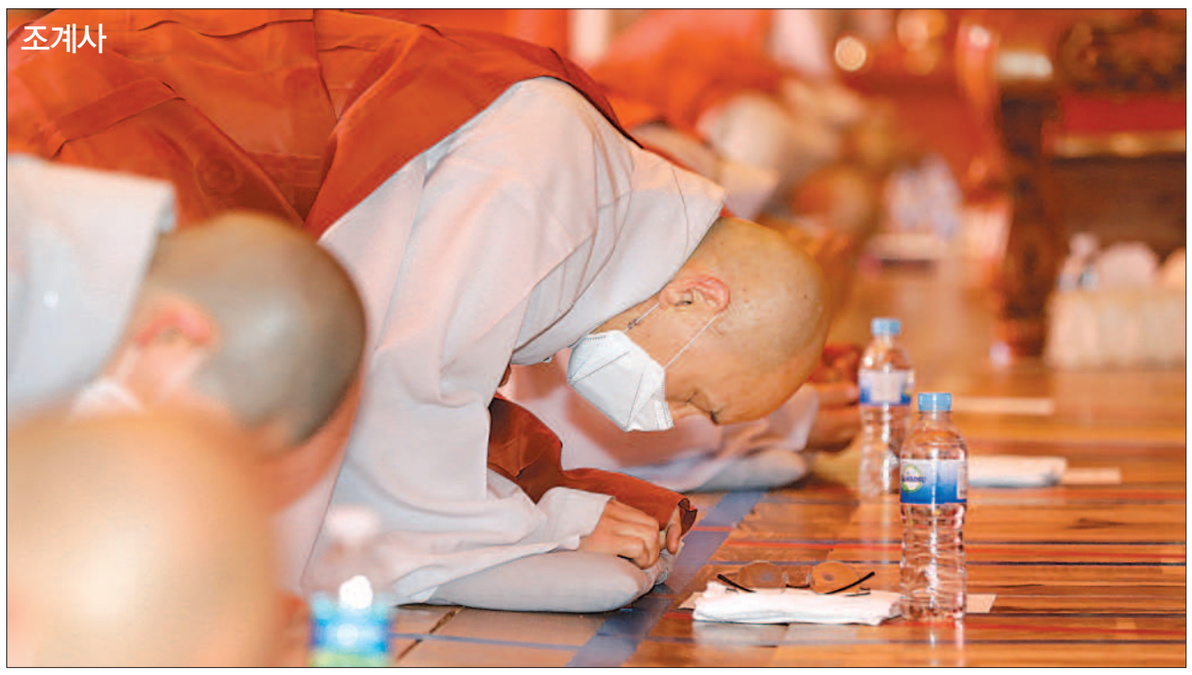
금주의 법구–〈잡보장경〉
객기 부려 만용하지 말고
허약해 비겁하지 말며
지혜롭게 중도의 길을 가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333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5년 음력 2월 12일) 2021년 3월 24일 수요일





내장사 방화 참회합니다 예비 승려의 방화로 밝혀진 내장사 화재 사건에 대해 조계종과 해당 본사인 선운사의 참회가 이어지고 있다. 선운사 주최로 3월 14일 내장사서 교구 구성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참회 법회를 봉행하고 100일 참회 정진에 들어갔다. 조계종 총무원 교역직 스님들은 3월 15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참회의 1080배를 올렸다. 모두 "자성의 계기로 삼겠다"고 참회했다. 사진 왼쪽은 3월 15일 열린 조계종 교역직 스님들의 참회 1080배 모습. 사진 오른쪽은 3월 14일 봉행된 선운사 참회 법회. **사진=박재완 기자 · 조동제 전북지사장**

내장사 화재 참회 정진…"자성 계기 삼겠다"

조계종 · 선운사, 충격 딛고 수습에 만전

3월 15일 교역직 스님 50여명
서울 조계사에서 1080배 정진
선운사, 100일 참회정진 돌입

송지희 기자 · 조동제 전북지사장

내장사 화재사건으로 인한 충격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가운데, 조계종과 선운사가 참회정진을 이어가며 "승가공동체의 청정과 화합을 회복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발원했다.

조계종(총무원장 원행)은 3월 15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내장사 화재 참회를 위한 1080배 정진기도'를 진행했다. 이날 기도정진에는 총무부장 금곡 스님, 기획실장 삼혜 스님 등 총무원과 포교원, 교육원 부실장 스님 등 소임을 맡고 있는 교역직 스님 50여명이 참석해 내장사 사건에 대한 참회의 뜻을 모아냈다.

스님들은 기도에 앞서 '내장사 대웅전 화재 참회 발원문'을 낭독하고 "1400년 유구한 역사의 도량을 청정하게 수호하지 못한 허물을 참회한다"며 이번 사건을 한 사람의 개인이 아닌 승가공동체의 공업으로 보고 자정의 계기로 삼을 것을 천명했다.

총무부장 금곡 스님이 대표낭독한 발원문에서 스님들은 "내장사 대웅전이 화마에 휩싸일 때 저희들 또한 함께 불타올랐고 타다 남은 앙상한 서까래를 보면서 저희들의 가슴 또한 잿더미가 됐다"며 "잠시나마 저희들은 이 문제를 한 개인의 잘못일 뿐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는 어리석음에 빠졌다"고 참회했다.

이는 내장사 화재의 원인이 사중에 머물던 예비승려의 방화로 인한 것임을 드러낸 것으로, 조계종이 개인이 아닌 승가공동체 차원에서 참회정진에 나선 이유이기도 하다. 스님들은 "우리 모두가 그러하듯 그 스님 역시 우리 공동체의 일원이기에 한 사람의 허물은 전체의 허물이고 한사람의 훌륭함은 전체의 훌륭함"이라며 "화합과 청정한 정진은 우리 공동체의 본질적 지향인만큼, 나와 남을 별개로 분리하는 미혹한 분별심을 참회한다"고 밝혔다.

이어 스님들은 이번 사건을 점검의 계기로 삼겠다고 천명했다. 스님들은 "이 두려움과 부끄러움으로 스스로를 점검하고 경계해 청정과 화합을 회복하겠다"며 "나아가 내장사 대웅전을 태운 불길을 우리 공동체의 업장을 사르는 연비의 불꽃으로 삼고 탐진치로 지어진 중생세간을 태우는 무량광의 지혜불꽃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스님들은 또 "온몸을 던지는 참회정진으로 주춧돌을 놓고 청정한 정진으로 기둥을 삼으며 자비희사 무량심으로 대들보를 얹고 온 세상을 덮는 보살행을 지붕으로 하여 보리도량을 건립하겠다"며 "또 스스로 도량이 되고 우리 공동체를 도량으로 이뤄 법신 편만의 중증무진 아란야 법보리도량을 구현하겠다"고 발원했다.

이에 앞선 3월 14일 조계종 제24교구 본사 선운사(주지 경우)도 본말사 사부대중이 내장사 화재현장 앞 마당에 모여 참회법회를 봉행했다. 명종5타와 함께 열린 이날 법회는 법경 스님과 도심 스님의 집전으로 삼귀의, 반야심경, 고불문 낭독,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글, 백팔참회, 석가모니불 정근, 신묘장구대다라니 7독, 발원문 낭독, 사홍서원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사부대중은 108대참회문을 낭독한데 이어, 참회의 절과 신묘장구대다라니를 봉독하며 천년고찰 내장사 대웅전을 지켜내지 못한 승가공동체의 공업을 참회하고 내장사 대웅전복원의 원력을 다짐했다.

대중들은 참당선원장 법만 스님이 대표로 낭독한 고불문을 통해 "역대 선조사 스님들이 일군 만중생의 귀의처 천년가람을 지키지 못한 죄업이 가볍지 않고 탐진치 삼독을 여의지 못한 채 살아온 출가공동체의 부끄러움 또한 마음을 무겁게 누르고 있다"고 참담함을 전했다.

이어 "어제의 일을 거울삼아 지계청정과 광도중생의 서원을 세우고자 한다"며 "출가 본연의 자세를 되짚고 진실로써 승풍을 새롭게 하며 내딛는 발걸음 발걸음에 문수지혜와 보현행원을 담겠다"고 서원했다.

선운사는 이날 법회를 시작으로 100일간 참회기도정진에 돌입했다. 또 대책위를 구성해 승가공동체 회복을 위한 교구대중공사를 전개할 방침이다.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은 "스스로에 향하는 서릿발과도 같은 참회죽비로 출가 초발심의 서원을 되새겨 부처님께 지은 씻을 수 없는 악업을 참회한다. 승가공동체 정신을 회복해 교구대중이 화합으로 오늘의 아픔을 하루속히 씻을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전국비구니회는 3월 17일 법륭사에 '진우시민선방'을 개원했다.

재가불자 마음 밝힐 '진우시민선방' 개원

비구니회, 17일 개원법회… 스님 위한 법룡선원도

재가불자들의 마음을 밝힐 '진우시민선방'이 전국비구니회관 법룡사에 문을 열었다. 이와 함께 스님들이 산철에도 수행을 이어갈 수 있는 '법룡선원'도 가동을 시작해 출 · 재가 수행문화 확산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전국비구니회(회장 본각)는 3월 17일 서울 전국비구니회관 법룡사 지하 1층에서 '진우시민선방' 개원법회를 봉행했다. 진우시민선방은 방부를 들인 재가불자들이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열린 수행공간으로 운영되며, 성본 스님이 선원장 소임을, 법룡사 총무 혜인 스님이 입승을 맡아 체계적인 수행 지도도 이어갈 예정이다.

진우시민선방은 법룡사 지하 1층, 창고로 사용되던 공간을 새롭게 조성한 결과물이다. 지하에 위치하지만 자연채광 기술을 도입하고 냉난방 시스템까지 완비해 수행에 적합한 환경으로 꾸며졌다. 선방 한가운데에는 모든 각도에서 예경을 드릴 수 있는 석불상이 봉안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대방과 남 · 여 탈의실도 마련해 불자들이 편하게 선방을 찾아 수행에 동참할 수 있도록 편의를 갖췄다.

개방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오전 9시와 오후 2시 입선, 오전 11시와 오후 4시 방선, 전후 시간에는 자유입선 및 자율정진을 할 수 있으며 매주 금요일 오후 2시에는 소참법문이, 매주 월요일은 휴원한다. 자체 청규도 제정됐다. 스님들의 수행공간인 법룡선원도 이날 가동을 시작했다. 매년 2차례의 안거기간 중 선방에 방부를 들이기 어려운 각 사찰 소임자 스님들은 물론, 산철에도 스님들이 수행의 끈을 놓지 않도록 운영될 예정이다.

회장 본각 스님은 "진우(眞宇)는 시민선방 리모델링 기금을 기탁하신 노스님의 법명인 동시에 참다운 공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며 "2층에 마련된 법룡선원과 함께, 스님은 스님대로 재가불자는 재가불자대로 수행을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본각 스님은 진우시민선방 선원장 성본 스님에게 죽비를 전달하고 "선사이자 수행자로서 재가불자들의 정진을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성본 스님은 "진우시민선방과 인연을 맺은 여러분은 이제부터 나를 위한 수행을 하겠다는 원력을 세우고 정진해 깨달음으로 한발 더 나아갈 수 있는 공부에 매진해 달라"며 "진우시민선방과 법룡선원이 함께 정진해 나가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지희 기자**

대광불교
대광불교는 연등 시공 전문기업입니다.



연등자동승강장치 최초개발시공업체
대광불교만의 독특한 디자인과 숙련된 노하우로 각종 연등을 제작 보급하고 있습니다.
항상 등불을 밝히는 마음가짐으로 등 제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등 자동 승강장치



연등 시공



대광불교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매자리길 113 e-mail : hskhsg@ naver.com | 010-9446-1862, 010-2788-7270 | 031)768-7270 | 031)768-7271

선학원, '내부 비판' 분원에 분담금 인상 논란

선학원미래포럼, "표적 인상"
'직무정지가처분'동참 분원에
25~100% 분담금 인상 공문
총무이사 지광스님, 취재거부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재단법인 선학원이 2019년 성범죄로 확정판결 받은 전 이사장 법진 스님을 상대로 '이사장지위부존재 확인소송' 을 제기한 분원에 대해 '분담금 표적인상' 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재)선학원측이 분담금 인상 분원을 '채권자' 로 지칭하고 인상 이유를 '소송비용' 이라고 설명했다는 증언까지 나오면서, 법진 스님의 이사장 자격을 문제 삼은데 대한 '재갈물리기식' 조치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선학원미래포럼은 3월 17일 "재단법인 선학원은 최종진(법진) 전 이사장을 상대로 소송(이사장직무집행정지 가처분소송, 이사장지위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한 분원을 표적해 2020년부터 인상된 분담금을 납부하라는 공문을 보냈다"며 "이에 해당분원들의 분담금 인상 기준과 근거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재)선학원에 방송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분담금 내역에 따르면 해당 분원들의 분담금 인상율은 종전 분담금의 25%~100%에 해당한다.

특히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대다수 사찰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분담금 인상은 납득할 수 없다는 지적이 많다. 이는 조계종을 비롯한 여타 종단들이 분담금 감면 조치를 취한 것과도 상반된다.

선학원미래포럼은 "이에 해당 분원장들이 (재)선학원에 인상 이유를 문의하자, 총무이사 지광 스님 등 담당자가 '재단을 상대로 소송을 한 채권자이기 때문에 재판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선학원미래포럼에 동의했기 때문에 일괄 소송비용으로 표적 인상을 했다' 는 등의 답변을 했다"며 "그러나 공문에는 분담금과 소송비용이 구분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분담금 인상의 근거나 기준에 대해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특히 소송비용은 법원 결정으로 확정된다는 점에서, 재단측이 이런 절차 없이 임의로 소송비용을 계산해 분담금에 포함시킨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해당 소송이 전이사장 법진 스님의 부도덕한 행위에서 비롯됐으며, 분원장 스님들의 문제제기는 선학원 정관상 '임원의 자격을 ' 덕망이 높은 승려' 로 명시한 선학원 정관에 따른 행위였다는 점에서 논란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선학원미래포럼은 "최종진(법진)은 자신의 범죄로 인해 (재)선학원의 명예가 실추되고, 온 세상으로부터 경멸받는 집단으로 전락해도 이사장직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지 않았고 선학원 분원 대중들에게 참회조차 하지 않았다"며 "이에 선학원의 파멸을 묵과할 수 없었던 창건주 · 분원장 스님들이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간으로서 일말의 염치와 수치심이 남아 있다면 차마 '소송비용 부담' 운운하며 눈속임으로 분담금에 덧붙여 부과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근거 없는 부당한 편법을 써서 소송비용을 할당시킨 이사회의 행위는, 이사회가 어떠한 파행운영을 하더라도 분원장들은 입다물고 비판하지 말라는 '재갈물리기식 조치' "라는 주장이다.

분담금 산정 기준과 사용내역 등 일체의 재정운영이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선학원미래포럼은 "2012년 이후 전국 분원장회의를 폐지한 후 지금까지 (재)선학원 이사회는 분담금을 비롯한 일체의 재정운영에 대해 분원장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분원에서 납부한 분담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그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분원장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오히려 분원장들은 그런 요구를 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상당수의 분원은 (재)선학원이 분담금 사용내역을 공개할 때까지 분담금 납부를 거부한 상황이다.

이어 선학원미래포럼은 "분원에 대한 (재)선학원의 갑질행위는 이 뿐만이 아니다"며 "창건주 위임 · 승계시 조계종 제적원 요구, 분원장 임명시 충성 각서 요구, 창건주 · 분원장 재산 강제증여 요구, 분란을 부추겨 사고사찰 지정, 불투명한 재정운영 등 최종진(법진) 이사장 시에 자행된 (재)선학원의 파행과 창건주 · 분원장에 대한 갑질행위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선학원미래포럼은 이와 관련 (재)선학원에 질의공문을 발송하고 △분담금 인상 경위 및 이를 뒷받침하는 공식적인 기록 공개 △소송비용 공개 및 분원당 책정비용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인상된 분담금을 고지한 이유를 물었다. 또 분담금 원상회복과 차후 분담금 인상시 기준과 근거 투명하게 공개 등을 요구했다.

선학원미래포럼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총무이사 지광 스님에게 답변을 요청했지만 "할말 없다" "답변하지 않겠다"며 취재를 거부했다.

조계종 재가 신도들, 선암사 호법단 구성한다

중앙신도회 · 포교사단
3월 15 · 16일 성명

조계종 중앙신도회를 중심으로 한 신도들과 포교사단을 위시한 포교사들이 선암사 정상화를 위한 재가호법단 구성을 결의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신도회장 주윤식)과 조계종 포교사단(단장 방창덕)은 각각 3월 15일과 16일 성명을 통해 "조계종에서 추진하는 선암사 정화결사단의 산하 단체로 재가호법단을 구성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대법원의 선암사 판결에 대해 "정화운동 정신을 전면 부정하는 것으로 이는 역사적 정통성을 흔드는 중대한 오판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재가호법단의 규모를 조계종 전국 교구 본말사 신도회와 5000여 포교사 등을 망라하는 규모로 구성하고 조계종 한국불교 역사의 정통성 회복하는 순간까지 정진할 방침을 함께 전했다. 노덕현 기자

출가 궁금하면 '카톡 챗봇' 상담하세요

조계종교육원의 출가 사이트
전면개편…24시간 상담 가능
수계교육 콘텐츠 강화해
동영상 출가수기 공모도



전면 개편한 조계종 교육원의 '출가' 사이트 초기 화면.

출가 절벽 시대를 넘어서기 위해 조계종 교육원(원장 진우)이 '출가' 사이트(monk.buddhism.or.kr)를 전면 리뉴얼해 출가 희망자들에 대한 24시간 온라인 상담을 강화했다. 출가 홍보와 상담을 시대에 맞게 진행하기 위한 노력으로 평가된다.

조계종 교육원은 "스마트 시대에 맞춰 출가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하기 위해 '출가' 사이트를 전면 리뉴얼했다"고 3월 17일 밝혔다.

이번 개편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시대에 맞춰 온라인 출가 상담을 가능하게 한 부분이다. 리뉴얼을 통해 기존 출가상담사 스님과의 전화, 이메일 상담 이외에도 24시간 카카오톡 챗봇 상담도 가능해졌다. 카카오톡 챗봇 상담은 카카오톡 검색창에 '대한불교조계종 출가' 또는 '출가' 라고 검색한 뒤 대화창에 간단한 단어나 문장으로 질문하면 챗봇이 빠르게 답변을 해주는 시스템이다.

행자의 일상교육 평준화와 향상을 위해 사미 · 사미니 수계교육 '온라인 사전교육 시스템' 도 구축했다. 출가 행자가 교구본사를 경유해 조계조유 교육원에 행자등록 서류를 제출하면 행자등록이 완료되며, 등록된 행자는 '출가' 사이트에 접속해 회원 가입 후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조계종 교육원은 행자들이 수계교육 전 선행학습을 할 수 있도록 행자교육 과정을 최초로 온라인 콘텐츠로 제작했다. 수계사전교육 온라인 콘텐츠에는 현직 수계교육 교수사 스님들이 참여했다.

사미 · 사미니계 수계교육에 입교하기 위해서는 전 과목을 수강 후 수료증을 출력 · 제출해야 하며 수계교육 이후에도 재학습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했다.

향후, 조계종 교육원은 동영상 출가수기 공모전을 진행할 계획이다.

조계종 교육원은 "교육원 유튜브 채널을 활용해 공모 영상을 공유하고, 승려연수 강의 · 승가결사체 전법교화 활동 현장 콘텐츠, 인증 연수 교육 과정 등도 소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호계원장 보광 · 포교원장 범해 스님 추천

중앙 종회, 3월 16일 안건 마감
단독 후보추천…임시회서 확정


보광 스님


범해 스님

조계종 차기 호계원장에 前 동국대 총장 보광 스님이, 제8대 포교원장에 전 중앙종회의장 범해 스님이 추천됐다.

조계종 중앙종회사무처에 따르면 3월 16일 220차 임시중앙종회 안건접수를 마감한 결과, 차기 호계원장과 포교원장에 각각 보광 스님과 범해 스님이 단독후보로 추천됐다. 종헌에 따르면 호계원장은 중앙종회에서 선출하도록 돼 있으며 임기는 4년이다. 포교원장은 총무원장의 추천으로 중앙종회에서 선출하도록 규정돼 있다. 임기는 5년이며 1차에 한해 중임할 수 있다.

임명 여부는 3월 23일 개회하는 220차 임시중앙종회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보광 스님은 도문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70년 경주 분황사에서 동헌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80년 범어사에서 고암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1975년 동국대 불교학과를 졸업 후 1980년 동국대 대학원에서 불교학 석사학위, 1985년 일본 교토불교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동국대 정각원장, 대외협력처장, 불교대학장, 불교대학원장 등을 했으며 90주년 기념사업 본부장, 100주년 기념사업본부장, 대외협력처장 등 학교 대외업무를 관장했으며, 정토사 주지, 대각사상연구원장, 한국정토학회 명예회장,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문화재청 문화재위원을 역임했다. 2019년 9월부터 조계종 재심호계위원을 맡고 있다.

범해 스님은 청하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80년 수계했다. 통도사 기획국장과 호법국장, 포교국장, 총무원 문화국장, 중앙선거관리위원, 종립학교관리위원, 중앙승가대 총동문회장, 14~17대 중앙종회의원, 17대 중앙종회 전반기 의장 등을 역임했다. 해남사 · 무룡사 주지을 역임하고 현재 서울 약사사 주지 소임을 맡고 있다. 송지희 기자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 사실상 재임 확정

중앙선관위, 3월16일
자격심사 '이상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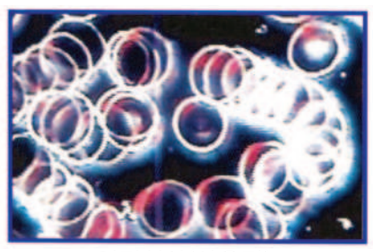
조계종 제19교구본사 화엄사 차기주지에 현 주지 덕문 스님<사진>의 재임이 사실상 확정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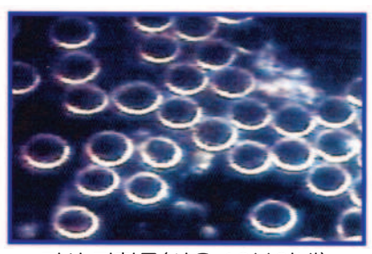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세영)는 3월 16일 화엄사 차기 주지후보에 단독 출마한 덕문 스님의 자격심사를 진행한 결과 '이상없음' 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덕문 스님은 3월 19일 화엄사 산중총회에서 차기 주지로 당선확정될 예정이다. 덕문 스님은 종열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85년 수계했다. 1989년 통도사 선원을 시작으로 7안거를 성만했으며 총무원 호법부장, 조계종 직영사찰 보문사 · 선본사 재산관리인, 조계종 중앙박물관장, 동화사 주지, 동국대 감사, 13 · 14 · 15대 중앙종회의원 등을 역임했다. 현재 사단법인 굿월드자선은행 대표, 정광학원 이사장, 동국대 이사, BBS광주불교방송 운영위원장, 화엄사 주지를 맡고 있다. 송지희 기자

"비누로 손·얼굴 한번 씻었는데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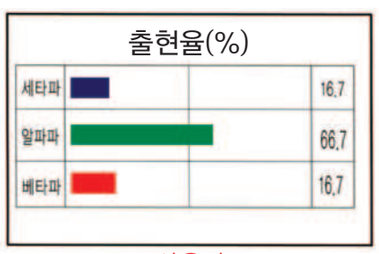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가가 나서서 국민건강, 인류건강을 위하여 적극 보호 지원 육성해야 되는것 아닌가요?

생혈액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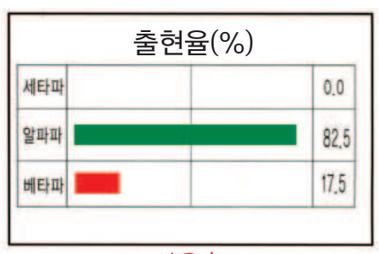

연전현상(사용전)


정상 적혈구(사용 10분이내)

뇌파 측정촬영



사용전



사용후

검버섯 제거 현상


사용전


사용 6개월 후

피가 맑아져 혈액순환이 원활해져 혈관이 깨끗해진다면, 이는 혈관순환 장애로 일어나는 질환 (다리에 쥐 나는 것, 목 · 어깨 · 허리 통증, 무릎 관절 등은 피가 맑아져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면 자연치유)에 대해 효과가 있으며, 비누거품을 코 속에 넣고 마사지 해주면 감기예방과 코막힘, 비염, 축농증 예방 및 치유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항균 폐렴균 · 대장균 · 포도상구균 99.9% 정균감소는 폐렴균 99.9% 정균감소는 폐렴균에 의한 모든 폐렴질환을 예방할 것이며 대장균 99.9% 정균감소는 식중독, 배탈, 설사를 예방하고 포도상구균 99.9% 정균감소는 아토피, 검버섯, 무좀, 비듬, 사타구니 가려움증, 발뒤꿈치 각질 등 각종 피부질환 개선은 물론 때를 일부러 밀지 않고 비누거품으로 마사지만 해주면 깨끗이 세정되는 특징과 피부가 투명하고 매끄러우며 윤이 나므로 스킨, 로션을 바르지 않아도 피부보습효과가 뛰어납니다.

탈취 75%는 발냄새, 겨드랑이, 체취, 홀아비냄새, 노인냄새 제거.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되는 게르마늄 허브비누

BLOOD MATE®
항균 99.9% 탈취 75% 음이온 126cc 원적외선 방사 90.2%

BLOOD MATE® 강비누:120g 2개 100,000원
BLOOD MATE® 순비누:120g 4개 100,000원
ORAL MATE® 치 약:120g 3개 63,000원
~~263,000원~~ ➡ SET 구매시 100,000원

◈ 혈액건강 ◈
◈ 두뇌건강 ◈
◈ 세포건강 ◈

세상에 이런 세정제를 보셨습니까?

㈜에이스 삼강 02)353-9692 , 010-2791-3696
농협 301-0238-2776-51 예금주 : ㈜에이스 삼강

미얀마 민주화 지지 본격화…“평화 해결” 발원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조계종, 3월16일 입장문 발표해
전국비구니회·종단협 등 잇따라
미얀마 국민들, 감동의 물결 확산

미얀마 사태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군부 쿠데타에 반발해 민주주의 수호를 외치며 거리로 나선 미얀마국민들이 폭력적 진압에 희생되고 있으며, 한 달 보름이 지난 현재 160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 불교계를 중심으로 미얀마 민주주의 지지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어 주목된다. 한국불교 최대종단 조계종(총무원장 원행)을 시작으로 한국종교인평화회의, 전국비구니회(회장 본각),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등이 미얀마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잇따라 나섰다.

조계종(총무원장 원행)은 3월 16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얀마 민주화를 위한 대한불교조계종 입장’을 발표하며 미얀마 민주화와 평화를 위한 연대와 관심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총무부장 금곡 스님, 기획실장 삼혜 스님, 재무부장 탄하 스님, 문화부장 오심 스님, 사회부장 성공 스님, 호법부장 태원 스님, 사업부장 주혜 스님, 교육원 교육부장 서봉 스님, 아름다운동행 상임이사 일화 스님 등이 참여했다.

이날 총무부장 금곡 스님이 대표낭독한 입장문에서 조계종은 “군부에 의한 미얀마 국민의 피해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미얀마 국민들의 민주화를 위한 저항과 분노에 깊은 위로와 연대의 입장을 밝힌다”고 선언했다. 이어 조계종은 △미얀마 국민들을 향한 군부 폭력의 즉각 중단 △미얀마 국민들의 민주화를 위한 운동에 대한 적극지지 △미얀마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노력 요청 △미얀마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불교도들의 기도와 동참을 호소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헤인만 재한미얀마청년연대 대표가 참석해 그간 미얀마를 위해 이어진 불교계 지지 움직임에 대한 감사를 전했다.

전국비구니회는 3월 17일 비구니회관에서 미얀마평화기원법회를 봉행하고 불교여성개발원과 샤카디타코리아와 공동으로 ‘미얀마 민주항쟁을 지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국비구니회 등은 “이번 미얀마 사태는 한 나라에 국한된 일이 아니라 전세계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도전”이라며 “특히 대한민국은 민주화 항쟁을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한 역사를 갖고 있는 나라로, 미얀마 민주항쟁에 더욱 공감하며 지지한다”고 천명했다. 또 UN가입국 모두에 대해 미얀마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협력하고 행동할 것을 촉구한데 이어 “전국비구니회와 여성불자들은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미얀마 국민들을 위해 기도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계종은 3월 16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얀마 민주화를 위한 대한불교조계종 입장’을 발표했다.

전국비구니회와 불교여성개발원, 샤카디타코리아는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법룡사와 서울지역 사찰, 주한미얀마대사관 앞에서 미얀마 평화를 발원하는 기도회를 열고 108참회기도와 대다라니 독송, 관세음보살 정근, 발원문 낭독 등을 이어갈 방침이다.

한국종교인평화회의(대표회장 원행, 이하 KCRP)도 3월 18일 미얀마 민중 항쟁 지지성명을 발표했다. KCRP는 “미얀마연방공화국은 여러 민족이 공존하면서 민주적 절차에 의해 정권을 선출함으로 자신의 미래를 열어가는, 민중이 세운 민주주의 공화국”이라며 “민주적 절차에 따른 선거 결과를 무시하는 군부는 군사반란세력이며 미얀마 민중을 통치할 권한이나 군사행동을 할 어떠한 명분도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미얀마 군부는 세 번째 쿠데타로 또다시 민중을 살육하고 있다”며 “이는 역사의 퇴보이자 반인륜적 행태로 우리 한국 종교인 모두는 이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 “한국의 종교인들은 사태의 빠른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고 행동할 것이며, 아시아는 물론 온 세상의 모든 종교인과 연대하여 미얀마 민중을 지키기 위해서 행동하겠다”고 선언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3월 18일 ‘미얀마 군부는 당장 국민에 대한 살상을 중단하라’ 제하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미얀마 국민들과 함께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건설에 동참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종단협은 “미얀마 국민들이 요구하는 민주화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유의지의 발로로서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막아서는 안 되는 인간다움의 길’을 열어달라는 절박한 절규”라며 “미얀마 군부의 폭력진압으로 인한 살상은 불성을 지니고 있는 국민들의 성불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에 미얀마 군부를 향해 “당장 총을 거두고 자유의지를 향한 불성의 외침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며 “참회로서 민주화의 길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같은 한국불교계의 움직임에 미얀마 국민들의 감동도 확산되고 있다. 한국에 거주하는 미얀마인들은 물론, 본국 미얀마 국민들은 조계종 사회노동위가 진행한 미얀마 평화를 위한 오체투지 기도 영상에 미얀마어로 감사의 뜻을 남기고 있으며, 한국 불교계에서 발표하는 입장문 등을 번역해 공유하며 민주화 의지를 다지고 있다.

미얀마 양곤대 박사과정에 수학중인 최재희 씨는 “희생자 추모법회와 오체투지 기도회가 미얀마인들에게 한국의 지지를 알린 결정적인 순간으로 보인다”며 “인터넷 접속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소식을 접한 미얀마 지인들이 한국불교계에 진심어린 감사인사를 전해오고 있다”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신계사 템플스테이, 남북 불교계 뜻 모아 추진”

민추본 본부장 월우 스님,
3월 17일 올해 계획 공개
후원 확대로 내실 강화도



“남북관계는 다양한 변수가 작용하는 만큼, 일희일비하지 않고 묵묵하게 긴 호흡으로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신계사 템플스테이는 남북교류의 상징이자 추진과제로서, 비록 현실적 어려움은 있지만 남북 불교계가 뜻을 모은다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장 월우 스님<사진>은 3월 17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북관계 경색국면이 고착화된 상황에서도 남북교류협력을 위해 추진할 사업계획들을 밝혔다. 스님은 특히 37대 집행부의 종책사업인 신계사 템플스테이에 대해 남다른 의지를 드러냈다.

월우 스님은 “종단 내 여러 관련 기관의 협조 하에 신계사 템플스테이 준비를 위한 조직을 구성해 제반 문제점 검토를 거쳐 현지 상황을 충실히 반영한 설계도가 올해 안에 완성될 수 있도록 준비일정을 잡고 일을 추진하겠다”며 “금강산 신계사야말로 남북교류의 상징으로 그 의미가 큰 만큼 남·북 불자들이 신계사 템플스테이에 머물며 평화와 통일을 부처님께 서원하는 의미 있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스님은 “신계사 템플스테이 진행은 남북불교계 뿐 아니라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으로, 본격적으로 추진된다면 한발 더 나아가 북한의 산림을 푸르게 하는 일의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신년기자회견에서 언급하신 ‘전쟁으로 소실된 북한 사찰의 복원’과도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민추본은 올해 ‘금강산 신계사 템플스테이 소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다. 현재 경색국면인 남북관계가 해소될 경우, 즉각 논의에 착수해 체험관 착공 등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설계도 및 운영방안 등 구체적인 실무안을 구성해 놓기 위함이다. 소위원회는 신계사 템플스테이 관련 사업이 본격 추진돼 실무조직이 재구성되기 전까지, 체험관 건립을 비롯한 모든 영역에서의 계획을 구성하고 논의·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스님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속적인 노력을 개진해 올 6월경에는 신계사 템플스테이 체험관 기공식 봉행을 목표로 설계도와 예산 등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수립해 나가고자 한다”며 “언제든 착수할 수 있도록 기본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남북정부간 관계 악화로 인해 대북교류·협력사업의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황임을 염두에 두고, 후원조직 확대 등 조직 내실 강화와 외연 확대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월우 스님은 “올해는 코로나로 더욱 힘든 상황이지만 북한사찰 사진 전시회의 지역순례, 지역본부 출범, 세미나 등을 통해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하고 후원 불사를 추진해 나가겠다”며 “불자들의 한반도 평화 및 통일인식 확산을 위해 온라인 및 영상을 활용한 불교통일교육 미디어 자료를 제작하는 등 인식교육과 캠페인 사업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지희 기자

동국대 경주캠 4개과 폐과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회서 결의…서울캠 AI학부 신설

논란이 됐던 동국대 경주캠퍼스 학사구조개편안이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회서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경주캠퍼스 한국음악과와 신소재화학전공, 의생명공학전공, 빅데이터·응용통계학전공은 폐과하게 됐다. 서울캠퍼스가 신설하는 AI융합학부도 통과됐다.

학교법인 동국대(이사장 성우)는 3월 18일 고양 BMC 상영바이오관 8층 회의실에서 제335회 회의를 열고 ‘학과·대학의 신설과 폐지 및 학생 정원 조정’에 대해 논의했다.

윤성이 서울캠퍼스 총장과 이영경 경주캠퍼스 총장은 학과 신설과 폐지와 학생 정원 조정에 대해 설명했다. 윤 총장은 “이공계열이 약세인 상황에서 첨단 신기술 학과가 필요하다”며 AI융합학부 신설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총장은 학령인구·대학진학률 감소를 이유로 “학과역량평가를 통해 낮은 등급을 받은 한국음악과, 신소재화학전공, 의생명공학전공, 빅데이터·응용통계학전공의 신입생 모집을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인 이사들은 시대 상황에 따라 4개 학과 폐지에 대해서는 공감했지만, 학사 구조 개편 과정에서 의견 수렴이 미흡했음을 동국대 경주캠퍼스에 지적했다. 또한 폐과 대상 학과 학생들의 우려가 많은 만큼 이를 해소하도록 설득할 것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회는 건학이념 구현을 위한 건학위원회 출범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건학위원회는 4월 중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앞서 이사회는 지난 2월 9일 제334차 이사회서 건학위원회 구성을 골자로 한 정관세칙 변경을 만장일치로 통과한 바 있다.

신성민 기자

내장사 대웅전 화재 참회 발원문

시방에 상주하시는 거룩하신 불보살님께
참담한 마음으로 엎드려 참회하고 우러러 발원하나이다.

1400년 유구한 역사의 도량을
청정하게 수호하지 못한 저희들의 허물을 참회합니다.

내장사 대웅전이 화마에 휩싸일 때
저희들 또한 함께 불타올랐으며
타다 남은 앙상한 서까래를 보면서
저희들의 가슴 또한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잠시나마 저희들은
이 문제는 한 개인의 잘못일 뿐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는 어리석음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각자가 모두 그러하듯이
그 스님 또한 우리 공동체의 일원입니다.

한 사람의 허물은 전체의 허물이고
한 사람의 훌륭함은 전체의 훌륭함입니다.
존재의 실상이 일즉일체 다즉일이므로
화합과 청정한 정진은 우리 공동체의 본질적 지향입니다.
나와 남을 별개로 분리하는 미혹한 분별심을 참회합니다.

우리가 의지해서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이웃들, 국민들과 불자님들께
저희들의 허물을 머리 숙여 참회합니다.
이 두려움과 부끄러움으로 스스로를 점검하고 경계하여
청정과 화합을 회복하겠습니다.

거룩하신 불보살님이시여,
이제 저희들은 저 내장사 대웅전을 태운 불길을
우리 공동체의 업장을 사르는 연비의 불꽃으로 삼고
탐진치로 지어진 중생세간을 태우는
무량광의 지혜 불꽃으로 삼겠습니다.

저희들은
온 몸을 던지는 참회 정진으로 주춧돌을 놓고
청정한 정진으로 기둥을 삼으며
자비희사 무량심으로 대들보를 얹고
온 세상을 덮는 보살행을 지붕으로 하여
보리 도량을 건립하겠습니다.
나 스스로 도량이 되고
우리 공동체를 도량으로 이루어
법신 편만의 중중무진 아란야 법보리도량을
구현하겠습니다.

지심귀명,
저희들의 발원을 증명하여 주시옵소서.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대한불교조계종

챌린지·디지털 문해로 진화하는 기부

〈문자해독능력 배양〉

[기 획]
포스트코로나 '랜선 기부'

① 코로나로 반토막 불교기부
② 랜선기부 '플랫폼' 어디에?
③ 랜선 '디지털 에이징' 뜬다
④ 불교 랜선기부 롤모델은?
⑤ 포스트코로나 기부문화 미래는?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아 랜선기부 활성화를 위해서는 여러 과제가 있지만 무엇보다 활발하게 랜선기부 영역을 개척하는 곳을 벤치마킹 하는 것 또한 필요한 상황이다.

① 모바일 릴레이 챌린지로 청년층 유도

가장 눈에 띄는 활동을 하는 곳은 국내 최대 기부처인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다. 사랑의열매는 최근 각종 인플루언서를 동원, 틱톡과 유튜브 등 SNS에서 릴레이 챌린지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최근 젊은 세대로부터 각광받는 숏폼 모바일 비디오 플랫폼인 '틱톡'을 활용해 배우 이성경 씨의 팬미팅 이벤트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돕는데 나섰다. 방법 또한 스마트폰 카메라를 활용해 이성경의 틱톡 영상에 이어찍기 기능으로 의료진에게 응원 메시지를 넣거나 영상 음원을 사용해 모델 워킹을 찍고 해시태그를 붙여 챌린지에 참여 가능하다.

불교계에서는 아름다운동행이 SNS를 활용한 챌린지에 활발하게 나서고 있다. 2015년 저소득가정을 위한 연탄지원 캠페인 '아이연탄맨'은 불교계에서 보지 못했던 릴레이 추천 방식의 기부를 도입해 큰 반향을 일으켰다. 릴레이는 지명을 받은 사람이 손바닥에 연탄 모양을 그리거나 붙인 뒤 사진을 찍어 이웃에게 전송하고 연탄 다섯장 비용인 3000원을 ARS나 모금계좌를 통해 기부하는 캠페인으로 전개됐다.


2016년 진행된 아름다운동행 아이연탄맨 챌린지. SNS를 통한 랜선기부와 오프라인 기부의 조합으로 큰 반향을 이끌었다.

소액 기부와 SNS를 통한 방식에 스님 등 불교계 주요인사 뿐만 아니라 청년회 회원, 불자 대학생들이 대거 참여해 그동안 사찰이라는 환경과 현물기부라는 형식에 치중됐던 불교계 기부를 한차원 끌어 올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SNS챌린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 인지도가 높은 불자 인플루언서와 파급력이 높은 SNS플랫폼을 택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② 어르신 모바일 기부 접근 높여요

불교계가 수탁운영하는 종로노인종합복지관도 2007년부터 어르신 정보화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종로구청과 배화여자대학교 등 민·관 단체들과의 협업을 통해 디지털 혁신교육, 문해교육, 키오스크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은 운영하고 있는 디지털 매체별로 콘텐츠 제공자와 이용자가 각각 콘텐츠를 생산·활용·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디지털 에이징 똑똑 사업'을 추진 중이다.

③ 카카오로 진출한 사찰

해인사 말사인 함양 문수사의 경우 기부플랫폼인 카카오같이가치에 사찰을 등록하고 인스타그램과 카카오채널로 소식을 올리고 있다. 주지 하륜 스님은 "25년 기독교인으로 살던 서울토박이가 합천 해인사로 출가해 지리산 산속 사찰 주지를 맡아 좌충우돌 살아가는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다"며 "현재는 죽음 앞에서 떠나는 자와 남겨진 이들이 두려움없이 죽음을 바라볼 수 있는 불교웰다잉포교를 원력으로 수행정진중이다"고 전했다.

불교계를 중심으로 활동 중인 전통문화 사회적기업 마인드디자인의 경우도 전통문화 현대화에 대한 다양한 활동을 올리며 클라우드 펀딩 형태로 후원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진짜 명품, 한국의 전통공예 기술!'을 주제로 전통공계 기술을 담은 영상을 제작했다. 첫 번째 영상의 주인공은 청자로 유명한 강진탐진청자 김보미 작가로 젊은 청년작가의 열정을 후원하는 이들을 모집하고 있는데, 총 1000여 명이 참여한 상태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의 경우 3월 31일까지 '식혜가 아닌 식사를 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란 내용으로 해피빈 기부를 받고 있다. 당뇨병을 앓는 장애인 어르신의 사연을 통해 평범한 삶에 대한 중요성과 주변 어르신의 안타까운 사연을 전하고 있다.

사회복지재단 측은 "기부에 있어서 공감을 이끄는 메시지를 먼저 전하는 것 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온라인, 오프라인 등 다양한 창구를 이용하는 건 시대 흐름"이라고 말했다.

칠장사 괘불탱, 배채법 유일 활용 확인

성보문화재硏와 문화재청
대형 불화 7건 조사 담은
정밀 조사 보고서 발간해
칠장사 괘불탱 금니 사용
옥천사괘불 보물지정 성과

국보 칠장사 오불회 괘불탱이 현존 괘불탱 중 유일하게 배채법이 활용·조성됐다는 사실이 정밀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사)성보문화재연구원(원장 현문)과 문화재청(청장 김현모)은 "대형불화인 괘불탱 정밀조사 사업의 2020년 조사 결과를 종합한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3월 18일 밝혔다.

사업 시행 후 6번째 발간된 보고서에는 △신원사 노사나불 괘불탱(국보 제299호) △칠장사 오불회 괘불탱(국보 제296호) △칠장사 삼불회 괘불탱(보물 제1256호) △청룡사 영산회 괘불탱(보물 제1257호) △축서사 괘불탱(보물 제1379호) △오덕사 괘불탱(보물 제1339호) △고성 옥천사 영산회 괘불도 및 함(보물 제2108·2109·2110호) 등 총 7건의 대형불화에 대한 과학적 분석 결과와 채색 정보, 관련 유물의 원형 자료와 보존 현황 정보 등의 내용이 망라돼 있다.


국보 칠장사 오불회 괘불탱 부분. 성보문화재연구원과 문화재청의 정밀조사를 통해 현존 괘불탱 중 유일하게 바탕색에 배채법이 사용되고, 금니·금박이 사용된 것이 확인됐다.

또한, 자외선-가시광선 반사 분광 분석을 적용한 청색과 흑색 유기 색료 해석 등 채색 재료 분석 데이터와 바탕 직물에 대한 조사 결과가 담겼으며, 목재 궤에 사용한 철물 장석의 분석 결과를 새로이 담아 정밀조사의 연구 범위를 넓힌 것도 특징이다.

이번 정밀조사로 그동안 확인되지 않았던 새로운 괘불탱 조성 방법들이 확인됐다.

대표적인 것이 '칠장사 오불회 괘불탱'이다. 조사를 통해 '칠장사 오불회 괘불탱'은 현존하는 괘불탱 중 유일하게 바탕색이 '배채법(背彩法, 종이의 뒷면에 색을 칠하여 은은한 느낌이 앞으로 배어 나오게 하는 화법)'으로 처리됐으며, 일부분이 금박과 금니로 채색된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얇은 비단인 '초'를 일반적인 전통 직물의 폭보다 넓게 짜 제작하여 그 위에 그림을 그린 것도 확인됐다. 이에 대해 성보문화재연구소는 "'칠장사 오불회 괘불탱'의 새로운 조성 기법들이 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이는 17세기 불화 채색 기법과 직물 제직 기술 연구에 중요한 자료를 확보하게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고성 옥천사 영산회 괘불도'의 복식 문양을 표현 기법도 새롭게 확인됐다. 일명 돋음 기법으로 불리는 '고분법(高紛法)'이 '고성 옥천사 영산회 괘불도' 복식 문양에 사용됐는데, 그간 17~18세기 조성 괘불탱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던 기법이었다.

올해에는 △갑사 삼신불 괘불탱(국보) △금당사 괘불탱(보물) △율곡사 괘불탱(보물) △운흥사 괘불탱 및 궤(보물) △용흥사 삼불회 괘불탱(보물) △안국사 영산회 괘불탱(보물) △흥천사 비로자나삼신괘불도 및 괘불함(서울시 유형문화재) 등 7건을 대상이며, 3월 22일부터 정밀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다문화 소통과 자비 도량 만들터"

서울 삼룡사, 3월 14일
무원 스님 주지 진산식

천태종 종의회 의장인 무원 스님이 천태종 서울 동부지역 포교 거점 사찰인 삼룡사 주지에 취임했다. 삼룡사는 3월 14일 오전 11시 제 17대 주지 무원 스님의 취임법회인 진산식(晉山式)을 3층 지관전에서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천태종 감사원장 진덕스님을 비롯해 조계종 前 포교원장 혜총스님, 김대선 한국종교연합 상임대표, 주낙길 천주교 글라렛선교수도회 원장 등 이웃 종교계 인사와 함께 이낙연 前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서영교·박홍근·오영훈·이용선(이상 더불어민주당)·박성중(국민의힘)·양정숙(무소속)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무원 스님이 화동에게 축하 꽃다발을 받고 있다.

진산식에서 무원 스님은 취임사를 통해 "천태종 창종주인 상월원각 대조사님의 원력과 유지를 받들고, 종단의 3대 지표인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의 실현을 통해 불교를 불교답게 만들겠다"며 "서로 다름을 인정할 때 공존할 수 있다는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 다문화·다종교의 소통과 자비 나눔을 실천하는 도량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무원 스님의 주지 취임을 축하하는 각계 축사도 이어졌다. 조계종 前 포교원장 혜총 스님은 "부산 삼광사 주지 시절부터 인연이 깊은 무원 스님 덕분에 부산 불교가 많은 발전을 이뤘다"면서 "삼룡사도 큰 발전을 이룩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낙연 前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무원 스님은 다문화가정·남북평화 문제 등 사회의 갈등을 화해로 바꾸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신분"이라고 밝혔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묘적사로 기름 흘러… 사찰환경 수호"

주지 환풍 스님 등 17일 기자회견

묘적사 주지 환풍 스님을 비롯한 묘적사 신도대중은 3월 1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월문 영상·문화·관광단지 사업에 대한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묘적사 측은 해당 사업부지에서 흘러나오는 오폐수로 인하여 묘적사를 싸고 흐르는 월문천에 심각한 수질오염이 발생하고 있음을 밝혔다.

환풍 스님은 "관음상이 있는 연못의 물고기와 개구리 등이 이미 모두 죽었다. 사찰 연못과 인근 하천에 기름이 뜨고 수위마저 저하되고 있다"며 "이 사업단지에 대규모 관광시설이 들어설 경우 막대한 환경오염과 함께 사찰 수행환경 침해 또한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월문 영상·문화·관광단지는 60만평 규모로 루지 체험장 등 위락시설이 대거 들어서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 단지와 묘적사의 거리는 100여 미터에 불과한 상태다. 환풍 스님은 "사업 초기에는 묘적사 신도들인 지역 주민들의 이익과도 관계되기에 반대하지 않았지만 심각한 수행환경 침해에 나서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祝 3세 종정 성우 자윤 스님 추대 취임"

제2014-36호 사단법인 대한선불교 원효종 소속

대한 불교 원효종 (관등록번호 2151-0048)

〈수익 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 법인 및 국가기관 등 : 본점〉

종조 원효 성사

1세 종정 혜은 법홍 (열반)
2세 종정 요산 청암 (2012~ 2020)
3세 종정 성우 자윤 (2021~ 현재)

총무원 : 울산광역시 울주군 내광로 29-2(부처님 진신사리 봉안도량)
전화 : (052) 238-8010 **팩스** : (052) 238-7010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선치료 명상 과학 센타

제6차크라 젠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전 11시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젠에너지체(붓다의 의성신·금강신)를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수 행**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 전수함. (아나빠나사띠숫타)
■ **부처님말씀** (아나빠나사띠숫타) : 1.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한 삼매를 닦고 많이 공부지으면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2. 들숨날숨을 통한 알아차림에 대한 삼매를 닦으면 – 몸도 피로하지 않았고 눈도 피로하지 않았고 나의 마음도 번뇌로부터 해탈하였다.
3. 호흡의 전과정(길고, 짧고, 거칠고, 미세한)을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리라.
4. 맛지마니까야 : 평정한 마음과 분명한 알아차림과 육신의 행복을 느끼며 머무른다.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뇌의핵심〈송과체〉·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젠에너지체 – 행주좌와어묵동정)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구전심수) / 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10-5282-7292 (젠에너지 치료 예약 접수)

제6차크라 젠에너지 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수료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재학중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전)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과학적인 증거
(ㄱ) 호흡의 물리가 터지다 = 제6차크라 젠에너지체
(ㄴ)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은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 처명선광 검색
(ㄷ) 구글에서 신희섭(기초과학연구원단장, (전)IBS 1호 연구단장, (전)KIST 뇌과학 연구소장) 구글이미지로 제6차크라가 열려있는 것을 확인 가능
*붓다의 호흡법 : 방법을 알고 최소 1일 10시간씩 3년이상 수련 필요

붓다의 호흡법 연구소(소장:처명)

유튜브에서 '처명선광' 검색
듣기만해도 치료가 되는 실전 명상

제주 봉려관 스님 생애 바로 세우기



혜달 스님은

1982년 법희 스님(광주 흥룡사)을 은사로, 자운 스님을 계사로 사미니계를 수계했다. 1987년 자운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계하고, 1988년 3월 봉녕사 승가대학 대교과를 졸업했다. 1994년 국립 대만사범대학에서 학사학위 취득 후 1997년 국립 대만사범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2002년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일본 하나조노대학 연구원, 동국대학교(서울) 선학과 강사, (사)보조사상연구원 연구위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관음정사(제주) 문화원장, BBS 제주불교방송 운영위원(감사), (사)봉려관선양회 이사, (사)봉려관불교문화연구원 원장이다. 〈제주의 여성 리더 봉려관〉에 이어 어른들이 읽는 동화 〈고마워요 봉려관〉을 기획 · 감수했다. 최근 그간 연구성과를 담은 〈봉려관〉을 출간했다.

인터뷰 **혜달 스님 봉려관불교문화연구원장**

사숙 노스님은 종종 혜달 스님을 앉혀두고 봉려관 스님의 이야기를 꺼냈다. 조선시대 제주목사로 부임한 이형상에 의해 수많은 사찰들이 폐허가 되고 불교의 씨앗이 사라졌던 제주도, 이후 200여년간 지속된 암흑기의 제주불교를 다시 일으킨 비구니 봉려관. 그는 엄혹했던 시기 여성의 몸으로 육지와 제주를 오가며 관음신앙에 의지해 불연의 씨앗을 지폈고 관음사를 비롯한 사찰들을 창건했으며, 항일운동에도 투신했던 입지전적인 스님이었다. 듣고 있자면 흥미로웠다. 그러나 당시 혜달 스님에게 봉려관은 단지 문중 스님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하는 대단한 비구니 스님의 이야기, 그 뿐이었다.

1989년 노스님이 입적했다. 스님을 떠나보내는 자리에서 스님의 상좌 법인 스님을 만났다. 법인 스님은 봉려관 스님의 이야기로 3일 밤낮을 지새웠다. 그리고 한삼모시적삼 한벌을 꺼냈다.

"봉려관 스님의 행장을 정리하겠다고 약속해라. 내 말을 기억한다면 연정스님을 찾아가서 봉려관 스님의 삶을 들어라.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경주 흥룡사에서 법희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후, 문중 스님들을 통해 전해듣기만 했던 봉려관 스님의 삶이 하나의 실체로서 혜달 스님에게 불쑥 와 닿은 순간이었다.

그러나 인연은 쉬이 닿지 않았다. 스님은 그해 묘엄 스님의 권유로 대만 유학길에 올랐고, 한동안 봉려관 스님을 잊고 살았다. 사실 미처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는 표현이 적합하다. 국립 대만사범대학에서 학사학위 취득을 시작으로 석사, 박사과정까지 수학하며 공부와 연구에만 푹 빠져살았던 시기였다.

법인 스님이 잊었던 약속을 상기시켰다.

"봉려관 스님을 절대 잊지 마라. 봉려관 스님의 업적이 정리된다면 이는 우리 문중을 넘어 한국 비구니의 자존심이 될 것이다."

봉려관 스님을 다시 만난 것은 2017년 12월 한 세미나장에서다.

혜달 스님은 큰 충격을 받았다. 한 연구자가 봉려관 스님과 관련해 왜곡된 주장을 펼치기 시작한 것이다. 스님은 "한 발표자가 근거 문헌 없이 봉려관 스님의 입적지를 느닷없이 산천단이라고 주장하는 모습을 보고 경악했다"며 "봉려관 스님의 입적지는 관음사이며 이는 기록과 문중스님들의 증언으로 이미 확인된 사실이다. 그 기억은 봉려관 연구에 본격적으로 매진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연구를 시작한 후 일부 제주연구자들에 의해 봉려관 스님의 생애와 업적이 축소 · 왜곡되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으며, 확실한 근거 없이 수차에 걸쳐 사실과 다르게 알려지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봉려관 스님의 은사부터 관음사 창건내력, 입적지까지 문중 스님들로부터 들어온 구술과 다른 것은 물론, 역사적 사실과도 맞지 않고 명확한 근거자료도 없었죠. 봉려관 스님의 행적을 역사적으로, 바르게 정립해야 할 필요성을 매순간 절감했습니다."

혜달 스님은 "심지어 명확한 근거 없이 관음사 창건연도조차 바꾼 주장들이 수차에 걸쳐 제기되고 있었다"고 한탄했다. 스님에 따르면 1908년 계를 받고 제주도 산천단 거처로 돌아온 봉려관 스님은 4월 대흥사 제주도 담당 포

근대 제주불교 재건한 봉려관 스님의 입적후 82년 지났지만 생애 · 업적 조명 미흡한 수준

교사로 임명됐다.(승적부) 이어 근대 제주불교사상 최초로 산천단에서 부처님오신날 행사를 봉행했지만 이후 토착민들의 방화로 한라산으로 향했다. 사찰 건립을 위한 100일 관세음보살 기도에 전력한 스님은 기도 성취 후 해월굴에 머물며 사찰 건립에 매진했고, 1909년 봄 근대 제주불교 최초 사찰 관음사를 창건했다.

혜달 스님은 "일부 연구자가 봉려관 스님과 함께 관음사를 창건했다고 주장한 인물은 1909년 7월 22일 대구 형무소에서 나왔고, 관음사 창건을 직접 언급한 문헌들에도 언급되지 않는다"며 "오류가 발생하자 관음사 창건연도를 1908년으로 밝혔는데 문헌기록과 대치될 뿐 아니라 사실상 불가능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봉려관 스님에 대한 왜곡을 확인한 혜달 스님은 관련 자료들을 닥치는 대로 모았다. 기초자료가 될 수 있는 문헌들은 관음사 화재 등으로 총 4차에 걸쳐 유실된 상황이었다. 구술채록이 필요했다. 기존의 문헌자료에 입각해 봉려관 스님의 생애를 1차적으로 정리한 스님은, 이를 토대로 스님의 발자취를 되짚어나갔다.

사숙 노스님 안광호 스님(1915-1989)과 상좌 법인 스님(1931-2011), 법선(1899-1991, 제주보현암) 스님을 비롯해 봉려관 스님을 기억하는 스님과 재가자들을 찾아 직접 만났고, 증언을 녹음했다. 구술 기록들은 문헌과 역사적 사실, 다른 이의 구술과 교차 대조해 치밀하게 검증하는 절차를 거쳤다.

"학자의 기본은 연구입니다. 확실한 자료를 토대로, 산별적으로 널려있는 정보, 흩어진 자료와 기록들을 취합해 교차검증해 명확한 근거를 찾아나가는 과정이죠. 봉려관 스님 입적 후 80년 세월이 지나면서, 실제 만났거나 기억하는 분들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특히 구술채록에 속도를 냈습니다."

봉려관 스님의 발자취가 닿은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갔다. 운전을 하지 못해 대중교통을 이용해 발로 뛰는 수밖에 없었다. 겨울에는 털신을, 여름에는 고무신을 신고 전국 곳곳을 누비다 보니 발이 만신창이가 되는 것은 한순간이었다.

허탕을 친 적도 있었고 아무 기대 없이 찾은 곳에서 핵심적인 증언을 확보한 경우도 있었다. 구술을 받으며 만난 모든 이들을 스승으로 여겼다. 최대한 많은 증언을 확보해 교차검증하는 과정에서 사실 가능성 여부를 드러내는 것이 중요했기에 가능성도 항상 열어뒀다. 그렇게 만난 이들의 수가 2018년 한해만 87명, 지금까지 90여명을 훌쩍 넘는다.

혜달 스님은 최근 근거문헌과 90여명의 구술 기록을 정리해 봉려관 스님의 일대기를 정리한 책 〈봉려관-근대 제주불교를 일으켜 세우다〉를 출간했다. 그간 왜곡됐던 봉려관 스님의 행적과 근대 제주불교사를 교차검증해 바로잡아 온 성과들이 담겼다.

그럼에도 혜달 스님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근거가 확인된 내용만을 선별해 담아내다보니 전체 연구 내용의 30% 정도밖에 담지 못해 되레 아쉬운 마음이 크다.

"봉려관 스님의 행적을 되짚어나가는 과정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쇄된 책을 확인하면 기쁠 줄 알았는데 눈물부터 나더라고요. 무엇보다 봉려관 스님에게 죄송한 마음이 컸어요. 너무 늦어서, 그리고 아직도 스님의 생애를 모두 다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과제도 산적해 있다. 봉려관 스님은 이제 명실공히 근대 제주불교를 재건한 비구니이자 제주불교 첫 비구니로 널리 조명되고 있는 반면, 여전히 항일운동 행적에 대한 연구는 미진하다. 항일운동 거점사찰로 추정되는 법정사를 중심으로 그 행적을 명확하게 드러낼 필요가 있다는 신념이다.

"봉려관 스님이 항일운동을 하다 독살당했다는 증언들이 있습니다. 스님이 중창한 법정사는 사람이 다니기 힘든 곳에 위치해 있으며 뒤편으로도 통로가 있어요. 스님이 법정사에 항일투사들을 숨겨줬고 자금을 만들어 대흥사 등에 전달했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불교계 항일운동은 법정사를 넘어설 수 없음에도, 아직까지 제대로 연구되거나 알려져 있지 않죠. 우리 불교계의 관심이 필요한 지점입니다."

왜곡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은 시작일 뿐이다. 나아가 봉려관 스님의 생애와 업적을 제대로 조명하고 이를 토대로 그 유지를 잇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생각이다.

"요즘 포교하기 힘들다고 하지만 불연이 끊였던 그 시절 제주보다 더하겠

2017년 왜곡된 주장 알게 된 후 문헌자료 · 구술채록 등 본격화 90여명 증언 확보해 교차 검증

습니까. 거처에 불을 지르고 돌팔매질을 하는 이들 속에서도 봉려관 스님은 관음신앙에 의지해 당당히 저변을 넓혔고 종국에는 근대 제주불교를 재건했습니다. 엘리트도 아니었죠. 아주 평범한 여성이었습니다. 봉려관 스님은 원력으로 그에게 주어진 수많은 일을 을 헤쳐나갔고 그것이 쌓여 '비범한 업적' 이 됐습니다. 우리 후손들이 되새겨야 할 지점입니다."

비구니 문중서 구술로 전해졌던 봉려관 스님의 비범한 삶이 혜달 스님의 손끝에서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혜달 스님은 그 생애와 업적이 완성될 때 모든 자료를 총체적으로 담은 자료집을 출간한 계획이다. 자료집은 봉려관 스님의 참모습을 확연히 드러내는 동시에, 후속 연구자들을 위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혜달 스님은 "봉려관 스님이 입적한 지 올해로 꼭 82년이 됐다"며 "봉려관 스님의 업적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는 과정을 넘어 한국불교를 지탱한 스님, 그리고 여성리더로서 봉려관 스님을 제대로 알려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송지희 기자**

승가대학

◇ **모집대상** : 신입생 00명, 편입생 00명, 재입학생 00명
◇ **모집기간** : 불기2565(2021)년 **4**월 **8**일까지
◇ **전형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
◇ **제출서류** : 1. 입학원서(본 승가대학 소정양식)
2. 승가대학 학년 수료 증명서(편입생, 전입생, 재입학생에 한함)
◇ **특 전** : 1. 성덕대학교 불·학 협약을 체결하여 사회복지과에 다닐 수 있으며, 모든 학인스님들에게 장학금 지급.
2. 해외 성지순례(사집반·대교반)
3. 모든 신입생 최신형 노트북 지급
◇ **문 의 처** : ☎ 강원 (053)980-7923, 학감 010-3038-8533

동화사승가대학장 **청두 종인**

동화사 한문불전 승가대학원

○ **모집대상** : 비구, 비구니스님 및 재가자
(5계를 수지한 신도 및 불교대학 졸업자) 신입·편입생 모집
○ **학 제** : · 2년 4학기, 주1회 수업, 년2회 2박 3일 특강
· 수업시간 : 매주 월요일 오후 5시~ 8시
· 수업장소 : 보현사 내 보광명홀(대구시 중구 남산2동 932-35번지)
· 수 강 료 : 한 학기당 50만원
○ **교과과정** : 대방광불화엄경 및 법화경, 대승경전
○ **모집기간** : 불기2565(2021)년 **4**월 **2**일까지
○ **개강일자** : 불기2565(2021)년 4월 5일
○ **제출서류** : 입학원서(소정양식), 승적증명서 또는 승려증 사본(스님에 한함), 반명함판 사진2매
○ **수료자특전** : 동화사 한문불전 승가대학원 졸업시 3급 승가고시 응시에 필요한 교육 경력 2년 인정
○ **문 의 처** : 053)252-3445, 동화사 홈페이지 참조

한문불전승가대학원 원장 **윤암 선지**

대한불교 조계종 제9교구 본사
팔공총림 동화사
대구광역시 동구 동화사1길 1(도학동35) **www.donghwasa.net**



탄소흡수림 조성 위한 환경축제 열린다

녹색 사찰 울산 백련사 4월 12일 오후2시 개최

환경 의식 고취 차원 개최
임현정 · 라마 등 특별공연
노플라스틱의 전시도 진행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울산불교환경연대는 4월 12일 오후 2시 울산 울주군 녹색사찰 백련사에서 '천그루 축제 환경 콘서트'를 개최한다.

탄소를 흡수하고 맑은 산소를 배출하는 탄소흡수림은 맑은 환경을 위한 수호신장 같은 존재들이다. 그들을 위해 공존을 생각하고 노래하는 콘서트가 열린다.

울산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천도)는 4월 12일 오후 2시 울산 울주군 녹색사찰 백련사에서 '천그루 축제 환경 콘서트'를 개최한다.

환경콘서트는 코로나로 인해 지쳐 있는 울산시민들에게 아름다운 음악을 제공하고 힐링을 선사하는 시간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자연과 조화로운 삶을 돌아보고 미래세대를 생각하는 환경 명상을 통해 생활 가운데 실천 덕목을 약속하는 시간으로 기획됐다.

환경콘서트에서는 먼저 임현정 피아니스트가 대웅전 앞 무대에서 연주할 예정이다. 봄을 맞은 백련사는 녹색사찰답게 곳곳에 봄꽃이 만발했다. 콘서트 당일에는 벚꽃이 만개할 시기여서 벚꽃이 흩날리는 아름다운 장면이 피아노 곡조와 함께 어우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천도 스님은 "임현정 피아니스트의 별명이 '나무와 손'이다. 손가락의 지문은 나무의 나이테를 의미한다. 이번 콘서트를 계기로 환경운동을 위한 홍보위원으로 활동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환경을 위한 음악가, 그린 아티스트 '라마'의 공연도 이어진다. 라마는 다양한 악기들을 연주하며 관객들과 소통하는 어쿠스틱 밴드 요술당나귀 보컬이다.

울산불교환경연대는 콘서트에서 기후환경 보호를 위해 실천 약속을 담은 피켓을 직접 만들어 캠페인에 참여하며 탄소저감운동에 함께한다. 또 환경 콘서트의 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다.

행사 전후 쓰레기가 생기지 않도록 '제로 웨이스트'를 목표로 진행되며 '노(No)플라스틱 전시회', '환경명상절 108배 체험', '미래를 생각하는 기후대응 피켓팅'도 진행할 예정이다.

천도 스님은 "환경을 생각하는 본질만을 맛보는 콘서트가 될 것이다"며 "환경 콘서트의 모범 답안을 제시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천도 스님은 "4월이 되면 벚꽃이 날려 도량 곳곳에 꽃비가 내릴 것이다"며 "아름다운 자연을 보며 자연의 소중함을 돌아보고 오로지 지구를 위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임현정 피아니스트는 역사상 최연소로 베토벤 소나타 전곡을 녹음했고 앨범은 음반사 EMI에서 전세계 발매했다. 이 음반은 한국인 최초는 물론, 역사상 최초로 데뷔 앨범이 빌보드 클래식 종합 차트 1위와 아이튠즈 클래식 차트 1위를 하면서 클래식계의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운 바 있다. 3살에 음악을 배우기 시작한 후 그녀는 12세에 자의로 프랑스 유학길에 올라 콩피에뉴 음악원을 5개월 만에 수석 조기졸업 한 인재다. 그 후, 루앙국립음악원에 진학하여 만 15살에 조기 졸업을 하였고, 그 다음해 드뷔시와 라벨이 다녔던 세계에서 가장 역사가 깊은 파리고등국립음악원에 최연소 입학, 역시 3년 만에 최연소 조기졸업을 하였다.

그녀의 연주는 〈뉴욕 타임즈〉, 〈BBC 뮤직〉 등 전 세계의 호평을 받았고, 스위스, 프랑스, 한국 등 초, 중,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세계 투어를 진행했다. 스위스 "천재씨앗" 재단의 명예회장 임명, 스위스 인종차별 금지운동 주간의 대모 임명, 유럽주간의 대모 임명 아울러 사회적 활동을 인정하여 2018년 스위스 뉴샤텔 국제문화상을 수상했다. 2017년에는 스위스 최고 신문사인 '르 템프(Le Temps)'에서 '스위스를 움직이는 100인' 안에 선정됐다.

"수행 통해 죽음이란 과제 이겨내길"

[인터뷰] 이강옥 영남대 국어교육과 교수



"죽음은 모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삶의 한 부분으로 시종 작동 되고 있다는 엄연한 사실을 떠올려 성찰하는 것만이 죽음 문제를 극복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죽음은 현실이며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과정이다. 죽음을 어떻게 맞고 준비해야 하는가? 이강옥 영남대 국어교육과 교수<사진>는 새롭게 펼쳐낸 저서 〈죽음서사와 죽음명상〉에서 '죽음 명상을 통한 바른 성찰'로 실천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죽음에 대해 기피하는 현상은 죽음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지 못하도록 만들고 공포와 두려움, 깊은 어두움으로 표상되는 원인이 된다고 했다.

"누구나 타인의 죽음을 목도하게 되고 일상적인 제례를 치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죽음을 자기 마음으로부터 몰아내려 합니다. 심지어 자신의 죽음을 직면했을 때조차 그 상황을 외면하고 계속 살려는 집착을 보입니다."

이 교수는 책을 통해 "자신의 죽음을 당당하게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죽음을 평화롭게 맞이하기 위해서는 건강할 때 죽음을 사유하고 명상하여 죽음을 준비해야 한다"는 역설이다.

이를 위해 이 교수는 먼저 죽음을 바로 알도록 제시했다. 죽음에 대한 통념을 설명하고 몸에서 이탈한 혼이 삶과 죽음 이후 사이의 머무는 기간 '바르도'와 생사관에 관련된 환생 혹은 부활, 천국과 극락, 해탈과 열반 등을 엮어 죽음에 대한 바른 견해를 정립하도록 도왔다. 또 교수 생활 가운데 연구한 한국 구전 서사 및 야담 등에서 발췌한 죽음 서사를 총망라해 무의식 가운데 가지고 있는 생사관을 살펴보도록 이끌었다. 마지막엔 실천 가능한 죽음명상과 수행법을 설명해 구체적인 접근법을 제시했다.

이 책은 이 교수가 정년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펼쳐낸 책이다. 마지막 주제로 죽음을 선정하고 담으며 삶을 살아가는 모든 생명에게 당부하고 있다.

"오랜 기간에 걸쳐서 죽음을 똑바로 바라보고, 만져보고, 죽음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삶은 타락하지 않게 되고 죽음은 평화로운 절차와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저자 이강옥 교수는 경남 김해에서 출생했다. 서울대학교 국문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에서 문학박사학위를 받았다. 경남대학교 국문학과와 영남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로 봉직했다.

영남대학교 명예교수이며 고려대학교 객원교수로 있다. 두계학술상(2020), 지훈국학상(2015), 천마학술상(2008), 성산학술상(1999) 등을 수상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해인사 팔만대장경 정대불사 봉행

4월 9~10일, 코로나19 소멸 및 국운융창 기원

합천 해인사(주지 현응)는 4월 9일~10일 해인사 일대에서 '제 61회 해인사 팔만대장경 정대불사'를 개최한다. 전쟁, 질병, 가난이라는 삼재를 소멸하고 국운융창을 기원하는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를 국민과 함께 극복하기 위해 진행된다.

이번 정대불사는 팔만대장경 조성 정신을 이어 〈반야심경〉 사경도 진행한다. 사경지는 정대불사 동참자에 한해 접수실에서 배포하며, 동참자는 미리 사경을 해오거나 행사 당일 사경을 해 동참할 수 있다. 당일 행사 참석이 어려운 경우 해인사로 우편을 통해 보내면 회향일 진행할 소전의식 때 함께 태운다.

행사는 4월 9일 대장경 이운행렬 재현과 다채로운 불교문화체험이 이어지며 4월 10일에는 봉찬법요식, 경전합송, 장경판전 내부 순례 및 정대요잡, 팔만대장경 및 장경판전 공덕주 헌다례, 사경 소전의식 등이 진행된다.


해인사는 4월 9일~10일 해인사 일대에서 '제 61회 해인사 팔만대장경 정대불사'를 개최한다.

해인사 팔만대장경 정대불사는 팔만대장경의 의미와 조성한 선조들의 정성을 기리는 행사다. 1961년부터 매년 전국의 불자들이 동참해 봉행하고 있으며 '정대'는 존경의 의미로 동참자들은 머리에 경판을 이고 옮기는 의식을 재현해 진리의 법을 수호하겠다는 뜻을 담는다. 5년 전 부터는 국가적 무형문화로 인정받아 '고려팔만대장경의 날'이라는 명칭으로 전환됐다. 055)934-3105~6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밀양 도솔암, 관음 · 지장보살 점안식

밀양 도솔암(주지 덕산)은 3월 12일 경내 대웅전에서 관음 · 지장보살 점안식을 진행했다. 점안식에는 도솔암 주지 덕산 스님, 부산 백련사 대방 스님, 김해 법성사 자운 스님, 대구 능인선원 혜장 스님을 비롯해 대구BTN 불교합창단 최흥철 단장 등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점안식은 점안의식 및 삼귀의, 반야심경으로 시작해 합창단의 음성공양, 인사말과 축하 무대 순으로 진행됐다.

주지 덕산 스님은 "우천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스님들과 대구 BTN 합창단과 사부대중에게 부처님의 가피가 가득하시길 발원한다"며 "모두가 도솔암과 더불어 용맹정진하여 시방세계 두루 평안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밀양 도솔암은 3월 12일 경내 대웅전에서 관음 · 지장보살 점안식을 봉행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부산 광명사, 독거어르신 보양식 전달

광명사(주지 법경)는 3월 16일 광명사 무료급식소에서 보양식 전달식을 진행했다. 보양식은 삼계탕이며 지역내 독거 어르신 150가구에 전달됐다. 보양식 전달은 추운 겨울 동안 지친 어르신들에게 활력을 선사하고 건강을 기원하기 위해 진행됐다.

주지 법경 스님은 "어르신들의 거처를 방문할 때마다 힘이 없으시고 우울감을 느끼시는 걸 본다"며 "코로나19가 사라지고 활력있는 일상 속에 지낼 때까지 힘내시고 모두 건강하시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광명사 무료급식소는 2017년 6월부터 매달 1,3주 화요일 지역 소외 이웃 200여 명을 위해 식사를 제공해왔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음식을 조리해 도시락 배달을 실시 중이다.


광명사는 3월 16일 광명사 무료급식소에서 보양식 전달식을 진행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人生이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
그 답이 法華經에 있다!

부산·대구 수강문의 : H·P 010-4501-8711

킹스대학교 前명예총장 崔光永研究室

“미얀마 민주항쟁, 5·18혁명의 재현”

광주불교계. 미얀마 민주화운동 돕기 나서

모금 · 알리기 집회 개최 예정
재한미얀마 이주민 네트워킹
한 · 미얀마 불교계 접촉 예정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광주지역 불교단체가 3월 12일 광주불교회관에서 미얀마 시민에 대한 쿠데타 군부의 폭력적 탄압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광주불교연합회, 신도회,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5.18불교추모행사위원회 등은 공동 성명서를 통해 현재 미얀마 사태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이날 광주지역 불교단체는 “미얀마 군부는 미얀마 국가고문 아웅산 수지여사와 미얀마의 대통령 윈민 및 여당 지도자들을 축출한 뒤 전부 가택 연금했다. 마치 우리나라의 군부독재 시대민주 인사를 구금하고 시민들을 향해 총구를 겨누던 모습에 41년 전 5월 광주의 아픔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별다른 저항수단도 없는 미얀마 시민들을 향해 그들은 80년 5월 광주의 모습처럼, 총에 검을 끼우고, 방패와 곤봉으로 무차별적인 폭행을 하고 총탄으로 위해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그 어떤 것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또 “광주지역 불교계 사부대중은 미얀마 시민불복종운동을 적극 지지하며, 군사쿠데타 세력들의 무고한 시민들에 대한 총격과 폭력적 탄압을 규탄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광주불교계는 3월 12일 광주불교회관서 미얀마 민주화운동돕기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이번 성명서 발표에는 광주불교연합회장 도성 스님, 광주불교연합회 수석부회장 도계 스님, 관음사 주지 소운 스님, 원효사 주지 해청 스님, 이범식 광주불교연합회신도회장, 강윤구 포교사단 광주전남지역단장, 미얀마 유학생인 팽이마웅(전남대 석사과정), 이주성 광주외국인복지센터장 등이 참여했다.

성명서 발표에 이어 광주불교연합회장 도성 스님은 질의와 답변을 통해 “광주지역 불교단체들은 미얀마 민주화를 지지하기 위해 연대해서 모금운동과 집회 등을 지속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팽이마웅(전남대 석사과정) 씨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미얀마 군부 세력의 쿠데타는 미얀마 국민들의 뜻이 절대 아니다. 국민들의 힘만으로는 탄압을 일삼는 군부를 몰아내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민주주의 국가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팽이마웅 씨는 이어 “매일 미얀마 유학생들과 노동자들이 광주 터미널 유스퀘어에서 집회를 통해 알리고 있다. 미얀마에서는 아직도 많은 이들이 군부에 반대하다 희생을 당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얀마 외국인들의 한국내 활동을 지원하는 이주성 광주외국인복지센터장은 “2월 1일부터 매일 40명에서 60명에 달하는 미얀마 노동자와 유학생 등이 집회를 하고 있다. 일요일에는 광주 곳곳에서 참상을 알리고 있다”고 미얀마 이주민들의 활동을 전했다.

이 센터장은 “광주불교연합회가 불교계 대표로 참석해 활동하고 있어 감사하다. 미얀마 상황은 광주 5.18과 같기에 불교국가인 미얀마의 민주화를 위해 한국불교계의 관심도 더욱 필요하다”며 “광주에는 미얀마인들이 400여 명이 있으며 3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있다. 한국 내 미얀마 이주민들을 네트워크화 하고 한국과 미얀마 불교계의 교류관계를 활용한 지원 등을 이어갔으면 한다”고 전했다.

광주불교계는 향후 미얀마 민주화운동을 지지하고 염원하는 기도와 함께 모금운동을 개별적으로 진행해 관련단체에 지원할 예정이다.

구례 다문화 가정에 자비쌀 전달

구례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50가구에



구례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3월 9일 구례 다문화가정 50가구에 쌀을 전달했다.

구례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도운)는 3월 9일 구례 화엄사(주지 덕문) 후원으로 마련한 1000kg(20kg 50포)의 자비나눔 쌀을 구례지역 다문화 가정 50가구에 전달했다.

센터 프로그램 참여 다문화가정을 방문해 진행된 이번 전달식에서는 쌀 전달 뿐만 아니라 주거와 자녀 양육 환경 점검도 함께 이뤄졌다.

구례읍에 거주하는 장 모씨는 “센터와 경찰서에서 쌀을 가지고 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전했다. 문척면에 거주하는 정 모씨도 “아이들이 한창 성장할 시기에 쌀을 후원해 주신 화엄사와 센터에 감사드린다. 앞으로 센터의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참여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구례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위탁운영 후 2019년부터 화엄사와 함께 지역사회 자비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센터는 지역 내 건강한 가족의 삶을 위한 가족관계, 가족돌봄, 가족생활, 지역사회 공동체 사업과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결혼이주여성정착패키지, 다문화자녀성장지원, 이중언어가족환경조성사업,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지원사업 등 소외계층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고운 최치원 선생 유산 세상 속으로

경주최씨 중앙종친회, 3월 18일
최치원문학관에 유물24점 기증

경주최씨중앙종친회 최병주 명예회장과 최창규 고운국제교류사업회 사무총장 등은 3월 18일 최치원문학관을 찾아 소장자료를 기증했다.

이번 기증 자료는 고운국제교류사업회에서 발간 한 〈고운 최치원 선생 문집〉 상 · 하권을 포함해 중국 서예가 구단이 쓴 최치원의 시 ‘추야우중’ 한시 족자, 중국 고급 공예미술사 유지밍의 ‘차사호’, 〈중국역사 의무교육 교과서〉 그리고 한국조폐공사 발행 한국의 인물 100인 시리즈 ‘최치원 기념 메달’ 등 24점이다.

고운 선생의 문집은 1972년 발간 이후 2016년 4월 44년만에 출판된 문집으로 최광식 前 문체부 장관과 최영성 한국전통문화대학교수가 번역했다.


고운사 주지 등운 스님(사진 오른쪽 첫번째)과 최치원문학관장 정우 스님(사진 오른쪽 두번째), 최병주 명예회장 등이 기증된 물품을 살펴보고 있다.

이날 기증한 자료는 최병주 명예회장과 최창규 사무총장이 중국 양저우에 위치한 최치원기념관을 왕래하며 수집한 고운 선생의 자료로 현재의 가치보다는 앞으로 미래의 가치가 기대되는 자료들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방문은 최치원문학관 유물기증과 함께 향후 추진될 고운 최치원 선생 학술대회 개최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한편, 고운 최치원 선생은 9세기 통일신라 말기의 학자로서 중국 당나라에서 ‘토황소격문’ 으로 문장가로서 이름을 떨쳤으며 유교 · 불교 · 도교에 모두 이해가 깊었고, 유 · 불 · 선 통합 사상을 제시하였다.

박영애 영주지국장


신광사 주지 동현 스님과 대중들이 불교단체에 자비의 쌀을 전달했다.

신광사, 자비의 쌀 나눔에 동참

광주 최초 비구니 수행도량인 신광사(주지 동현)가 3월 15일 자비의 쌀 1500kg을 불교단체에 전달했다. 신광사는 입춘기도와 정월기도 기간 중 신도들이 십시일반 부처님에게 올린 공양미를 모아 빛고을나눔나무, 자비신행회, 광주외국복지센터, 생명나눔실천광주전남본부, 맑고향기롭게광주지부에 전달했다.

동현 스님은 “작은 정성이지만 신도들이 지극한 마음으로 올린 공양미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김제 금산사·귀신사 사찰 화재 특별점검

국보급 문화재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김제 금산사(주지 일원)와 귀신사(주지 무여)가 김제소방서(서장 강동일)와 함께 화재없는 사찰만들기 컨설팅을 진행했다. 3월 10일 김제 소방서 관계자들이 금산사와 귀신사를 방문해 진행된 이날 현장 안전컨설팅은 △연등, 촛불 등 화기취급 주의 지도 △사찰내 소방시설 정상 작동 여부 점검 △화재 발생 시 소화기 등 소방시설을 활용한 초기대응에 초점을 맞췄다.

김제 소방서 이동환 방호구조과장은 “전통사찰은 주요구조부가 목재로 되어있고 대부분 산림에 인접해 있어 유사시 산림화재로 이어져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사찰 관계자 및 방문객의 화재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부안 내소사와 개암사도 화재점검을 진행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佛教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중급과정 (6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다루는 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구병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함
특수작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함

◈ 모집인원 : 30명(선착순)
◈ 개 강 일 : 2021년 4월 6일(화)
◈ 강의일시 : 매주 화요일, 금요일 오후 5시 ~ 6시 30분(90분) 담임교수 원장직강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번길 45(낙원동 243-3) 탑공공원 뒷편 ☎(02)741-0495~6

사찰 연등 및 전선
전선간격 : 22㎝, 25㎝, 28㎝, 30㎝, 40㎝, 50㎝, 1m, 2m, 3m, 5m, 8m, 10m, 기타주문
법당용, 외곽용
등간격 : 규격참조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설치가 편리한 고리형 후크
법당 전선시공 전문
승하강 장치시공(신형)
고추구 12E
인지구 26E
LED전구 국산인증 (서울반도체 정품)
도량(만월등)조립식 프레임(간편한 설치 및 높낮이 조절)
법당용 12E
외곽용 26E
ISO9001
ISO1400
연등승하강 장치기술(신형)
안전인증 ISO9001 ISO1400 특허청
정직과 신뢰의 불자기업
불제 대원안전산업
BULJE DAEWON CO.LTD
구입문의 031-986-0277~8, 02-2266-2634
032-582-6235~6, 02-2263-2638
문의핸드폰 010-3630-7092
http://www.bulje.co.kr 본사·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모산로 17-1

日토다이지, '슈니에 법회' 생중계 나서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다수밀집 막기 위해서

박영빈 객원기자


슈니에 법회 도량인 니가츠도(二月堂)의 난간을 질주하는 횃불들. 사진출처=NHK

1200년 동안 한 번도 끊이지 않아 '불퇴의 행법'이라 불리는 나라 토다이지(東大寺)의 슈니에(修二会)가 코로나19의 어려운 시국 속에서도 예년과 다름없이 봉행됐다. 그러나 코로나 확산 방지와 불특정 다수의 밀집을 막기 위해 항례와는 다른 방식으로 법회가 진행됐다. TV와 인터넷 생중계 등으로 진행된 올해의 슈니에를 3월 14일 'NHK', '마이니치 신문' 등의 주요 현지 언론들이 특별 보도했다.

슈니에 법회는 11면관세음보살을 본존으로 모시고 보름간 예참과 공양을 올리는 기도법회다. 수행과 학덕이 뛰어난 11명의 스님을 엄선하여 매일 6차례 법당을 요잡하며 참법(懺法)을 독송한다. 또 악업을 참회한 공덕을 나라를 위해 회향해, 한 해의 평안과 풍작을 기원하는 법회다. 나라와 국민들을 위한 기도이기에 매년 봄 일본 각지의 사찰에서 봉행되고 있다.

그중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슈니에이자 가장 유명한 슈니에 법회가 바로 토다이지의 법회다. 기록상으론 토다이지 대불을 조성하고 점안한 752년, 일본왕실의 발원으로 첫 봉행됐다. 이후 매년 음력 1월을 기점으로 봉행해 오고 있다.

특히 토다이지의 슈니에에서 유명한 행사는 불전에 올릴 공양수를 긷는 의례와 한 해의 액을 막기 위해 커다란 대나무 횃불을 들고 니가츠도의 난간을 질주하는 행사가 유명하다. 횃불에서 떨어지는 불똥이나 재를 맞으면 한 해 동안 건강하고 행운이 깃든다는 속설이 퍼지면서, 횃불을 보기 위해 연간 약 3만 명의 신자와 관광객들이 방문한다.

그러나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는 코로나19상황 속에, 토다이지는 지난 가을부터 대책을 강구하기 시작했다. 나라 현립대학병원 감염병센터와 협동 대책반을 구성, 슈니에에 참석하는 모든 대중 스님들은 입재 전후로 2주간 자가격리와 함께 PCR검사를 실시했다. 사람들이 몰리는 공양수 행사는 예년과는 달리 모든 과정이 비공개로 진행됐다.

토다이지 측은 그 어떤 행사보다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횃불행사에 있어서는 특별히 TV와 인터넷을 통해 전 과정을 생중계로 방송했다. 특히 NHK측은 특별홈페이지와 프로그램을 제작, 슈니에의 전 과정을 생중계했다. NHK와 토다이지 측은 "여태껏 다큐멘터리 등으로 의식의 일부를 공개하거나 내부적으로 촬영을 한 적은 있으나 모든 과정을 생중계로 공개하는 것은 사상최초"라고 밝혔다. 촬영팀의 일부는 방역을 위해 대중 스님들과 함께 자가격리와 PCR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전했다. 격리 촬영팀은 생중계 외에 진행되는 법당 내부의 상황과 이야기를 홈페이지를 통해 글과 사진으로 공개했다.

중계프로그램은 횃불행사가 시작된 13일 오후 6시 반부터 시작해 익일 1시가 넘어서 종료됐다. 게스트로 자리한 유명 소설가 유메마쿠라 바쿠는 "토다이지의 슈니에라고 하면 나라시대에 대륙에서 전해져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전해지는 유일한 법회다. 당시 실크로드 위에 있던 다양한 종교와 문화, 의식, 음악이 어우러진 법회를 생중계로 볼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경험"이라고 전했다.

함께 게스트로 참가한 아티스트 콤아이도 "세계 각지의 종교의례와 음악, 무용을 보아 왔지만 1200년이 넘는 의례가 단 한 번도 끊이지 않았다는 점이 감동적이다. 음악적으로도 슈니에의 염불과 여러 법구들의 연주들이 매우 독특하고 강렬하게 다가왔다"며 감동을 나타냈다.

英, 불교사원 인근 사격장 건설

사원과 영국 불교계 반대에 나서

스코틀랜드 덤프리스 지역 삼예링(Samye-Ling)사원 인근에 군사 사격장 건설계획이 발표되어 사원 관계자들이 반대에 나섰다. 지난 3월 14일 영국 언론사 '가디언'과 '데일리 메일'은 삼예링 사원의 군사 사격장 건설 반대 운동을 보도했다.

삼예링 사원은 영국에 불교가 본격적으로 전해지던 시기에 세워진 초창기의 불교사원으로 티베트 불교 카규파(Kagyupa)에 소속되어 있다. 서유럽권의 최대 불교사원으로 꼽히는 이곳은 현재 약 60여 명의 사부대중이 상주하며 수행정진 중이다. 또한 매년 수천 명에 달하는 전 세계의 불자들이 안거와 참배를 위해 방문하는 도량으로 유명하다.

그러나 올해 영국 정부는 삼예링 사원 인근에 미군 특수부대 사격장 건설 계획을 발표해 삼예링 사원이 몸살을 앓고 있다. 더욱히 사격장이 사원을 사이에 두고 양쪽에 건설될 계획이라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삼예링 사원은 계획발표와 동시에 "사격장의 사격 소음은 도량의 수행정진에 방해를 주며, 주변 야생동물 서식지 교란을 일으키는 등의 문제가 야기된다"며 반대에 나섰다. 또한 영국 불교계와 시민들에게 사격장 건설 반대를 지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삼예링 주지 예셰 린포체는 "삼예링은 50년 이상 이곳에서 머물며 지역의 좋은 이웃이 되기 위해 노력해 왔고, 종교를 떠나 수많은 이들의 순례지가 되어 왔다. 또한 사원에서 보살피는 크고 작은 수많은 야생동물들도 있다. 사부대중들의 보살핌으로 동물들은 평화로운 안식처로 여긴다. 사람과 동물 모두 평화로운 환경에 익숙해져 있는데 사격장이 건설된다면 그 소음과 혹시 모를 사고로 모두가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동물이 다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전했다.

삼예링 관계자는 "전 세계 순례자들을 위한 성지이자 배움의 장인 삼예링은 수천 명의 불자가 방문한다. 이제 우리의 소중한 평화와 화합의 안식처는 두 개의 사격장 사이에서 사격 소음에 고통 받을 위기에 처해있다. 이는 소음보다 훨씬 큰 문제다. 지역 주민들은 안전과 평화의 장소에 일어나는 부적절한 군국주의적 개발에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경제적 이익을 보장한다고 말하지만 그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불자들과 지역주민 모두는 이 사격장 건설에 강력하게 반대하며, 전 세계의 지지자들도 함께 한다"고 전하며 대중들에게 청원서 마감일전까지 지방 당국에 이의를 제기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민재 객원기자

日히에이잔, 1200년 만에 '계단원' 일반공개

일본천태종 종조인 사이쵸대사 원적 1200주기 기념 행사 일환


특별 공개되는 히에이잔 계단원. 사진출처=요미우리 신문

일본 천태종의 총본산이자 세계문화유산인 히에이잔(比叡山) 엔랴쿠지(延暦寺)가 종조인 사이쵸(最澄)대사의 원적 1200주기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산내 중요 전각인 계단원(戒壇院)을 최초로 일반 공개한다고 밝혀 화제다. 이 소식을 3월 14일 '요미우리 신문'이 특별 보도했다.

엔랴쿠지의 동탑(東塔)구역에 소재한 계단원은 827년 창건된 곳으로, 법화사상에 근간한 대승보살계단이 처음으로 설립된 일본불교사에서 중요한 장소로 손꼽힌다. 계단원이 창건되던 당시 일본 전국에서 출가자가 정식으로 수계를 받을 수 있던 곳은 나라의 토다이지를 비롯해 국가에서 세운 3곳의 계단뿐으로, 당시에는 〈사분율〉에 기반한 구족계가 이뤄지고 있었다.

엔랴쿠지의 개산조인 사이쵸 대사는 히에이잔을 거점으로 천태종을 양성하기 위해서, 또 소승의 〈사분율〉로는 대승의 정신을 이룰 수 없다는 생각에서 조정에 대승계단을 독립적으로 설치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기존 〈사분율〉 계단의 강력한 반대에 번번히 수포로 돌아갔다.

끝내 천태종은 대사의 입적 7일 후 조정의 인가 하에 계단원을 건립했다. 이로써 천태종 독자의 수계와 출가자 양성이 가능해졌다. 히에이잔에서 수계를 받은 호넨, 신란, 도겐 등의 인물들로 인해 일본불교사에서 가마쿠라 신불교라고 하는 새로운 불교의 기조를 불러일으키는 등 중요한 사건들이 일어나게 됐다.

현재의 계단원은 1517년 병화로 소실된 후 1678년 재건 된 것으로 일본의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내부는 돌로 포장된 바닥에 석가, 문수, 미륵의 삼존상을 수미단에 봉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연 1회 수계산림 시 수계자들에 한 해 출입이 허락되며 이로 인해 계단원은 천태종의 출가자라 하여도 평생 단 한 번 갈 수 있는 성역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엔랴쿠지 측은 "종조이자 개산조인 사이쵸 대사의 원적 120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계단원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일반에 특별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는 일본불교사의 중요한 사건을 장식함과 동시에 사이쵸 대사의 평생의 숙원이었던 장소를 공개함으로써 종도들의 신심을 고취하고 천태사상을 대중에 널리 알리기 위해 진행된다.

또한 엔랴쿠지는 이와 함께 특별수계산림도 함께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특별수계산림은 종단을 불문하고 불교와 인연을 맺기 바라는 대중들을 대상으로 천태종 종정이 전계아사리로 수계한다. 박영빈 객원기자

트럼프 미국 前 대통령 불상 화제

정치적 의도 없어, 세계적인 인기 구가

중국에서 만들어져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명상하는 트럼프 불상'이 화제다. 지난 3월 10일 영국 '가디언지', 미국 '뉴욕 타임즈' 등의 주요 외신들은 중국 전자 상거래 플랫폼 '타오바오'에서 절찬리에 판매 중인 명상하는 트럼프 불상 소식을 전했다.

명상하는 트럼프 불상은 미 前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가 승복을 입고 손은 선정인을 하여 조용히 명상에 잠긴 모습이다. 중국 남부의 한 가구 제조회사가 기획하여 판매중인 이 불상은 트럼프 前 대통령의 대선캠프 표어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풍자한, '귀사를 다시 위대하게'라는 표어로 홍보되고 있다. 트럼프 불상을 소장함으로써 소장처를 다시 위대하게 해준다는 뜻이다.

불상을 제작한 홍진시(洪金世) 작가는 이 불상의 정식 작품명이 '서천의 심란한 부처(西天懂佛), 트럼프'라고 밝혔다. 홍 작가는 "도널드 트럼프는 이미 성공한 사람이지만 여전히 더 큰 성공과 명예를 원하고, 스스로를 괴롭히는 갈애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나는 그의 이미지와 정반대의 작품을 만들게 되었다"고 전했다. 또한 자신이 제일 처음 만든 트럼프 불상을 트럼프 前 대통령에게 선물할 의사가 있으며 정치적인 의도는 없다고 밝혔다.


명상하는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불상. 사진출처=타오바오

현재 '타오바오'에서 판매중인 트럼프 불상은 16cm 높이의 소형 불상과 46cm 높이의 대형 버전으로 판매중이며 각각 999위안(한화 약 17만원), 3999위안 (한화 약 70만원)에 구입할 수 있다. 김민재 객원기자

동국대 G미래&힐링 융복합 최고경영자 과정 〈제4기〉

〈미래학 + 동양미래예측학 + 자연건강(Healing) + 인문 · 문화〉
대한민국 리더의 미래와 건강, 사업에 실질적으로 도움 되는 특화AMP 과정

OT특강	* 늙지 않는 비법 호르몬 관리, 명의 김세철 원장, 4월 20일, 희망자 사전 신청 후 특강 수업 참관 가능
수업	* 매주 화(火)18:00~21:00 * 동국대 학명세미나실 * 입학식: 5월 11일
	0교시 18:00 ~ 18:30 석식 및 다과, 원우 특활 1교시 18:30 ~ 20:10 동서양 미래학, 자연 건강, 인문 문화 특강 2교시 20:20 ~ 21:00 자연건강, 힐링타임, 1주일의 피로와 스트레스 해소

	미래학	동양미래예측학	자연건강	인문·문화
주제	미래경영과 4차 산업 혁명	때를 찾는 지혜 동양미래예측학	Wellbeing Welldying	인문학
	미래변화와 생존, 혁신전략	과학화된 역학(관상 주역)	음식궁합 먹거리	법률
	미래전략 손에 잡히는 미래	부동산과 풍수	체질요법 힐링 명상	세무
자격	대기업 및 공기업 임원급 이상 경영자, 중소기업 대표, 금융계 언론계 법조계 등 사회 각계 고위인사,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자			

* 과정 원장 소재학 교수가 최초로 창시하고 개발한, 개인의 성공과 실패 90% 이상 규칙적인 예측 가능한 동양미래예측학 프로그램 및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통해 모든 원우들의 개인별 미래 흐름 분석 및 맞춤형 관리 (성공할 때, 물러날 때, 투자할 때, 건강 약해지는 시기 등)
* 특강 교수 : 태초 먹거리 학교 이계호 교수, 김중태 IT문화원장, 안종배 국제미래학회 회장, 사기피해예방 임채원 부장검사, 엄창섭 고려의대 해부학교수, 최낙원 대한통합암학회 이사장, 부동산 투자 전문가 박관식 대표, 박경식 미래전략정책연구원 원장 외
* 홍보대사 : 원우 가수 장미화 회장, 코미디 협회 엄용수 회장, 뚝딱이 아빠 김종석 박사 외


원장 겸 총괄교수
•동양미래학자
•명리학자, 풍수지리학자
•동서양미래학 융복합학자
•국제뇌교육대학원 석좌교수
•캐롤라인대학교 부총장
•KOFS 한국동양미래학회 회장
•동국대 GFCA최고위과정 원장
소재학 총괄교수
미래예측학박사1호


이상희 전 장관
전 과기부장관, 국회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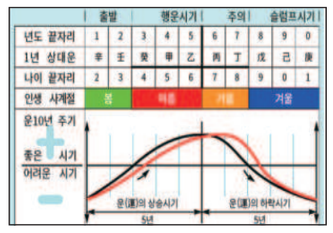

김홍신 교수
소설가, 전 국회의원


박영숙 대표
유엔미래포럼


김세철 교수
명지병원 의료원장

현대 사주명리학 공개특강
동국대 GFCA 동양미래예측학 최고위과정 〈12기〉 개강특강
3월 31일(水), 4월 7일(水) 18:30, 공개특강 사전 신청순 30명

왕초보도 제대로 된 사주명리학, 원리위주 가장 쉽게 공부하고 마스터하는 과정
평생 공부해도 답 안 나오는 사주학, 원리 위주 재미있게 OK!
성공 실패 시기, 창업 투자 시기, 때를 찾는 법 제대로 배우는 과정, 검증 가능한 제대로 된 작명법(성명학) 마스터
과학화된 역학, 논리로푸는 사주학, 동양미래예측학 마스터 교강사 및 명리진로적성상담자 자격증 과정 겸비
* 수업: 매주 水 18:30~21:00 초급, 중급, 고급 과정별 수강,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및 프로그램 활용 학습용이
* 예습 및 복습강의 영상제공
* 수료후 마스터까지 무료반복수강 가능



명당 찾는법 풍수지리 공개특강
동국대 GFCA 풍수지리 최고위과정 〈9기〉 개강특강
4월 12일(月), 4월 19일(月) 18:30, 공개특강 사전 신청순 30명

기(氣) 좋은 터 찾는 법, 원리 위주 강의,
왕초보도 1년에 제대로 된 맥을 잡는 과정
풍수지리, 정확히 알고 활용하면 인생을 보다 성공적이며 건강하게 해주는 자연과학. 교강사 및 풍수지리 지도사자격증 과정 겸비, 이론 따로 실제 따로 아닌, 원리 위주 재미있는 공부, 국내외 실전 기 풍수지리 현장 답사
* 수업: 매주 月 18:30~21:00 * 경제적인 등록금
* 강의 영상 제공 유튜브: 소재학교수의 때를 찾는 지혜
동국대학교 미래융합교육원 최고위과정



★ 소재학 총괄교수 동양미래예측학, 풍수지리 특별상담 진행 ★

동국대 미래융합대학 CEO 최고경영자과정 사무국 ☎ 02-585-0079 / 사주명리 풍수지리 전문가 최고위 사무국 ☎ 02-3443-4984, 010-8335-8001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3/17~3/23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자비는 인연을 가리지 않네 : 그림 경전 말씀	혜조스님	운주사
2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 : 선지식의 코신 사행	김원수	바른법연구원
3	요가디피카 (아헹가요가) 육체의 한계를 넘어	아헹가/현천스님	선요가
4	제로 : 현실을 창조하는 마음 상태	천시아	젠북
5	불교성전	조계종포교원	조계종출판사
6	불교를 사랑한 조선 유학자의 선어록	김대현	운주사
7	낡은 옷을 벗어라 : 법정스님 미출간 원고 08편 수록	법정스님	불교신문사
8	적명을 말하다(선사들이 들려주는 수좌 적명의 삶)	유철주	사유수
9	화엄경을 머금은 법성게의 보배 구슬	김성철	오타쿠
10	티베트 사람들의 보리심 기도문	청전스님	불광출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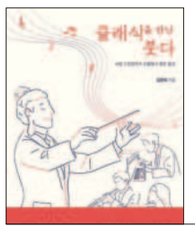
책세상

부처님 생애와 잘 어울리는 클래식 곡은?



저자 **김준희 피아니스트**는?

예원학교, 서울예술고등학교를 거쳐 서울대 음악대학 기악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일리노이대 박사과정과 샌프란시스코 콘서바토리 전문연주자 과정을 마쳤다. 한국일보 콩쿠르, 삼익 콩쿠르, 문화일보 콩쿠르, 리스트 국제 콩쿠르 등에 상위 입상했고 국내외서 30회 이상의 독주회와 협연, 실내악 연주회를 가졌다. 방송 출연과 기고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클래식 음악으로 붓다의 생애와 가르침을 소개했다. 학문 융합적 사고를 바탕으로 한 〈슈베르트의 소나타 D. 960, 삶과 죽음을 통한 해석〉과 〈윤이상의 오라토리오 '연꽃 속의 진주여!'에 관한 연구〉 등의 논문을 발표 했다. 현재 국립인천대 기초교육원서 기초교양교육을 담당하며, 경희대와 고려대서도 강의중이다.



클래식을 만난 붓다
김준희 지음
올리브그린 펴냄/1만 5천원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불자인 김준희 피아니스트가 부처님 일대기를 서양 클래식 음악으로 설명한 책을 펴냈다. 제목은 〈클래식을 만난 붓다〉이다. 서양 고전 음악의 선율서 찾은 불교라는 부제도 붙었다.

클래식과 붓다? 얼핏 들으면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조합이다. 저자는 책 서두에서 이 궁금증을 이렇게 해석한다. "음악이라는 언어는 음에 의해서 우리들의 마음에 상념, 혹은 지성에 어떤 심상을 일깨워 준다는 프랑스 사실주의 작가 발자크의 말처럼 한계가 없죠"라며 "즉 음악으로 표현하고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무한하다는 의미입니다. 종교는 현실적으로 혹은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나 긴장을 해소하는 기능이 있고,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소망을 넘어서 삶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특정한 형태가 없는 음(音)으로 구성된 음악도 논리를 넘어서 직접적인 감동을 줍니다."라고.

붓다의 가르침은 모든 예술로 해석되고 표현될 수 있다는 것이 저자의 생각이다. 그래서 저자는 붓다의 가르침이나 예술이나 특수하면서도 보편적인 진리와 아름다움을 각각 나타내기에 서로 상통하는 점이 있다는 것이다.

저자가 모든 예술 중 가장 직접적 울림을 주며, 인류의 보편적 감성을 공유하는 클래식 음악을 통해 붓다의 생애와 가르침을 해석한 가장 큰 이유다. 클래식 음악 작품과 작곡가들의 에피소드와 함께 붓다 삶의 큰 부분들을 함께 풀어보며 그 접점을 찾았다.

서양 음악인 클래식에는 그들의 세계관과 사상이 담겨 있다. 클래식 음악의 그 원류와 역사를 살펴보면 개신교나 천주교인 이웃 종교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거란 생각을 하게 된다. 작곡자들도 교회서 음악 활동을 했고, 주로 그 곳에서 연주된 곡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더군다나 클래식 음악과 붓다의 생애를 함께 이야기 한다는 것이 매우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저자는 역발상에 착안했다. 우리나라 음악과 불교는 생각보다 그 연결 고리가 강하지 않지만, 오랜 시간 불교와 그 역사를 함께 해오면서 우리의 전통 음악이 불교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불교와 한국 전통음악이 잘 어울린다고 대부분 생각하게 된다. 저자는 서양 음악도 충분히 붓다의 생애와 가르침을 통해 이야기할 수 있을 거라는 데 천착한다. 마치 서양의 작가인 헤르만 헤세의 글들 속에서 불교적 가르침을 찾을 수 있는 것처럼 말이다.

책 구성을 살펴보면 부처님 탄생과 사문유관, 출가, 고행, 깨달음, 입멸 등 부처님 일대기를 23가지의 소제목으로 나누었다. 여기에 저자가 각 주제에 어울린다고 생각한 서양 클래식 작곡가들의 곡을 대비시켜 소개했다. 가령 출가 당시 모습을 지상에서 가장 슬픈 음악이라는 애칭을 가진 〈샤콘느〉에 빗대었다. 저자는 책 속에서 "어느날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출가의 삶을 선택한 싯닷타는 이들에게 한 순간에 예상할 수 없는 '이별'을 안겨주었다. 그 이별이 가져다 준 슬픔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이었을 것이다. 이탈리아의 작곡가 토마소 비탈리의 바이올린 독주곡 〈샤콘느〉의 전반에는 슬픔의 정서가 담겨 있다. 바로크 시대의 기본이 되는 통주저음을 기본으로 화려한 음형들이 펼쳐지는 〈샤콘느〉는 특히 일정한 화음 안에서 점점 고조되는 선율들로 마음을 긁는 듯한 어떤 슬픔, 또는 고통을 표현하는 것만 같다"라고 설명한다. 저자는 부처님 출가에 한 곡을 더 소개한다.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무반주 바이올린을 위한 파르티타 2번, BWV 1004의 마지막 곡인 〈샤콘느〉이다.

부처님일생에 어울리는 클래식곡 소개
'읽는 붓다'서 '듣는 붓다' 위한 안내서
인류보석과 같은 두 진리 함께 만나다

영화 〈바이올린 플레이어〉의 마지막에 삽입돼 많은 이들에게 사랑과 공감을 받은 곡이다. '영원으로의 끝없는 비상' 이라는 애칭곡인 이 곡은 비탈리의 샤콘느와는 상당히 다른 느낌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비탈리의 샤콘느는 슬픔의 정서를 있는 그대로 직접적이고 애절하게 풀어냈다면, 바흐의 샤콘느는 좀 더 대범하고 비장한 각오속에 절제된 모습으로 승화시키죠. 이탈리아 낭만주의 작곡가 페르치오 부조니의 피아노 편곡으로 바흐의 〈샤콘느〉를 들으면 출가의 순간을 맞이한 싯닷타의 단호함이 더욱더 뚜렷히 전해집니다."라고 평한다.

저자는 싯닷타의 출가를 '이별의 아픔' 과 새로운 탄생을 위한 '고통의 감내' 관점 두 가지 측면에서 서로 다른 〈샤콘느〉 곡을 소개하고 있다. 음악을 들으면서 '붓다' 를 생각하고, '붓다' 를 읽으면서 음악을 듣게하는 것이 바로 이 책의 매력이다. 물론 불교에서의 '출가' 를 꼭 슬프고 애잔한 음악에만 적용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다. 속세의 모든 욕망과 명예, 집착을 모두 버리고 깨달음을 통해 대자유인이 되어 중생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겠다는 출발점에 선 출가자의 모습을 상상한 이들이라면 엘가의 '위풍당당 행진곡' 이나 베르디 오페라 아이다의 '개선행진곡' 을 떠올리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음악은 감정의 예술이고, 작곡가와 연주가, 청중 역시 감정을 통해 표현하고 듣기 때문에 해석이 다를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책이 가치를 발하는 이유는 피아니스트로서의 연주 경험과 깊은 학문적 사유를 바탕으로 붓다의 일대기를 클래식 음악이라는 소재로 섬세하게 버무리고 해석해 불교와 클래식 음악이라는 두 영역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음악이 다른 그 어느 예술보다 충분히 통섭적임을 증명했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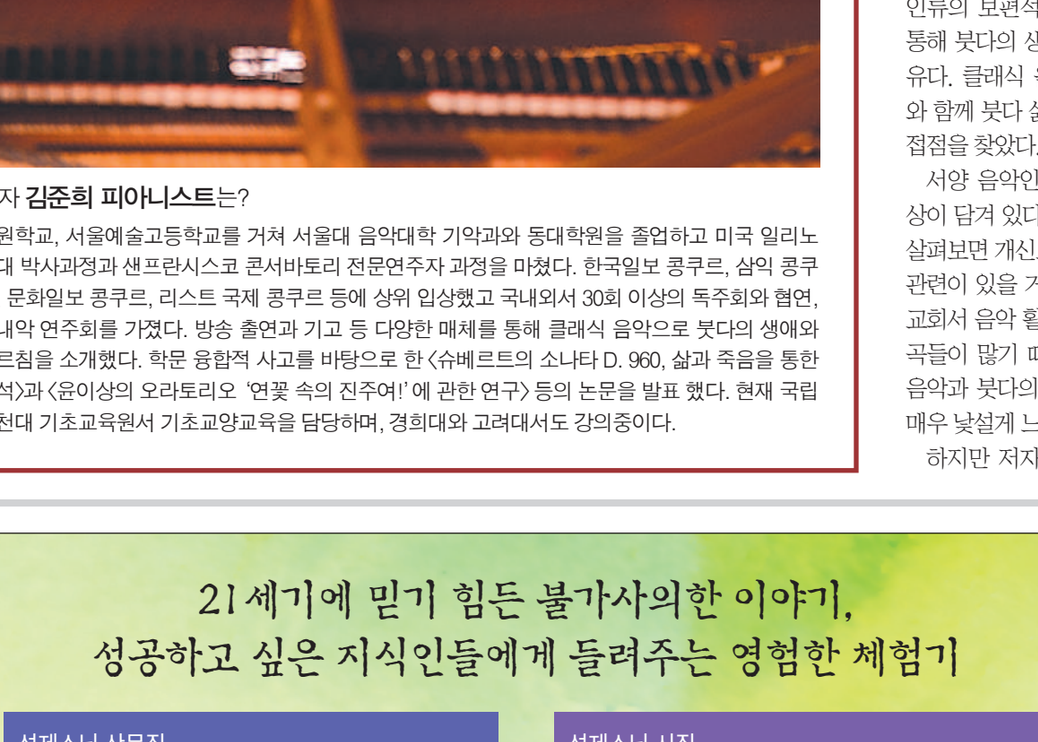
이외에도 책에는 리스트의 메피스토 왈츠 1번을 '부처님 고행' 에, 초전법륜을 모차르트 관악세레나데 Bb장조 〈그랑 파르티타〉 K361번에, 기원정사를 슈베르트 '바위 위의 목동' D965번에, 열반을 리스트의 〈먹구름〉에, 마지막 입멸을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32번 C단조 Op 111번에 매칭시켜 소개했다.

클래식 프로그램 진행자로 유명한 진명 스님(법련사 주지)은 추천사를 통해 "음악에 동서양이 어디 따로 있겠냐만은, 살아가는 자연 환경과 관습서 오는 차이가 있을 뿐"이라며 "저자인 김준희는 그런 차이와 다툼을 넘어 음악으로 동서양과 시공을 훌쩍 뛰어 넘어 붓다의 생애서 바흐와 베토벤을 교감시키고, 현악기와 관악기가 호흡을 맞춰 붓다가 스승을 찾아 떠나는 고행길에 동행하게도, 존 케이지의 음악서 붓다의 성도 전 선정을 마주하게 했다"고 평했다. 한편 이 책은 클래식 애호가들도 어렵고 낯선 불교가 아닌 친근한 느낌의 붓다를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소개하는 클래식 음악 작품마다 QR코드도 만들어 놓아 책을 읽으면서 바로 음악도 감상할 수 있다.

21세기에 믿기 힘든 불가사의한 이야기,
성공하고 싶은 지식인들에게 들려주는 영험한 체험기

성제스님 산문집
불가사의한 가피 II·III
148×243㎜ | 찬샘 펴냄 | 값 (각) 13,000원

성제스님 시집
불가사의한 가피의 노래 I·II·III
143×204㎜ | 찬샘 펴냄 | 값 (각) 10,000원



세상 모두를 사랑하는 사람은 법계의 사랑을 받으며 믿을 수없는 기적들을 만들어 내는 것을 증명이나 하듯이 가피 영험담을 1년간 써 내려간 것이 산문집 **불가사의한 가피II·III**와 시집 **불가사의한 가피의 노래 I·II·III**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법계의 불가사의한 가피가 아니고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기에 산문집과 시집이름도 이렇게 짓게 되었습니다. 부디 코로나로 많이 지쳐있는 영혼들에게 맑고 청정한 기운을 불어넣어주며, 이 행복에너지가 일파만파의 무한 에너지로 승화되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낼 수 있는 지혜와 복덕이 가득한 가정이되시길 기원합니다.

- 화엄사 **성제스님** 합장

구입문의 : 성제스님 010-7406-9788 새마을금고 9003-2212-8655-3 (예금주 : 윤순례)

2020 탄허 대종사 역저서



신화엄경 합론
(新華嚴經 合論)
4×6배판 2도인쇄 세로쓰기
전체금장 12,424쪽.
합본23권
값1,610,000원

이 책은 불교의 진수(眞髓)이며 고래 화엄종의 소의경전이다. 법화(法華)·열반(涅槃)과 함께 삼대경으로 손꼽히는 일승요의경으로써 요의경(了義經) 중에서도 가장 으뜸이다.
백천중류에는 바다가 가장 으뜸이고, 삼라만상에는 허공이 가장 으뜸이며, 일체 성현 중에서는 부처님이 가장 으뜸이고 일체 경교(經敎)에서는 화엄경이 가장 으뜸이다.
범부가 보살이 되고 부처가 되는 과정의 삼현십지와 불법의 신(信)·해(解)·행(行)·증(證)과 사법계·십법계·육상원융·십현문 등 가장 심오하고 광대무변한 법문이 이 경(經)·논(論)·소(疏)에 잘 설명되어 있다.
본 경은 80권 화엄경과 통현론 40권·청량국사 화엄소초 150권·회석 7권·현담 8권·보조국사의 원돈성불론 1권·계환선사의 화엄요해 1권과 탄허선사의 주석 등 총287여 권의 집대성이다.
이와 같이 화엄학을 집대성하여 수록하고 번역한 것은 유사이래 처음 있는 금자탑이니,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일찍이 없었던 귀중한 법보(法寶)중의 법보로써 크게 추앙받으리라.
우주와 인생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진리는 오직 화엄경(華嚴經)뿐이다.



전 5권 전체금장
덧말 대방광 불화엄경(40품)
4×6배판 2도인쇄
가로쓰기
전5권 한질 값400,000원

대방광 불화엄경(40품)을 덧말(음)을 달아 남(男)·녀(女)·노(老)·소(少)·유(有)·무식(無識) 누구나 수 읽어볼 있 한번쯤게 단락을 달았습니다.약3,200쪽 분량으로 640쪽 1권 총5권 한셋트로 2도인쇄 전체 금장으로 영원히 유산이 될 수 있게 제작했습니다.어려운 한문 때문에 경을 못 보는 분들도 많으리라 생각되어 대방광 불화엄경 40품 594,741여자(餘字)를 원문과 동시 덧말(음)을 붙여 한글만 알면 누구나 한번쯤 독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화엄경은 가정에서
법보로 가보로 꼭 필요합니다.
본경전을 受持하면
돈과 시간이 절약됩니다.
譯經많은 他의 追從을 不許.



도덕경 (道德經)
4×6배판 2도인쇄 세로쓰기
고급양장 전2권 1.152쪽.
도덕경 고급양장 2권
140.000원



莊子南華經
(장자남화경)
4×6배판 고급양장 512쪽
탄허스님 육성 씨디포함
고급양장 1권 60.000원



주역선해 (周易禪解)
4×6배판 2도인쇄 세로쓰기
1.784쪽.
주역선해 3권
210.000원

도서출판 **교림**
http: www.tanheo.com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4길17(경운동)
건국빌딩 건국관 202호
☎ (02)733~3334

꽃공양의 진수를 본다

지화장 도홍 스님 지화전 열어
'전주 한지가 지화를 만나다' 展
전북도청 전시실 3월 26일까지

전주한지 지화 49종 4900송이 전시
50여 년 전주한지로 전통방식 이어


지화장 도홍 스님.


도홍 스님의 지화작품 '부처님'과 보산개, 불안을 자세히 꾸미지 않은 이유는 관객들 각자가 부처님의 얼굴을 그려보게 하기 위함이다.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꽃공양의 진수를 감상할 수 있는 전시가 열리고 있다. 전라북도영산작법보존회(회장 혜정) 지화장 도홍 스님이 3월17일부터 26일까지 전라북도청 1층 기획전시실에서 지화전 '전주 한지가 지화를 만나다-지화장 도홍 김완섭의 꽃길'을 개최한다. 침향의 향기와 지화만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는 이번 전시에서는 침향 원목의 전주 한지로 지어낸 지화 49종 4900송이가 전시된다.

사찰꽃이라고도 불리는 지화는 불전을 장엄하고 부처님을 공양하기 위해 쓰였던 우리의 전통문화이다. 염색한 한지로 만들어지는 지화는 모든 장엄에 필요한 꽃의 역할을 대신하기 위해 시작됐지만 지화 자체가 하나의 장엄물이 된 지 오래다. 불단의 장엄물이자 공양물인 꽃을 만드는 일은 부처님께 귀의하는 수행의 하나이기도 하다.

지화장 도홍 스님은 50년 넘게 전주 한지로 전통 지화의 맥을 이어오고 있으며, 태고종 전북교구는 전라북도무형문화재 제18호 전라북도 영산작법보존회를 통해 범패작법과 함께 지화를 전승해 오고 있다.

육법공양 중 하나인 꽃은 만행화(萬行花)로서, 꽃을 피우기 위해 인고의 세월을 견딘다는 뜻에서 수행을 뜻하며, 장엄과 찬탄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신라와 고려시대에는 집에 불단을 세우고 작은 병에 지화를 꽂아 두기도 했다고 한다.

우리의 불교지화는 삼국시대 불교가 들어오면서 불전의 헌공화로 시작됐으며, 부처님께 올리는 육법공양 중의 하나가 되었다. 당시의 유물은 전해진 것이 없으나, 고려시대에 지화를 만드는 승려화장이 있었던 사실과 〈관무량수경〉 내용으로 그린 고려불화 '관경십육관변상도'에 있는 꽃을 재현해 본 결과 지화의 기법으로 만든 꽃을 사용한 도상이라는 것이 확인됐다. 그 외 수월관음도, 수덕사벽화, 조선시대 감로탱화, 〈조선고적도보〉에 사진으로 남은 법당 불교지화 장엄 등의 귀중한 사료를 통해 우리 불교전통지화의 양식을 확인할 수 있다.

도홍 스님은 지화 한 송이를 만들기 위해 산에서 원료를 가져와 49일간 말리고 건조시켜 적절한 온도로 6시간 이상 끓여서 7가지 색상을 만들고 종이에 자연채색을 한다. 또한 꽃(국화꽃) 한 송이를 만들기 위해 10가지 크기 27가지 모양을 27번 망치로 두들겨 꽃 모양을 만든다. 270번을 망치로 두드리는 것이다.

20㎝ 길이의 대나무를 칼로 잘라 젓가락 3분의 1 두께로 만들어 내는데 100번의 칼질을 한다. 천 번의 망치질과 칼질이 있어야 한 송이 지화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3월 17일 열린 개막식에서 도홍 스님은 "불교의 전통문화와 전주한지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이번전시를 기획했다"며 "지난 1년 6개월에 걸쳐 하루 3~4시간 잠을 자며 작업했다"고 전시의 의미와 준비 과정을 설명했다. 이날 태고종총무원장 호명 스님은 영산작법보존회 혜정 스님(범패), 영산 스님(작법), 도홍 스님(지화)에게 태고명인증을 수여했다.

지화명인 도홍 스님(전북교구 종무원 부원장)은 1977년 지화장 청암화상을 은사로 유발득도 후 지화장엄을 공부했으며, 1980년 삼보정사에서 삭발염의 수계했다. 은사 청암 문하에서 전통 방식의 지화 장엄을 전수받아 전통의 한지 지화의 맥을 잇고 있다. 2018년 영산작법 이수 교육 프로그램에서 후계자 양성 교육을 이어가고 있다.

2000년 새만금 안전발전 기원 대법회 지화장엄 展, 2006년 새만금 무주고혼 축생령령 위령 고혼 영산 수륙대재 전시, 2015년 김제 용봉사 지화제과 전시, 2016년 부산 이편한세상 공사현장 노동자를 위한 위령제 전시, 2017년 마이산 탑사 지화장엄 전시, 2018년 새만금 잼버리 성공기원 영산수륙재 지화장엄 전시, 2019년 익산 미륵사지 탑 점안식 지화장엄 전시 등 수차례 전시회를 열었으며, 2020년에는 영산작법 이수심사 지화장엄 전시 심사를 맡기도 했다.

불자 피아니스트 임현정 전국투어

3월 27일~6월 27일 총 8회 공연

내면의 소리를 찾기 위해 출가까지 생각했던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임현정〈사진〉이 2021년 상반기 국내 투어를 시작한다. 한국인 최초로 빌보드 클래식 종합 차트 1위를 차지했던 임현정은 2016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공연장에서 열린 비로자나국제선원 창건 10주년 음악회에서 특별독주회를 여는 등 불자들에게도 친숙하다. 임현정은 이번 전국투어에서 △3월 27일 아트센터인천 'Power of Spring'을 시작으로 △3.28 성남아트센터 '임현정의 Q&A콘서트' △4.10 대구콘서트하우스 'Power of Spring' △4.11 울산문화예술회관 '임현정의 렉쳐콘서트' △4.17 성산아트홀 '리스트 초절기교 에튜드 전곡' △4.25 군포문화예술회관 'Power of Spring' △6. 5 GS칼텍스예울마루 '리스트 초절기교 에튜드 전곡' △6월 27일 고양아람누리 '리스트 초절기교 에튜드 전곡'까지 총 여덟 번의 공연을 펼친다. 문의 (032)884-0400. 박재완 기자



문화재의 겉과 속, 과학으로 들여다본다

'빛의 과학, ~ 밝히다' 展
국립대구博 3월 16일~6월 13일
금동여래입상 등 69점 전시

국립대구박물관(관장 함순섭)은 국립중앙박물관(관장 민병찬)과 공동으로 3월 16일부터 6월 13일까지 2021년 상반기 특별전 '빛의 과학, 문화재의 비밀을 밝히다'를 개최한다. 2020년 8월 25일부터 2021년 2월 14일까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렸던 특별전의 대구 순회전시인 이번 전시는 우리 문화재의 보이지 않는 이면을 '빛'과 '보존과학'으로 집중 조명해보는 전시로, 최초의 기획 의도는 반영하되 대구박물관만의 특색을 살려 '빛과 보존과학의 이해'를 바탕으로 '역사적 가치를 담은 중요 문화재 감상'에 중점을 두었다.

이번 전시는 눈에 보이는 빛(가시광선)과 눈에 보이지 않는 빛(엑스선, 적외선, 자외선 등)으로 다양한 문화재의 겉과 속을 과학 기술로 적 의미와 예술적 가 보급 문화재를 감 상할 수 있다.


금동여래입상 (국보 제182호)

전시 구성은 프롤로그 '빛의 이' 영상을 시작 과장과 색놀 과학의 이해, 1 으로 빛과 빛; 문화재의 색 부 '보이는 부 '보이지 않 이 되다', 2 재의 비밀을 밝 는 빛; 문화 '빛; 문화재를 히다', 3부 마지막으로 보존 진찰하다', 을 담은 에필로그 과학의 내일 로 구성했다.

전시 대상 품은 선사시대 청동 거울, 삼국시대 금귀 걸이, 고 려청자와 조 선 백자, 보존처리를 통해 공 개되는 경복 궁 교태전 부벽화와 파상 도도 등 궁중 회화 3점의 다채로운 문화재 57건 69점이다.

여기에 지난해 대구박물관이 과학적 조사를 실시하여 연구 결과를 보고한 국보 제182호 구미 선산 금동여래입상 등 금동불 3점도 함께 전시한다. 처음으로 대구 나들이를 하는 국보 제61호 청자어룡형 주자, 국보 제91호 기마 인물형 토기, 국보 제95호 청자 투각 칠보무늬 향로 등의 교과서 속 문화재도 만날 수 있다.

이번 '빛의 과학, 문화재의 비밀을 밝히다'는 우리 문화재의 보존과 연구를 위한 박물관의 기능을 이해하고 항구적인 보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박물관 보존과학자의 역할과 임무를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재의 이면에 담긴 많은 이야기를 직접 보고 느끼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박재완 기자



판소리 · 대중가요에 투영된 불교는…

불교평론 논단 · 문화광장 관련 기고 '눈길'





안숙선 명창의 판소리 공연 모습(사진 왼쪽)과 정태춘, 박은옥 부부의 산사음악회 공연 모습.(사진 오른쪽) 판소리와 가요에도 불교가 투영된 작품은 상당 수다.

수궁가, 자타카 이야기 기원
흥부가 등 판소리 內 스님들
남루한 행색 '고승'으로 표현
조선 민중 바라던 스님 그려

현대의 대중가요 속 불교 살펴
1980~90년대 불교 테마 유행
불교 테마 노래 찬불의식 활용
틀에갇혀진 대중성 미흡 '과제'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음악은 인류사와 함께해왔다. 1700여 년 한반도에 전래된 불교는 한국인이 즐겨 부른 음악과 노래에도 투영됐다.

대표 불교학술계간지 〈불교평론〉 봄호(통권 85)에는 판소리와 대중가요에 투영된 불교를 살펴보는 기고들이 수록돼 눈길을 끈다. 논단에 기고된 임란경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나눔사업팀장(서울대 강사)의 '판소리 속 불교'는 판소리에 나타난 스님의 모습을 통해 민중이 바라는 불교의 모습을 살폈다.

임 팀장에 따르면 '수궁가'의 기원은 인도 불교설화 〈자타카(Jāta-ka, 本生譚)〉 '원숭이와 악어' 이야기에 있다. 이 설화는 한역(漢譯)돼 중국 불전 설화로 수록되면서 자라 또는 용이 원숭이의 간을 탐낸다는 내용으로 변화됐다. 한반도에 전래된 이후에는 토끼와 거북이 설화로 구전되는데 이는 〈삼국사기〉 권41 열전 김유신조 '구토지설(龜兎之說)'에서 확인된다.

구토설화는 17~18세기 판소리계 소설 〈별주부전〉과 판소리 '수궁가(水宮歌)' 형성에 영향을 끼쳤다. 하지만 시대를 거치면서 '수궁가' 내용은 근원설화의 골격만을 취하고 내용은 불교와 상관성을 찾기는 어렵다. 표면적으로는 군신유의(忠)를 주제로 했지만, 용왕으로 상징되는 봉건적 권력 구조와 그 모순에 대한 비판과 풍자가 담겼다.

근원설화의 뼈대만 남은 '수궁가'와는 달리 '심청가', '춘향가', '흥보가', '적벽가', '옹고집타령', '숙영낭자타령' 등에는 불교와 관련된 요소들이 산재해 있고, 사건 발단의 주요 인물로 승려가 등장한다는 게 임 팀장의 주장이다.

판소리 '심청가', '흥보가', '옹고집타령', '숙영낭자타령', '변강쇠타령' 속 승려는 모두 주인공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사건을 엮어가는 인물이다. 이들은 화자와 상황에 따라 도승, 대사, 중놈으로 불리지만 대체적으로 '고승'으로써 묘사들이 호의적이다.

임 팀장은 "판소리 속에서 스님은 '중놈'으로 낮춰 불리며 천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역할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얕잡히고 있지만은 않다. 도리어 신통력을 지닌 비범한 '도승(道僧)'으로서 주인공을 도와주거나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인물이자 악행을 저지르는 주인공을 계도하는 역할을 한다"며 "판소리에 등장하는 스님은 조선 후기 민중들이 인식했던 현실 속 승려의 모습과 그들이 바라는 이상적인 승려의 역할이 투영돼 만들어진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이동순 한국대중음악힐링센터 대표가 기고한 '한국 대중음악에서 만나는 불교'는 193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발표된 대중가요 속에 나타는 불교에 대해 분석했다. 이 대표는 한국문학사에서 불교 노래의 기원은 신라 향가로 시작돼 시조, 가사, 판소리, 민요로 이어졌고, 이는 20세기 현대 대중음악사에서도 그대로 투영됐다고 봤다.

일제강점기 불교 관련 노래는 스님 출신 시인 조명암(趙鳴岩, 1913~1993)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는 1940년 '꿈꾸는 백마강(조명암 작사, 김해송 작곡, 이인권 노래)'과 '낙화삼천(조명암 작사, 김해송 작곡, 김정구 노래, 1942)'를 발표했다.

1950~60년대로 불교 테마 가요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단연 1965년 극작가 김석야(1929~2000)가 집필한 라디오드라마 주제가 '하숙생(김석야 작사, 김호길 작곡, 최희준 노래)'이다. 이 대표는 "노래를 작사한 김석야는 계룡산 동학사 쓰레기장에 버려진 삭발한 여인들의 모발을 보면서 인생무상을 느껴서 가사를 쓰게 됐다"고 전했다.

1970~90년대에는 지금도 잘 알려진 대중가수들이 불교 테마 가요를 다수 내놓던 시기였다. 특히, 1990년대가 불교 테마 가요가 8편으로 가장 많았다. 대표적인 것이 김국환의 '타타타'다. '타타타'는 산스크리트어 '타르타(Tathata)'에서 유래했는데 '있는 그대로의 것', 진여(眞如)를 뜻하는 말이라고 이 대표는 전했다.

근현대기 많은 불교 테마 가요가 나왔음에도 시대가 지나면서 대중적 호소력이 미약한 것에 대해서는 숙제로 꼽았다. 이 대표는 "찬불 내용만 단조롭게 평면적으로 담고 있는 불교 테마 노래는 일정한 틀과 규격에 갇혀버린 양식이라 대중적 호소력이 다소 미약하다"면서 "이러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명상과 힐링의 기능을 담고 있는 노래들이 속속 등장했다"고 평가했다.

K-석조보존기술, 캄보디아서 빛나다

국립문화재硏 · 앙코르보존소 공동 연구 성과 보고서 발간



한국의 석조문화재 보존기술이 캄보디아 크메르 석조문화재에 적용됐다. 이는 한국이 개발한 보존 기술이 국외에 처음 적용된 사례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지병목)는 "〈캄보디아 크메르 석조문화유산의 보존과 복원〉보고서를 발간했다"고 3월 17일 밝혔다.

해당 보고서는 대한민국과 캄보디아가 공동으로 수행한 크메르 석조문화유산 연구의 성과를 담은 것으로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캄보디아 크메르 문화유산 중 보존 조치가 필요한 석조문화유산에 한국의 보존 기술을 적용하여 진단하였고, 공동 연구 기관인 캄보디아 앙코르보존소는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수리 · 복원을 진행했다.

그간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석조문화재의 보존 기술과 석조문화재의 표면 상태 비파괴 진단 기술 등을 연구 · 개발해 왔다. 이 같은 기술은 국내 석조문화재의 재질 특성을 밝히고 정량적 표면 풍화 진단을 하는 데 적용됐다.

보고서 〈캄보디아 크메르 석조문화유산의 보존과 복원〉에 담긴 보존 기술은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개발한 보존 기술이 국외에 처음으로 적용된 사례다. 이 보고서에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조사했던 캄보디아 앙코르보존소 소장 석상, 노코르바체이 사원, 반테이 츠마르의 보존 현황과 역사가 담겨 있고, 보존과 복원에 필요한 과학적 분석과 기술 제언 등이 포함돼 있다.

이 밖에도 전암 대자율 측정, 손상 지도 작성, 초음파 물성 진단, 적외선 열화상 분석, 초분광 이미지 분석 등 다양한 비파괴 진단 연구 결과도 수록돼 있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보고서에 수록된 결과들은 캄보디아 석조문화유산의 효율적인 보존 관리에 적용될 것"이라며 "보존 과학 관련 기관과 관련 연구자들에게도 유익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국 석조문화재의 보존 기술을 미얀마, 몽골 등의 국가에 보급하고 문화유산 보존과 분석 등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꾸준히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인도철학 · 불교, 자연 어떻게 바라봤나

인도철학회, 3월 27일 춘계학술대회

인도철학과 불교가 자연과 인간을 어떻게 바라봤는지를 고찰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인도철학회(회장 이태승)는 3월 27일 오전 10시 30분 '인도철학과 불교에서 바라본 자연과 인간'이라는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온라인 줌(Zoom)으로 개최한다.

이날 주요 발표로는 △나무로 태어난 나의 일상은 가능한 것일까?-파탄잘라 상키야의 경우(안필섭, 동국대) △자이나 생명개념과 생태론(양영순, 동국대) △자연으로서의 동식물과 음식으로서의 동식물-초기불교의 시각을 중심으로(공만식, 수원 가톨릭대) △부파불교에서 바라본 자연과 인간(최경아, 강릉 원주대) △바비베까의 비-채식주의: 고기를 먹고 원하는 것이 살생을 야기하는가(함형석, 전남대) 등이 발표된다.

논평자로는 강형철(동국대), 최지연(한국외대), 김경래(동국대), 이규완(서울대), 남수영(능인대)가 참석한다.

신성민 기자

유물 · 문헌 통해 한식 이해 증진

불교문예연구소, 4월 8일 컨퍼런스

유물과 문헌을 통해 한국음식의 이해 증진을 도모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불교문예연구소는 4월 8일 오후 1시 동방문화대학원대학 호운관에서 '유물과 문헌을 통한 한식의 이해'를 주제로 제2회 음식학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권대영 前 한국식품연구원장의 '중국 문화공정과 한식의 미래'를 주제로 기조강연으로 시작되는 이날 컨퍼런스는 김성순 전통문화대 박사가 '〈승가일용식시묵언작법(僧伽日用食時默言作法)〉에 나타난 발우공양 작법 고찰'을, 차순철 서라벌문화재연구원 조사연구단장이 '출토유물로 살펴본 경주 성건동 창고유적-사찰의 장항아리인가, 왕궁의 술항아리인가'를 각각 발표한다.

강연과 발제 이후에는 토론과 질의 응답이 진행되며, 전 과정은 온라인으로 중계가 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청동불상 조성업체 대원불교미술원



그 동안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을 성원해 주신 여러 스님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 드립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청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등 일체를 혼을 담아 조성(제작)하여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거해 온 물건 및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장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565-5 전화 031)532-3722, 533-3722 | H·P 010-7171-2636 |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미술원이 되겠습니다

정찬주 역사대하소설 아쇼까대왕 11

▶ 12회 예고
빈두사라는 예전처럼 왕자들 교육에 관심을 갖는다. 왕자를 자신이 정복한 소국으로 보내 다스리기 위해서다. 그러나 여러 종교 수행자들 가운데 왕자의 스승을 물색해 보지만 어렵다. 마침내 사문 목갈리뿟다띳사를 추천받는다.



빈두사라, 피의 보복을 멈추다

탁실라는 예전의 평화를 되찾았다. 빈두사라의 군사는 자신들이 파괴한 성 안의 건물들을 복구하느라 밤낮 가릴 것 없이 땀을 흘렸다. 그런 모습이 소문나자 성 밖으로 피신했던 성민들이 무리지어 돌아오기 시작했다. 반두사라가 탁실라에 들어온 지 두 달만이었다.

다르마는 브라흐민 제관 칼라따까를 불렀다. 그런데 그는 말이 많은 사람이므로 조심해야 했다. 다르마가 칼라따까를 부른 이유는 반란자들을 응징하는 빈두사라의 마음을 돌려놓기 위해서였다. 칼라따까는 막 기도를 마친 듯 흰옷 자락을 너풀거리며 왕비처소로 왔다.

"요즘도 가끔 대왕님께서 칼에 피를 묻히고 들어오는 날이 있습니다. 머지않아 왕자를 출산하게 될 저는 불안하기만 합니다."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왕비님, 감축드립니다."

칼라따까는 다르마에게 합장하면서 말했다.

"왕자님 탄생을 축복하는 최상의 방법은 기도이지 칼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왕자님이 태어나시면 감옥에 갇힌 자들을 모두 풀어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비님은 참으로 자애로우신 분입니다. 용서는 칼보다 더 위대한 법입니다."

다르마는 미처 생각하지 못한 용서까지 말한 칼라따까가 고마웠다. 그가 나간 뒤 락슈미띳사를 불러 말했다.

"제관을 만나 얘기해보니 소문하고는 다르구나. 제관의 마음속에도 평화가 있어."

"조심하셔야 해요. 그분은 이쪽에서 하는 말하고 저쪽에서 하는 말이 다르다고 하니까요."

"제관의 말을 믿어 보자구나. 어쨌든 대왕님의 신임을 가장 많이 받는 신하 중에 한 분이니까."

그날 밤, 빈두사라가 모처럼 왕비처소로 왔다. 빈두사라가 만면에 웃음을 띠며 말했다.

"희소식이오. 반란수괴가 은신해 있는 동굴을 알아냈소."

"탁실라에는 봄이 왔는데 또, 피바람이 불겠군요."

"왕비, 넘겨짚지 마시오. 나는 칼라따까의 충언을 따르기로 했소. 그를 생포하면 하옥시켰다가 진실로 반성하면 살려줄 생각이오."

"칼라따까 제관의 말이 옳아요. 대왕께서는 탁실라 성민들의 마음까지 얻는 승리자가 될 거예요."

"어쨌든 나는 내일 반란수괴를 체포하러 탁실라를 떠날 것이오."

"대왕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겠어요."

다르마는 빈두사라에게서 평온한 모습을 발견하고는 기뻤다. 빈두사라는 반란수괴를 생포해야만 자신의 임무가 끝났다고 여기는 것 같았다. 반란수괴가 은신해 있는 동굴을 발견한 것만으로도 빈두사라는 흡족해했다. 동굴에 숨어 있다는 것을 고발한 사람은 반란수괴의 참모였다. 어젯밤에 반란수괴의 참모가 빈두사라를 찾아와 밀고했던 것이다. 빈두사라는 반란수괴의 참모에게 즉시 포상을 명했다.

다음날. 빈두사라는 선봉대를 앞세우고 반란수괴가 은신한 동굴로 향했다. 동굴은 탁실라 서북쪽 산악의 깎아지른 절벽에 있었다. 절벽은 대규모의 군사가 접근할 수 없는 지형이었다. 그러나 선봉대 군사들은 절벽으로 난 외길을 원숭이처럼 접근해 갔다. 반란수괴는 빈두사라 군사의 공격을 눈치 채지 못했다. 아무런 저항이 없었다. 선봉대는 쉽게 동굴 입구에서 침투조를 짰다. 빈두사라는 후방에서 지켜볼 뿐, 직접 생포작전에 참여하지는 않았다. 아슬아슬한 절벽의 동굴이기 때문에 위험부담이 컸던 것이다.

잠시 후 동굴 입구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붉은 깃발이 펄럭였다. 생포작전이 성공했고 작전을 끝낸다는 신호였다. 반란수괴라 하여 긴장했지만 작전시간은 의외로 짧았다. 빈두사라의 침투조 군사를 보는 순간 두 손을 들었던 것이다. 그는 시중을 드는 두 명의 여인과 함께 있었다.

반란수괴는 눈을 가린 채 빈두사라 앞에 끌려와 무릎을 꿇었다. 두 여인은 선봉장이 다른 장소로 데리고 갔다. 빈두사라가 부드럽게 말했다.

"솔직하게 말하라. 너는 물론 저 여인들도 죽이지는 않을 것이니라."

"구차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소. 다만 저 여인들은 죄가 없으니 목숨만은 살려주시오."

"탁실라는 마우리아왕국의 영토인데 왜 반란을 일으켰는가?"

"빠딸리뿌뜨라에서 파견 나온 신하들의 횡포가 너무 심했소. 세금이 불어나 도둑질해서 내야 할 형편이 되었소. 성민들의 원성이 자자했소. 내가 반란에 나섰다기보다는 성민들이 나를 왕으로 추대했소."

"반란에 협력하지 않은 사람들은 왜 죽였는가? 반란을 정당화시키지 말라."

"우리들은 알렉산더가 남긴 군사를 몰아냈소. 그러니 탁실라를 지켜낸 공이 있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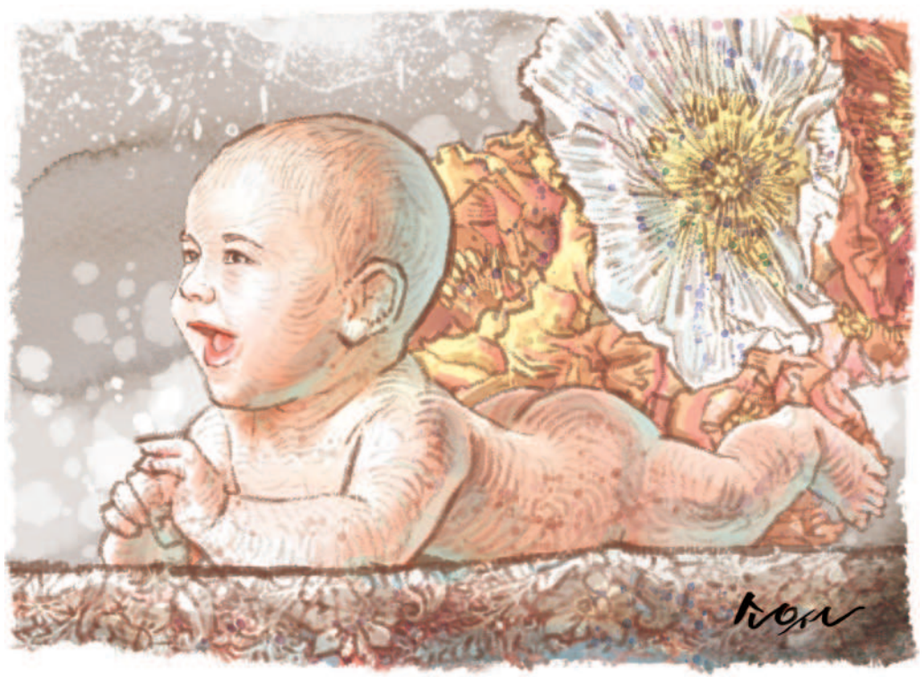
"수괴답게 함부로 지껄이는구나. 너희들에게 협조하지 않은 탁실라 사람이야말로 침략자 알렉산더를 인정하지 않은 진정한 인도사람이 아니겠느냐."

반란수괴는 빈두사라의 말에 입을 다물었다. 이윽고 선봉장이 동굴에서 반란수괴로부터 압수한 칼을 빈두사라 앞에 바쳤다. 빈두사라는 칼에 새겨진 명문을 보고는 반란수괴의 것임을 확인했다. 칼에는 알렉산더가 부하들에게 한 말이 새겨져 있었다.

'두려움을 정복한 자, 그는 이 세상도 정복하리라.'

알렉산더가 한때 정복했던 탁실라를 물러가면서 누군가에게 하사한 칼이 분명했다. 칼을 챙긴 빈두사라가 매우 흡족해 하면서 선봉장에게 반란수괴를 압송하라고 지시했다.

"저 자를 탁실라 감옥에 가두거라."



반란수괴가 눈앞에서 사라지자, 빈두사라는 또다시 선봉장에게 명했다.

"이제야 탁실라에 평화가 왔다. 군량미를 풀어 배고픈 성민들에게 나누어주라."

빈두사라는 반란이 종식되었다는 것을 군사들 앞에서 정식으로 선포했다. 반란수괴를 생포한 데다 수괴의 칼까지 획득했으므로 더 이상의 긴장은 필요 없었다. 성문 밖까지 탁실라 성민들이 나와 빈두사라 군사를 환영했다. 두 달 전까지만 해도 탁실라 왕으로 섬겼던 반란수괴에게 누군가가 돌을 던졌다.

"저놈이 우리 인도사람의 영혼을 마케도니아 왕에게 팔아먹었소!"

그러나 선봉대 군사들이 반란수괴를 감쌌다. 감옥에 가두어 놓은 뒤 신문할 것이 더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다. 탁실라 성안은 잔치 분위기로 바뀌었다. 군수부대 장수가 빠딸리뿌뜨라에서 가져온 술과 군량미를 나누어주도록 군사들에게 지시했다.

축제분위기는 밤낮으로 여러 날 이어졌다. 찬드라굽따를 도왔다가 피신했던 늙은이들이 하나둘 지팡이를 짚고 나타났다. 모두가 늙은 목동들이었다. 찬드라굽따는 소와 양을 치는 이들의 우두머리였던 것이다. 목동 가운데 한 명이 빈두사라에게 슬픈 소식을 전했다.

"까우띨리야께서는 우리 목동들 곁에서 병사했사옵니다. 목동들은 시신을 태우고 난 재를 인더스강에 뿌렸사옵니다."

"탁실라에는 의원들이 많을 텐데 어째서 그대들 곁에 있었단 말인가?"

"까우띨리야께서는 알렉산더가 남기고 간 흔적을 몹시 경멸했사옵니다."

"오, 까우띨리야 대신처럼 탁실라를 사랑했던 분은 아마도 없을 것이오."

"그분이 돌아가신 날 우리 목동들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슬픔에 잠겼사옵니다."

"짜라나비슈누 소식은 듣지 못했는가?"

"짜라나비슈누 장군은 탁실라에서 행방불명이 되었사옵니다. 반란수괴 왕에게 협조하지 않는다는 죄목으로 굶겨 죽였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만 우리 눈으로 보지 않아서 뭐라고 단정해 말씀드릴 수는 없사옵니다."

목동들이 돌아간 뒤 빈두사라는 행궁으로 들어가 소리 내어 통곡했다. 브라흐민 까우띨리야는 아버지 찬드라굽따의 동지이자 스승이었지만, 빈두사라에게는 왕자수업을 시킨 교사였다. 어린 시절에는 산스끄리뜨어를 외우고 읽는 방법과 수학을, 10세가 넘어서는 천문, 점성, 의술, 통치술을 가르쳤던 것이다. 반면에 젊었던 짜라나비슈누는 검술과 궁술, 등 주로 무예를 가르쳤는데, 두 사람은 왕자 빈두사라에게 있어서 쌍두마차나 다름없었다. 빈두사라는 짜라나비슈누의 행방이 궁금해 견딜 수 없었다. 칼라따까 제관에게 기도를 부탁했다.

빈두사라의 지시를 받은 칼라따까는 날마다 인더스강으로 나가 기도를 했다. 한 달 보름쯤 되었을 때에야 칼라따까는 하늘의 대답을 들었다. 그는 즉시 빈두사라에게 달려갔다.

"짜라나비슈누 대신은 탁실라를 떠난 적이 없다는 하늘의 대답을 들었사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는 보았을 것이 아니오? 아무도 본 사람이 없으니 이상한 일이오."

"대왕이시여, 불행한 일이옵니다만 어쩌면 반란수괴가 처형한 뒤 우물감옥에 빠뜨려버렸는지도 모르겠사옵니다."

빈두사라는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 발을 동동 구르면서 허둥댔다. 우물감옥은 성문 안에 있었는데 수백 걸음 깊이로 땅을 파서 죄인을 던져 넣으면 영원히 살아나올 수 없었다. 빈두사라는 선봉장을 불러 명했다.

"반란수괴를 불러 문초하시오. 만약에 그가 짜라나비슈누를 처형했다면 이보다 비통한 일이 어디 있겠소? 선봉장은 수괴의 목숨을 생각하지 말고 반드시 자백을 받아내시오."

빈두사라는 선봉장에게 반란수괴의 목숨을 맡긴다고 명했다. 다르마가 이제는 용서하라고 애원했지만 빈두사라는 자신의 스승을 죽인 반란수괴를 극형에 처하지 않을 수 없었다.

"반란수괴가 악행을 저질렀다면 우물감옥도 아까우니 시신을 갈기갈기 찢어 산악에 버리시오. 독수리의 밥이 되게 하시오."

선봉장은 즉시 반란수괴를 불러 고문을 시작했다. 반란수괴는 고문을 한 지 며칠 만에 이실직고했다. 칼라따까의 짐작대로 짜라나비슈누가 협조할 수 없다고 버티자, 목을 자른 채 우물감옥에 던져버렸다는 자백을 받아냈다. 왕비처소에서 보고를 받은 빈두사라는 또 통곡했다. 다르마는 빈두사라가 왜 통곡하는지 모르고 위로했다.

"대왕이시여, 왕자가 곧 태어날 것 같사옵니다. 꽃이 피어나는 봄날, 가장 좋은 날에 왕자가 태어날 것 같사옵니다."

"아, 이 무슨 조화인가?"

빈두사라가 알 듯 모를 듯한 혼잣말을 하면서 밖으로 나갔다. 락슈미띳사는 궁녀들을 모아놓고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성수를 떠온 궁녀, 마른 천을 준비해온 궁녀, 탁실라 외곽에서 데려온 늙은 산파 등이 왕비처소 밖에서 대기했다. 빈두사라는 칼라따까 제관에게 기도를 부탁했다. 빈두사라가 왕비처소 뒤쪽에서 슬퍼하고 있자 칼라따까가 말했다.

"대왕이시여, 행복과 불행은 같이 붙어 다닌다고 했사옵니다. 아침에는 짜라나비슈누의 비보를 들었지만 낮에는 왕자님이 태어날 것이라는 낭보를 듣고 있사옵니다. 어쩌면 왕자님은 덕행과 무재(武才)를 겸비한 짜라나비슈누의 환생인지도 모르겠사옵니다."

그제야 빈두사라의 얼굴이 조금 밝아졌다. 태어나는 왕자를 통해서 자신이 존경했던 짜라나비슈누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말에 위로를 받은 듯했다. 다르마는 약간의 산통 끝에 큰 고통 없이 능숙한 산파의 손놀림으로 왕자를 출산했다. 갓난아기 왕자는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 나타나 빈두사라와 다르마에게 눈앞의 근심을 잊게 해주었다. 이레 동안이나 보기만 해도 웃게 하는 행복을 선사했다. 빈두사라는 다르마와 칼라따까 제관과 상의하여 갓난아기 왕자 이름을 아쇼까로 지었다. 아쇼까란 '근심이 없다(無憂)'는 뜻이었다. 〈계속〉

인도 아유르베다 근간으로 하는 치유대학
IIME자연의학대학교
2021학년도 신입생 모집
◈ 수업과목 : 인도요가, 약초치료학, 음악치유, 영어회화, 체질학치유, 만다라치유, 미래예측학, 경혈학, 양자파동학, 효소응용학
◈ 모집기간 : 2021년 3월 18일 ~ 수시모집
◈ 모집과정 : 전문가, 학사, 석사, 박사, 자연의사
◈ 수업방식 : IIME한국캠퍼스 온·오프라인수업(토요일), 인도우편수업
◈ 특 전 : 학위취득 시 인도정부 학위 인정서 발부, 도시농업관리사 수강시 수업료 감면
오픈 무료공개강좌

- 일 시 : 2021년 3월 27일 오후 3시
- 초빙교수 : 김태곤 가수(망부석)
- 주 제 : 음악치유와 함께
※ 코로나 방역 철저하게 실시합니다.
한국IIME대학교 학장 이호선 교수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민속촌로71번지
접수 : TEL 031)274-7388
행정실장 010-4664-9788
혜웅스님 010-4740-3001
홈페이지 http://iimeorg.com, http://holistichealthorg.com

겨울철 난방(煖房) 걱정 끝!
바닥철거 없이 시공가능 난방비 50% 절감
21세기 신 난방 문화의 대변혁 : 법당, 요사채, 선방, 공양간 등
◆ 시공실적 ◆
해인사 백련암, 미황사(해남), 대흥사(단양), 용담사(안동), 연꽃마을(용인요양원), 전국 캠핑장 킴핑트레일러(경인 아라뱃길, 가평 자라섬), 대부도 캠핑장, 성동힐링센터(동강) 등
이동식 주택형 찜질방 제작판매(2인, 4인, 6인용)
"정직한 시공으로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정원난방산업 www.garden-heating.com 문의 010-3267-1263

침향 향기나는 초 침향초
- 대중이 모일때 가장 적합한 초 -
침향은 예로부터 향료로 피워 극히 귀한 기운을 갖는다고 전해집니다.
침향을 피워 향기를 맡게 되면 정신이 맑아지고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법당, 집, 사무실, 기도처 등 다양한 곳에서 침향의 향기와 함께하세요.

식물성 침향초

연꽃칠성촛대

연꽃촛대

밀납PC컵초 크리스탈받침(별도판매)

연꽃 크리스탈 촛대
양초 보시 대행
해광산업 031-333-0242 · 010-5848-0189

김호귀 교수의 한국선 톺아보기 ❻ 구산선문의 선사상 – 법맥 인식의 전환

▶ 한줄 요약
보리달마로부터 시작된 중국 선종은 조사에서 조사로 전승되는 법맥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여러 선종에서는 전등사서를 편찬하는가 하면 날조까지 감행하기도 했다. 이런 법맥의 날조는 구산선문에도 영향을 끼쳤다.



날조된 중국선 법맥 구산선문에 영향

중국에서 선종은 6세기 초반의 보리달마로부터 그 연원을 삼는다. 그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면면히 지속되어온 까닭은 나름대로 그에 상응하는 요소가 있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정법안장의 계승을 강조함에 따라 조사로부터 조사로 전승되는 법맥의 형성과 그 강조를 들 수가 있다. 이를 위하여 여러 선종에서는 나름대로 법맥에 관련한 자파의 전등사서(傳燈史書)를 편찬하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여의치 못한 경우에는 소위 날조까지도 비일비재하게 감행하였다. 그럼으로써 법맥에 대한 역사에서 그럴듯한 허구성이 가미되었는가 하면, 오히려 날조된 사실에 근거하여 보다 세련된 선종의 역사가 전개되었고, 나아가서 날조된 법맥이 나름대로 명분을 확보하는 결과로 드러나기도 하였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선종에서 법맥의 날조가 차지하고 있는 위상과 의의는 결코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또 하나의 역사를 형성해왔던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선종에서 내세우는 법맥의 형성은 불교가 중국에 수입된 이후로 중국문화의 수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것은 불교의 수입 이전부터 중국문화의 근간을 형성하고 있었던 유교문화에서 장자(長子)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전승해오던 가문중시의 문화와 그에 따른 정통(正統)과 방계(傍系)의 문제 등과 결부되어 있었다. 불교가 중국에 수입되던 즈음에는 불교는 하나의 외래종교에 불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미 중국의 사회 및 문화 속에 정착하여 모든 사람의 일상생활에서 세련되고 화려하게 전개되고 있던 유교문화에 비하여 대단히 초라한 모습이었다. 그와 같은 불교가 중국의 사회에서 정착하고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중국이라는 현지의 문화를 존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기원을 전후하여 시작된 불교의 중국 정착, 나아가서 6세기 무렵부터 시작된 선종의 역사에서 자파가 현지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모종의 방편과 기관과 장치가 반드시 필요했다.

그 가운데 하나의 방법은 유교문화의 가문중시에 상응하는 방식으로 선종 조사들의 계보로서 소위 전등사서를 편찬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방식은 불법의 상승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장치였을 뿐만 아니라 선종의 측면에서는 자파의 전승과 정통성의 홍보를 위해서도 필요불가결한 것이었다. 선종에서 출현한 그 시작은 천태종에서 자파의 24대조사설, 〈부법장인연전(付法藏因緣傳)〉 및 〈달마다라선경(達摩多羅禪經)〉 등을 원용하여 8세기 후반에 남종에서 〈단경〉의 편찬에 즈음하여 주장한 과거칠불 · 인도의 28대조사 · 중국의 6대조사 등 불조(佛祖) 40대설로 나타났다. 불(佛)로는 비바시불(毘婆尸佛)을 비롯하여 가섭불까지 7불, 조사(祖師)로는 마하가섭(摩訶迦葉)으로부터 보리달마(菩提達磨)에 이르는 인도의 28조, 보리달마로부터 조계혜능(曹溪慧能)에 이르는 6조사설 등이 780년을 전후로 하여 출현한 〈단경〉에서 그 명칭이 처음으로 확정됨으로써 정법안장의 정통성이 조계혜능(曹溪慧能)에게 전승되었다는 주장이었다.



구산선문의 하나인 희양선문의 종찰 문경 봉암사 전경 모습.

中선종, 법맥 강조하는 풍조유행
날조에 가까운 법맥 만들어 전승
마조 문하선 가공 인물 만들기도
〈법문서귀〉서 날조 · 허구성 해명
"희양 · 동리의 법맥에 오류 보여"

물론 그 과정에는 역사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은 충분히 감안해야 할 문제이다. 그러면서도 혜능의 남종계통에서는 이것을 소위 정통의 증명으로 활용함으로써 이후 801년에 지거(智炬)에 의하여 출현한 〈보림전(寶林傳)〉에서 불조들의 법어까지 수록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정통의 확립이라는 의의를 보여주었다. 이후로 오대시대에는 정(靜)과 균(筠)에 의하여 952년에 〈조당집(祖堂集)〉으로 계승되었고, 송대에는 도원(道原)에 의해 1004년에 〈경덕전등록(景德傳燈錄)〉이 편찬됨으로써 전등사서로서 부동의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불조의 법맥에 대한 전승의 강조는 구산선문의 조사들에게도 큰 영향을 주었다. 그 가운데 희양산문(曦陽山門)과 동리산문(桐裏山門)의 경우에는 전법조사에 대한 법맥에 대하여 눈여겨볼 만한 점이 엿보인다. 희양산문의 경우에 봉암사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그런데 그 개산조사로 간주되어 있는 도헌국사(道憲國師, 824~882)는 봉암사와 인연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오히려 현계산(賢溪山) 안락사(安樂寺)의 지증대사(智證大師)로 통칭되고 있는 점도 법맥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곧 현재 구산선문의 법맥에서 도헌국사의 법맥은 백엄양부(伯嚴楊孚, ?~917) 그리고 손제자에 해당하는 정진긍양(淨眞兢讓, 878~956)에게로 전승되고 있다. 최치원이 쓴 '지증국사비명' 에 의하면 도헌은 중국선종의 제4조 쌍봉도신 · 법랑 · 준범 – 혜은 · 도헌으로 계승되어 있다. 그리고 중국선종에서 혜능 · 청원행사 · 석두희천 · 약산유엄 · 도오원지 · 석상경제 · 곡산도연 · 정진긍양으로 계승되었다. 그러나 정진국사 긍양의 비문에서는 혜능 · 남악회양 · 마조도일 · 창주신감 · 쌍계혜소 · 현계도헌 · 백엄양부 · 정진긍양으로 바뀌어 전한다. 이와 같은 점은 당시에 중국선종에서 소위 정통으로 간주되고 있던 남종의 법맥에 상승(相承)시켰다는 허구가 강하게 부각되어 있다.

한편 동리산문의 경우는 개산조가 적인혜철(寂忍慧哲, 785~861)인데, 그 사법계통은 두 가지 흐름을 보여준다. 첫째는 혜철의 사법제자는 태안사 계통으로는 □□□여(□□□如)이고, 이후 광자윤다(廣慈允多, 864~945)에게로 전승되었다. 둘째는 혜철의 사법제자는 옥룡사 계통으로는 선각도선(先覺道詵, 827~898)이고, 이후 동진경보(洞眞慶甫, 869~947)에게로 계승되었다. 이들 두 가지 계통의 법맥에 대해서는 후자의 경우 역사적인 사실을 아예 무시한 날조인 까닭에 그대로 인정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그 증거로서 도선국사의 비문을 들고 있지만, 그 비문 자체가 도선국사 입적 이후 252년 후에 제작된 것임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학계에서 논의된 내용이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도선국사와 동진경보의 법맥은 실제로는 동리산문의 선법에 포함시킬 수 없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이와 같은 날조에 가까운 법맥이 만들어지고 전승되어 온 것은 법맥에 대한 막연한 신뢰와 더불어 그것을 바탕으로 자파의 입지를 주장하려는 것이었음은 불문가지이다.

이처럼 구산선문의 조사들에 대하여 역사적인 사실과 상당히 먼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은 비단 구산선문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이미 중국의 선종사에서도 이와 같은 모습은 비일비재하게 출현해왔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노골적인 모습으로 출현하여 실제로 중국의 선종사에 큰 영향을 끼쳤던 모습은 마조도일의 계통에서 나타난 반야다라(般若多羅)의 예언에 관한 것이었다. 반야다라는 보리달마의 스승으로 인도의 제27대 조사이다. 반야다라는 보리달마에게 전법하면서 '그대의 먼 후손 가운데 망아지 한 마리가 출현하여 천하를 짓밟아버릴 것이다.' 는 유훈을 내려주었다. 그런데 마조의 후손들 가운데는 무모하게도 이 예언을 현실적으로 구체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바로 망아지는 마조도일이고, 천하를 짓밟아버린다는 것은 마조의 법손이 선종의 세력을 장악한다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따라서 선종의 제종파는 마조의 법맥으로부터 유래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발상으로부터 소위 법맥을 날조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실제로 중국선종에서 조계혜능 · 청원행사 · 석두희천 · 천황도오(天皇道悟) – 용담숭신 · 덕산선감 · 설봉의존의 법맥이 출현하였다. 설봉의존으로부터 다시 하나는 운문문언의 법맥이고, 다른 하나는 현사사비 · 나한계침 · 법안문익의 법맥이다. 그런데 마조문하의 후손에서는 반야다라의 예언을 역사적인 사실로 믿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 일환으로 가공의 인물을 내세웠는데 그가 바로 마조도일의 문하인 천왕도오(天王道悟)이다. 그리고 이 천왕도오가 다름아닌 천황도오와 동일한 인물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럼으로써 천황도오의 문하에서 분파한 운문문언의 운문종(雲門宗)과 법안문익의 법안종(法眼宗)이 모두 마조도일의 법맥에 속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로써 보면 결과적으로 선종오가 가운데 조동종(曹洞宗)만 제외하고 네 종파가 모두 마조도일의 법맥으로부터 출현한 셈이 되어 반야다라의 예언이 부분적으로 실현되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법맥의 날조와 그에 대한 주장은 당시부터 상당한 힘을 지님으로써 이후 명대 말기 청대 초기에 이르도록 중국의 선종사에서 아무런 의심이 없이 전승되어 왔다.

이에 대하여 명말 청초에 백암정부(白巖淨符)는 〈법문서귀(法門鋤宄)〉를 저술하여 그와 같은 주장은 법맥의 날조일 뿐만 아니라 명백한 허구라는 것을 해명함으로써 중국의 선종사에서는 일단락되었다. 이에 천왕도오는 날조이고 천황도오가 실제의 인물이라는 것이 보편적으로 수용되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중국선종의 상황을 아무런 의심이 없이 수용했던 조선시대 선종계에서는 날조된 법맥의 주장이 한국의 선종사에 이르기까지 오랫동안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다. 심지어 중국의 선종사에 이미 천왕도오라는 인물은 허구적인 인물이라는 것이 결판났음에도 불구하고 애써 그것을 외면하고 기존의 날조된 법맥의 전통을 그대로 수용하였다. 그 결과 조선 중기 청허휴정의 〈선가귀감(禪家龜鑑)〉을 비롯하여 환성지안의 〈선문오종강요(禪門五宗綱要)〉, 나아가서 백파의 〈선문오종강요사기(禪門五宗綱要私記)〉 및 기타 20세기 초에 이르기까지 한국선에서도 지속되었다.

1500여 년에 이르는 오랜 선종의 역사에서 이와 같이 법맥의 정통성에 대한 강조는 뿌리 깊게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다. 법맥을 강조하는 전통이 선종사에서 순기능의 역할을 해온 것은 물론이다. 선종의 전통이 계승되고 유지되어 온 측면뿐만 아니라 선종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살펴볼 수 있게 되었다는 점도 그렇다. 그러나 그 역기능의 역할도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점이 있다. 그것은 순수한 선법의 형성과 전개, 발전보다도 오히려 당시의 물리적인 세력의 영향을 벗어나지 못하는 측면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날조 혹은 허구의 역사는 모든 역사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다. 다만 처음에는 허구와 날조로부터 시작되었을지라도 그것이 오랜 세월동안 정착됨으로써 또 하나의 역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까지는 부정할 수가 없다. 따라서 구산선문에 보이는 몇 가지 법맥의 혼란은 지금에 와서 고스란히 돌려놓을 수는 없는 점이 있다. 설령 그것이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어쩌면 그와 같은 날조와 허구까지도 선법의 역사로서 인정해야만 보다 보편적이고 다양하게 그 본의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동국대 HK교수〉





강소연 교수의 고려불화, 마이크로 세계 ⑥ 오백나한도의 나한



▶ 한줄 요약
일본 교토 지은원 소장 〈오백나한도〉는 멀리서 포면 석가삼존이 있는 산수화 같다. 하지만 가까이서 보면 무한의 나한들로 풍경은 해체된다. 나한들은 제각각의 용모와 행동을 하는데, 이 안에는 유머와 해학이 담겼다. 이 같은 유머와 해학은 한국불교 불화만의 특징이다.

무한의 나한, 화폭에 담다

멀리서 보면 한 폭의 산수화다.(그림1) 병풍처럼 두른 산봉우리와 기암괴석 속에 석가삼존이 앉아계신다. 그림 윗부분의 울뚝불뚝한 봉우리들은 아래까지 그러한 산세를 이어가서 전체로 둘러있다. 아! 그런데 봉우리의 능선들이 꿈틀 꿈틀 움직인다. 더 가까이 다가가보니,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멀리서 봉우리와 계곡으로 보였던 것이 다름 아닌 무수한 나한님들의 무리였다.(그림2) 나한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며, 석가삼존을 빼곡히 에워싸고 있다. 무한 군중으로 그려진 나한들은, 물방울이 모여 파도치듯 그렇게 커다란 흐름을 만들어 내고 있다. 절묘한 구성이다.



그림①

석가삼존 앉은 한 폭의 산수화
화폭 풍경 곳곳엔 나한들 향연
각각 모습엔 유머와 해학 담겨
소탈함 속 비범함 표현들 '눈길'
中 · 日 없는 한국불교만의 특징

그림① 일본 교토 지은원에 소장된 고려시대 불화 〈오백나한도〉의 모습.

그림② 〈오백나한도〉 부분을 촬영한 모습. 풍경 곳곳에 무수한 나한들이 제각각의 모습과 행동으로 앉아 있다. '유머와 해학'의 표현은 한국불교만의 특징이다.



그림②

깨알 같은 나한들로 해체되는 풍경

멀리서 보면 산봉우리와 계곡의 거대한 풍경으로 보이지만, 가까이 다가가 보면 풍경은 해체된다. 덩어리로 보였던 것이 분해되어 버린다. 나한들의 향연으로. 개미떼 같은 군중 속의 나한들을 들여다보면, 모두 제 각각이다. 제 각각의 용모에 제 각각의 일에 몰두하고 있다. 개성이 넘친다. 그리고 이들 나한들의 모습을 하나하나 들여다보고 있노라면, 마음이 따뜻해져 온다. 그 이유는 너무나 소탈하고 인간적이기 때문이다. 나한이라고 하면 왠지 근엄하고 단정하고 정갈해야 할 것 같다. 게다가 나한의 경지는 육신통까지 부리기에 왠지 범접하기 힘든 수승한 모습이어야 할 것 같다.

하지만, 이 작품 〈오백나한도〉에서 확인되는 것은 천태만상 인간미 넘치는 스님들의 모습이다. 수행에 몰두하다가 머리털과 턱수염으로 온통 털북숭이가 된 스님과 이것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진 스님, 까마귀에게 모이를 주며 소일하는 노스님들, 아귀들에게 쌀 단지 내어주는 스님과 굶주린 이들을 안쓰러운 눈으로 쳐다보는 스님, 개천에 발 씻고, 또 빨래하는 스님들, 차 마시는 스님들. 이렇게 일상적인 친근한 모습들도 있지만, 신통을 부리는 모습들도 있다. 봉황, 호랑이, 코끼리 등을 아무렇지 않게 타고 다니는 스님들, 용을 손바닥에서 자유자재 부리고 있는 스님, 거대한 구렁이의 똬리를 방석 삼아 앉은 스님, 하늘을 가볍게 비상하는 스님, 외각수 등 신비한 동물과 노니는 스님 등. 이렇게 육신통을 부리지만, 모두 대수롭지 않다는 듯 자연스럽게 이것들이 일상적 장면으로 녹아 있다.

'성냄과 성욕' 완전 소멸, 나한의 경지

'나한(羅漢)' 이란, '아라한(阿羅漢)' 의 줄임말이다. 우리는 〈금강경〉에 나오는 사과(四果, 깨달음의 4단계, four stages of enlightenment)를 통해, 익히 부처님 당시 제자들이 매진했던 수행의 등급을 알 수 있다. 이는 수다원(예류과, 預流果) · 사다함(일래과, 一來果) · 아나함(불환과, 不還果) · 아라한(아라한과, 阿羅漢果)으로 나뉜다. 첫 단계, '예류' 는 '깨달음이라는 흐름에 들어갔다' 라는 뜻이다. 번뇌보다 알아차림이 더 많고, 불선업보다 선업이 더 많은 상태이다. '일래' 는 이제 '한 번만 더 갔다 오면 된다' 는 뜻이다. 어디를 갔다 오느냐하면, 이 세상(욕계)에 한 번만 더 갔다 오면 된다는 것이다. 윤회가 한 번 밖에 안 남았고, 이제 법계에 영원히 머물 수 있는 시점이 코앞이다. 불교의 관점은 그 기준이 언제나 법계이다. 그러니 이 세상(차안)이 아니라 모두 저 세상(피안)을 중심으로 기술된다는 점을 상기하면, 경전이나 법문에 대한 이해가 빠르다.

'불환' 은 '더 이상 돌아갈 일 없다' 는 뜻이다. 더 이상 욕계로 윤회하지 않는 경지이다. 마지막으로 '아라한' 은 '열반에 이른 고귀한 성자' 라는 뜻으로 응공(應供) · 응진(應眞)으로 번역된다. 또 더 이상 배울 것이 없으므로 무학(無學)으로 번역되기도 한다.

이렇듯, '아라한' 또는 '아라한과' 는 붓다의 제자들이 도달해야하는 이상형이자, 제자들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를 일컫는다. 이때 최고의 경지란 탐 · 진 · 치를 완전히 소멸한 상태를 말한다. 더 쉽게 표현하자면, '성냄과 성욕' 이 완전히 없는 경지를 아라한이라고 한다.

그런데 여기에 소승과 대승의 갈림길이 있다. 소승에서는 아라한을 목표로 하고 대승에서는 보살을 목표로 한다고 말한다. 아라한에 머물면 안 된다는 대승의 지침을 주지하듯, 〈법화경〉에 언급되어 있다. 팔정도를 완성하면 아라한은 되지만 부처는 못된다. 부처 · 보살이 되려면 십바라밀을 완성해야 된다. 바라밀 중의 바라밀은 보시바라밀이다. 석가모니께서도 전생의 무수한 보시바라밀을 통해 부처가 되었다는 것은 전생담을 통해 전해지는 사실이다. 〈금강경〉이나 〈법화경〉이나 아라한과에 도달했다고 거기에 상(相) 내고 머물지 말고, 부처 · 보살을 목표로 하라는 붓다의 말씀은 아직 흐름(예류)에도 들지 못한, 느림보 수행자(필자)에게는 요원하게만 느껴진다.

'유머와 해학', 한국 불화의 특징

나한들의 얼굴과 자태는 모두 제 각각 개성이 넘친다. 토굴 속에서 고독한 명상에 빠져있는 근엄한 모습, 개울가에 쪼그리고 팔 걷고 승복 빠는 모습, 공양 발우 설거지하는 바쁜 모습, 토론에 열중하는 진지한 모습, 시원한 물에 발 담그고 좋아라하는 모습. 유머가 넘친다. 이렇게 '유머와 해학' 이라는 요소는 한국의 불화에만 나타나는 특징이다. 〈관세음보살32응신도〉, 〈지옥도〉와 〈감로도〉 등 우리 전통 불화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공통되는 성향이다. 하지만, 중국이나 일본 등 여타 나라의 불화에서는 결코 찾아 볼 수 없는 특징이겠다. 모름지기 근엄해야 마땅한 불교미술에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요소이겠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것은 감상하다 보면, 빙그레 그만 웃게 된다.

〈지옥도〉의 경우, 중국과 일본의 것은 마냥 처절하게 무섭다. 무시무시한 불바다와 극사실적인 처벌 장면, 그리고 구원은 일체 없다. 하지만, 우리나라 것은 지옥의 고문 장면에 유머와 해학이 있어, 감상자로 하여금 웃음을 터뜨리게 만든다. 그리고 창과 칼끝에 '연꽃' 을 그려, 지옥의 징벌도 결국 깨달음을 위한 '방편' 이라는 것을 알려, 안심토록 해준다.

대승경전 상의 나한의 정의를 보면, '나한이란 육신통(6가지 신통력, 六神通)을 부려 색탐과 같은 욕망을 버리고 팔해탈법(8가지 해탈법 八解脫法)을 터득한 성자' 라고 한다. 신통이란, '헤아릴 수 없는 것을 헤아림' 을 '신(神)' 이라고 하고 '걸림이 없는 것' 을 '통(通)' 이라고 한다. 신통력에는 여섯 가지가 있는데, ①신족통(神足通 어디든 갈 수 있는 능력) ②천안통(天眼通 세상의 만물을 거리에 상관없이 마음대로 볼 수 있는 능력) ③천이통(天耳通 이 세상의 소리라면 무엇이든 들을 수 있는 능력) ④타심통(他心通 타인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능력) ⑤숙명통(宿命通 자신과 다른 사람의 전생 현생 후생을 모두 알 수 있는 능력) ⑥누진통(漏盡通 번뇌 망상을 모두 없애고 육도 윤회하지 않도록 깨닫는 능력)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1통에서 제5통까지는 외도, 신선, 천인, 귀신들도 할 수 있는 것이나, 제6통 누진통은 '아라한' 또는 '불 · 보살' 만 가능하다. 팔해탈법이란, 존재의 근원으로 작용하는 성욕을 소멸하고 모든 속박을 끊고 열반의 경지에 머무르는 것을 말한다. ①먼저 어떤 대상을 오로지 생각하는 것에 의해 욕정(欲情)을 제거하고, ②나아가 마음을 하나에 집중하여 정신을 통일하고, ③다시 외경(外境)으로부터 마음을 분리해, ④몸과 마음이 청정한 경지에 이르게 하고, 이 단계에서 ⑤주로 무한한 공간을 염하여 외계의 차별상을 멸하고, ⑥그 마음의 작용과 몸이 무한의 경계에 도달해, ⑦그 공간이나 마음의 경계를 초월한 근원에 이르고, ⑧그 근원이 항상 현실 위에 나타나게 되는 경지에 이르는 것이다.

이렇듯 모든 속박에서 자유자재한 나한들. 그 모습은 마냥 천진난만하고 자연스럽다. 경지에 이른 모습은 오히려 특별난 것이 아니었다. 소탈함 속에 비범함이, 비범함 속에 소탈함이 녹아있다.

〈중앙승가대학 교수〉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KBS 과학카페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박현숙 원장 출연(2010.2.6)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 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원장 010-7384-1708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 을 치세요.

靈영通통 비구·비구니 스님을 모십니다

▶ 모집대상 : ① 특별시·광역시 각 도별 종무원장
② 미륵보살(돌할머니 소원 비는 돌) 역할 각 1명
※ 참고사항 : 모집②번에 속하는 역할은 소정의 보증금이 있습니다.

▶ 모집자격 : ① 미륵부처님을 주불로 모셨거나 모실 분.
② 개인 사찰이나 공찰이지만 장기적으로 운영가능 하신 분.
(미륵보살 〈돌할머니 소원 비는 돌〉)

▶ 종무원장에게 드리는 혜택 : 현대의술로도 안 되는 간질, 정신질환, 여러가지 고질병 가정의 우환, 질고, 병고, 액란 완치법(상담결과에 따라 암치료도 가능)을 연합, 사·암으로도 가능합니다.

▶ 모집지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강화도,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광주, 대구, 울산, 부산, 제주, 거제도, 울릉도 등
19개소 종무원장님을 초빙합니다.



돌할머니 소원 비는 돌

자세한 내용은 아래로 연락 바랍니다.
문의 : 010-7321-0404

대한불교문수종 종 정 지광 / 총무원장 동진 합장

대인사 경남 거창군 거창읍 노혜2길 162

박원자의 母情佛心 ❻ 이동한 한국사회복지법인 협회장 어머니



▶ 한줄 요약
제주도에서 사회복지법인 춘강을 운영하는 이동한 한국사회복지법인협회장에게 어머니는 관세음보살이다. 이 회장의 어머니는 장애가 있는 자식이 자립할 수 있도록 가르쳤고, 남의 어려움을 먼저 생각할 것을 당부했다. 이는 아들에게도 그대로 전달됐다.

“힘든 이웃을 먼저 생각하라”



그림 · 박구원

소아마비로 다리가 불편한 아들
어머니는 항상 마음이 쓰였지만
홀로 서는 법을 먼저 가르 쳤다

‘어려운 이웃을 돌보라’는 가르침
장애인 사회복지 사업으로 승화

말쑥한 양복 차림에 지팡이를 짚은 이동한 회장을 전라도의 어느 사찰에서 처음 보았다. 얼굴은 바람 한 점 없는 들판처럼 평화롭고, 눈빛은 조용히 흐르는 강물처럼 깊어보였다. 40대 중반의 그는 제주도에서 사업을 하며 장애인들을 돕기 위한 일을 한다고 했다. ‘사회복지법인 춘강’ 대표 등 명함에 박혀있는 직함들이 온통 남을 돕는 일이었다. 그 후로 인연이 이어져 간혹 그를 만나게 되었다. 볼 때마다 언행이 단정하고 흐트러짐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다리에 찬 보조기를 푸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얼핏 보았지만 어린 아이처럼 가느다란 다리를 잊을 수 없다. 그의 다리 사용량이 건강한 사람의 40%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나중에야 알았다. 그 가는 다리를 딛고 사업에 성공하고 장애인 복지를 위해 수많은 일을 해왔다고 생각하니, 그의 지팡이가 어느 고승의 주장자보다 더 거룩하고 위대해보였다.

20여 년 넘게 보아오는 동안 그에게서 한 번도 성치 않은 몸 때문에 힘들고 어려웠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없다. 보통 사람보다 열 배는 더 왕성한 활동을 하는 그로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소리는 ‘관세음보살’ 이지 않았나 싶다. 그에게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부터는 그가 부르는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이 ‘아, 어머니, 어머니’ 로 들렸는데, 이는 아마 그에게 관세음보살은 곧 어머니를 의미했기 때문일 것이다. 일흔이 넘은 그는 지금도 어머니 이야기를 할 때면 목소리가 떨리고 눈시울을 붉힌다.

이 회장의 어머니는 43세에 지아비를 잃었다. 소아마비 판정을 받은 막내아들이 3살 때였다. 갑자기 가장이 된 어머니는 제주도에서 배로 16시간이 걸리는 부산을 오가며 포목점을 경영해 6명의 자식을 키웠다. 부지런하고 강인했던 어머니였으나 두 다리를 쓰지 못하는 막내아들이 늘 큰 아픔이었다.

그러나 손 놓고 있을 어머니가 아니었다. 어머니는 아들이 5살이 되던 해 아들을 등에 업고 부산으로 가는 배를 탔다. 그리고 부산의 가장 큰 병원에서 8개월 동안 아들의 소아마비를 치료했다. 그 후로도 제주도에 명의가 왔다는 소리만 들리면 달려갔다. 어머니의 지극한 정성으로 기어 다니던 아들은 양쪽에 보조기를 차고 지팡이를 짚으며 한 걸음씩 발을 떼기 시작했다.

7살 때, 처음으로 대문까지 힘겹게 20m를 걸어서 집 앞으로 펼쳐진 푸른 바다를 바라보던 어린 아들의 뒷모습을 어머니는 잊지 않았다. 내가 너를 좀 더 잘 걷게 하리라, 지혜롭고 강인한 사람으로 키워 남을 위해 큰일을 할 수 있게 하리라 다짐했다. 그것만이 어머니가 부처님께 드리는 서원이며 기도였다. 아들은 그 기도의 힘으로 성장했고, 머지않아 어머니의 서원을 현실로 이뤄냈다.

어머니는 오로지 ‘관세음보살’ 을 불렀다. 아들이 한글을 떼자마자 머리맡에 〈천수경〉을 두고 읽고 외우게 했다. 어머니에게 부처님은 집안을 돌봐 주는 막강한 수호신이자 의지처였다. 모든 일을 기도로 해결했다. 아침에 일어나면 깨끗하게 손질한 흰 한복으로 갈아입고 장독에 물을 떠놓고 마당에서 떠오르는 해(일광보살)를 바라보며 절을 올렸다. 비가 오는 날엔 대청마루에 올라가 기도를 드렸다. 저녁엔 항아리에 물을 가득 부어놓고 부엌에 모신 조왕대신에게, 밤이 되면 치성광여래에게, 보름날엔 밤하늘로 환히 떠오르는 달(월광보살)을 향해 ‘그저 자손들이 총명하고 다재다능해서 부처님 성현들을 공경하고, 조상님께 효순하고, 형제간에 우애 있는 착한 사람이 되도록 해달라’ 고 기도했다.

어머니는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이 몸에 밴 분이었다. 불쌍한 사람, 배고픈 사람, 몸이 불편한 사람, 사정이 딱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못했다. 밥 한 끼라도 먹여 보냈고 잠자리가 없는 사람은 집으로 불러 재워 보냈다. 쌀을 들여오면 부처님께 공양 올릴 것부터 담아놓고 다음으로는 제사 명절 때 조상님을 위한 것으로, 나머지는 걸인, 식구들이 먹을 쌀로 나누어 보관했다. 아픈 다리로 인해 밖에 나갈 수 없었던 아들은 늘 어머니곁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어머니의 말씀, 일거수일투족이 다 가슴에 차곡차곡 쌓여 그의 것이 되었다. 그래서 자신이 아버지가 되었을 때 어머니와 똑같이 자식을 위해 기도하고, 어머니가 이웃을 섬겼던 자비 보살행을 장애인을 돕는 사업으로 이어갔다.

어머니는 아들을 조금이라도 더 잘 걷게 하고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 지치지 않고 있는 힘을 다 쏟았다. 아들을 데리고 마당에서 걷기 연습을 시키던 어느 날 라디오 뉴스에서, 미국에서 소아마비 수술을 전수받은 한국 교수들이 서울 병원에서 수술을 한다는 소식을 접하고는 그 길로 아들 손을 잡고 서울로 향했다. 2년 6개월에 걸쳐 16번의 수술과 치료를 받는 대장정 끝에 아들은 한 쪽은 보조기 착용으로, 나머지 한 쪽은 목발로 평형을 유지하면서 걸음을 걸을 수 있게 되었다.

어머니의 이러한 헌신과 사랑 앞에 아들은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물러설 수 없었다. 철없는 친구들이 ‘절뚝발이’ 라고 놀려대고, 운동회 때마다 서럽고 아프게 밀려왔던 소외감으로 몸을 떨었을 때도 가슴 아파할 어머니를 생각해 내색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아들이 말귀를 알아들을 때부터 늘 말씀하셨다.

“내가 항상 네 옆에 있어 줄 수는 없을 테니 혼자 살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무엇보다 배우는 일에 게을리 하면 안 된다. 배워야 일을 하고 너 혼자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다.”

어떻게 해야 혼자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이 회장에게는 평생의 화두였다. 혼자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절박함은 모든 장애인과 그 부모들의 고민이자 숙제라고 한다. 어머니는 아들이 이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이끌었고, 그 아들은 장애인들의 대부가 되어 그들이 그 숙제를 풀어가는데 큰 힘이 되어주었다. 이 회장은 장애인을 자식으로 둔 부모들에게 ‘자식에게 장애가 있다고 포기하지 말고, 사랑으로 품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기다리면 자식은 언젠가 자신의 재능을 발휘할 것’ 이라고 조언한다. 자신을 믿어주고 헌신했으며 지혜롭게 이끌어주었던 어머니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남보다 두세 배 부지런히 노력해야 내가 없어도 살아나갈 수 있다며, 어머니는 일요일에도 도시락 두 개를 싸놓고 새벽부터 아들을 깨웠다. 공사장에서 일하는 직원들보다 먼저 출근하고 늦게 퇴근해야 사람들을 통솔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어머니의 말씀은 자립해야 한다는 의지는 물론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더 도전해서 자신과 같은 장애인들을 돕고 살겠다는 꿈을 갖게 했다.

어머니는 항상 진실되고 부지런한 사람이 되라고 가르쳤다. 마음이 진실하면 하늘이 움직이고 근면하면 땅이 움직인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라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하셨다. 그것은 어머니가 살아온 길이었다. 삶 자체가 진실되고 한평생 부지런했으며, 남을 돕는 데 앞장선 분이었다.

그런 어머니를 보면서 그는 아픈 사람을 치료해주는 의사의 꿈을 키웠다. 그러나 성치 않은 다리로는 불가능했다. 그래서 기술을 익혔다. 어머니의 수도 대행 사업을 자주 돕다가 자연스럽게 수도공사와 관련된 일이 눈에 들어왔고 20살에 계량사 자격시험에 합격해 제주도 최초 계량사가 되었다. 장애인들이 단순한 노동이 아닌 머리를 쓰는 일도 할 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던 시절, 최연소 상수도 시공기술자 자격증을 딴 것은 아들을 강하게 키워 자립할 수 있도록 온 정성을 기울였던 어머니의 덕분이었다.

아들은 상수도 사업과 택시미터기 사업으로 큰 성공을 이루었고 이것이 재정적 토대가 되어 23살에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었다. 25살에는 제주공항 조경 사업을 맡아 장애인 복지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물적 토대를 마련했다. 성치 않은 자식이 이만하면 됐지 하고 물러섰더라면, 제주도 최초의 장애인복지관을 설립하고 우리나라 최초이자 유일하게 장애인 복지에 필요한 교육사회, 의료, 직업재활을 갖춘 오늘날의 ‘사회복지법인 춘강’ 은 없었을 것이다.

“철심을 박은 다리에 지팡이를 짚고 일하며 번 돈인데 그냥 은행에 저금해 놓고 편안하게 살라고 하셨으면 복지 일을 시작 못했겠죠. 어머니는 아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무한히 신뢰하고 후원해주셨어요. 내가 죽고 없어도 잘 돌봐달라며 어머니 주변 분들에 인사시키며 부탁하셨죠. 저는 저대로 어머니에게 누를 끼쳐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으로 살다보니 신용을 쌓아 살아가는 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모든 원동력은 아무래도 부처님을 믿는 마음이었겠죠?”

“신심이 대단하셨어요. 어머니는 항상 어려운 절을 찾아다니며 도우셨어요. 어렵고 소외된 사람을 거두어들이는 곳이 절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절이 잘 되어야 한다고 하시며 화주를 도맡아 하셨죠. 살기 힘든 시절에도 권선을 하며 어려운 분들이 복을 짓도록 이끄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가는 절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고 어려웠던 절들이 금세 일어설 수 있었어요. 그러고 나면 어머니는 다시 어려운 절로 발길을 돌렸는데, 돌아가실 즈음에도 저에게 당신 대신 어느 절을 도와주라고 부탁할 만큼 신심이 깊으셨어요.”

어머니는 83세에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을 두고 세상을 떠났다. 이 회장은 7일장을 치르면서 단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못했다고 한다. 어떻게 하면 편히 잘 보내드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한다. 3명의 스님을 모셔서 하루 네 번 정근하며 여법하게 어머니를 보내드렸다고 하니, 효자도 그런 효자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효심으로 살면 불심이 드러나게 되어있다고 말하는 그에게 물었다.

“세상의 어머니들은 어떤 존재여야 할까요?”

“어릴 때부터 아이들은 부모의 뒤 꼭지를 보고 자라기 때문에 자식에게는 부모가 거울입니다. 내 뒷머리에 자식들이 보고 자라는 거울이 달려있다고 생각하면 올바르게 살지 않을 수 없죠. 그러다 보면 자식들도 부모님을 닮게 되고 그들이 구성원이 되어 살아가는 사회도 자연히 밝아지죠.”

이동한 회장의 어머니 오태인 여사야말로 세상의 큰 거울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자식이 비록 큰 장애를 가졌으나 포기하지 않고 지혜롭고 자비로운 사람으로 키워 어려운 이웃을 돕는 큰 인물로 만들어낸 어머니였으니, 장애를 가진 자식을 둔 부모들에게 오래도록 큰 귀감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그의 어머니는 한평생 부지런하고 진실하게 살며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이웃이 되었던 진정한 관세음보살이 아니었을까 싶다.

〈작가〉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얼과혼이담긴 우리민족의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 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루자죽염	125g	40,000원
가루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 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부처님 계신다는 건 법화경 있다는 것



지안 스님의 〈법화경〉 강설

⑪ 삼전십이행

그때 대통지승불이 시방의 범천왕과 16왕자의 청을 받아들여 곧 삼전십이행(三轉十二行)의 법륜을 굴리시니, 사문이나 바라문이나 천상이나 마군이나 범천들, 그리고 세상의 그 누구도 굴리지 못한 것이었다. 법륜을 굴리며 이르셨다.

"이것은 괴로움(苦)요, 이는 괴로움의 원인(集)이며, 이는 괴로움의 없어짐(滅)이며, 이는 고를 없애는 길(道)이다."

또 십이인연을 자세히 설하시니, "무명(無明)으로 말미암아 행(行)이 생기고, 행으로 말미암아 식(識)이 생기고, 식(識)으로 말미암아 명색(名色)이 생기고, 명색으로 말미암아 육입(六入)이 생기고, 육입으로 말미암아 촉(觸)이 생기고, 촉으로 말미암아 수(受)가 생기고, 수로 말미암아 애(愛)가 생기고, 애로 말미암아 취(取)가 생기고, 취로 말미암아 유(有)가 생기고, 유로 말미암아 생(生)이 생기고, 생으로 말미암아 노사(老死)와 우비(憂悲)·고뇌(苦惱)가 있느니라.

무명이 멸하면 행이 멸하고, 행이 멸하면, 식이 멸하고, 식이 멸하면 명색이 멸하고, 명색이 멸하면 육입이 멸하고, 육입이 멸하면 촉이 멸하고 〈후략〉"

〈법화경〉 '화성유품'에는 대통지승불(大通智勝佛)이 등장한다. 이 부처님은 과거 무량무변 아승지겁에 있었던 부처님이라 한다. 3천 진점겁(塵點劫) 이전에 출현했던 부처님이라 말하기도 하는데, 이 부처님이 출가하기 전에 왕이었으며 16왕자가 있었다. 이 왕자들도 부왕이 출가해 성도한 후에 출가하여 16사미가 되었으며, 이 16사미 중 마지막 막내가 석가모니의 전생의 사람이었다고 한다. 대통지승불이 본래 〈법화경〉을 설했으며 석가모니 부처님도 대통지승불로부터 〈법화경〉을 들었다고 한다. 중국의 천태종에서는 〈법화경〉을 삼설(三說)의 경전이라고 하였다. 이 말은 삼세제불(三世諸佛)이 과거에도 설하고 현재에도 설하며 미래에도 설하는 경전이라 부처님이 상설(常說)하는 본래의 경전이라는 것이다.

'서품'에는 대통지승불처럼 일월등명여래(日月燈明如來)도 무량무변 불가사의 아승지겁 전에 〈법화경〉을 설했다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통해 생각해 보면 부처님이 계신다는 것은 〈법화경〉이 있다는 것이다. 역사적 사실로 보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성도하고 초전법륜을 필두로 일대시교를 설하다가 말년에 이르러 설한 경이 〈법화경〉인데 법화법문 안에서 볼 때 〈법화경〉은 언제 설했다는 특정의 시점이 없다는 것이다.

이 장에서는 초전법륜의 내용이라 할 수 있는 사정제(四聖諦)와 십이인연법(十二因緣法)을 〈법화경〉을 설할 때 설하게 되었다고 한다. 삼전십이행(三轉十二行)이라는 것은 부처님이 사성제 법문을 설하실 때 고, 집, 멸, 도 각 제(諦)에 대하여 시전(示轉), 권전(勸轉), 증전(證轉)으로 세 번에 걸쳐 설하여 십이행(十二行)으로 말씀하신 것을 말한다. 시전이란 이것은 고(苦), 이것은 집(集), 이것은 멸(滅), 이것은 도(道)라고 사제 하나하나를 보여주는 것이요. 고를 알라, 집을 끊어라, 멸을 증득하라, 도를 닦아라. 하고 권하는 것을 권전이라 한다. 증전은 부처님은 스스로 고를 알아 집을 끊고 멸을 증득하려고 도를 닦았다는 경험을 말해주어 다른 이들로 하여금 부처님처럼 도를 닦아 멸을 증득하게 하는 것이다.

십이인연이 전개되는 순서를 무명으로부터 시작하여 앞의 지(支)에 의하여 뒤의 지(支)가 있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을 순관(順觀)이라 한다. 이는 중생에 나고 죽는 생사윤회의 과정을 설명하는 것으로 중생이 업을 지어 과보를 받는 미혹의 과정이다. 반대로 무명이 멸하면 행이 멸하여 하나하나 차례로 소멸되어 없어지는 과정을 관하는 것을 역관(逆觀)이라 한다. 원시불교에서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12인연법을 순관하고 역관하여 인연법의 실상을 깨달아 부처가 되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리고 이 12인연을 전생, 금생, 내생의 3세에 걸려 두 겹의 인과가 있다고 설하는 것을 삼세양중인과설(三世兩重因果說)이라 한다. 무명과 행의 두 지(支)를 과거생의 인이요. 식, 명색, 육입, 촉, 수는 현재생의 과가 되고 현재생의 애, 취, 유가 인이 되어 생, 노사의 미래생의 과가 있게 된다고 말한 것이다.

〈반야불교연구원장〉

범계했다면 바로 참회해야



임상희의 계율이야기

⑪ 포살과 팔관재계

오계(五戒)의 실천은 표면적으로 다섯 가지 행위를 삼가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올바른 삶을 살아가기 위한 덕성을 계발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오계를 실천함으로써 다른 존재에게 도움이 되어야 하며, 자신의 삶을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그런데 계(戒)를 받을 때의 마음가짐이 오랫동안 유지되지 못하거나, 간혹 불가피하게 계를 지키지 못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에 진실한 불자라면 참회(懺悔), 즉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깊이 뉘우쳐야 한다. 계를 받기 전에는 이전의 모든 잘못에 대해 깊이 뉘우쳐야 하며, 계를 받은 후에는 이전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해야 한다. 만약 자신의 잘못을 덮어 감추면서 변명하기에 급급하다면, 그 잘못은 계속 반복될 것이고, 그 죄는 더욱 증장(增長)할 것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잘못을 알아차렸다면 곧바로 그 잘못을 드러내어 뿌리 뽑아야 한다.

불교교단에서는 정기적으로 참회 의식이 행해지는데, 그것이 바로 포살(布薩, ⑤uposatha)이다. 이는 부처님 당시 바라문교(婆羅門敎)의 종교행사였던 우빠와사타(upavasatha)에서 유래한 것이다. 불교에 도입된 포살은 동일 지역 내의 비구들이 보름마다 만나서 지난 보름 동안의 행위를 스스로 반성하며, 죄가 있다면 고백해서 참회하는 행사이다. 매달 만월(滿月, 15일)과 신월(新月, 30일)이 되는 때에 바라제목차(波羅提木叉, ⑤prātimokṣa)를 외우는 것이 본래의 제도이다.

출가자와 달리 재가자는 공동체 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포살의 의미와 방법이 다르다. 재가자의 포살은 육재일(六齋日)에 팔관재계(八關齋戒)를 자발적으로 수지(受持)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재가자에게 매달 8일, 14일, 15일, 23일, 29일, 30일에 팔관재계를 받아서 지키도록 장려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팔관재계를 포살계(布薩戒)라고 부르며, 팔재계(八齋戒)나 팔계(八戒) 등으로 줄여서 부르기도 한다.

팔관재계의 원조적인 형태는 〈숫타니파타〉의 '다미카경'에 나온다. 즉 ①산목숨을 해쳐서는 안 되며, ②주지 않는 것을 취해서는 안 되며, ③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며, ④술을 마셔서는 안 되며, ⑤음사(婬事)인 부정한 행위를 여의어야 하며, ⑥밤에 때 아닌 식사를 해서는 안 되며, ⑦화환을 몸에 붙이거나 향수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⑧땅 위에 편 자리에서만 자야 한다.

〈중아함경(中阿含經)〉에는 팔관재계의 순서가 조금 다르지만, 그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이처럼 팔관재계는 오계에 세 가지 계를 더한 것이지만, 출가계의 성격을 띤다. 특히 오계 가운데 불사음계(不邪婬戒)는 팔관재계에서 불음계(不婬戒)로 바뀌는데, 평상시와 달리 재계하는 날에는 부부간의 성관계도 금지하기 때문이다.

늘 범행(梵行)을 지키는 단음우바새(斷婬優婆塞)에게는 해당되지 않겠지만, 다른 우바새들에게 재계하는 날만이라도 범행을 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불비시식계(不非時食戒)는 때 아닌 때[非時], 즉 그날 정오부터 다음 날 해 뜰 때까지 먹지 말아야 하는 계이다. 불가무관청도식만향계(不歌舞觀聽塗飾鬘香戒)는 노래와 춤 등을 보거나 듣거나, 꽃이나 향으로 분장하고 장신구로 치장하지 않는 계이다. 불좌고상대상계(不坐高床大床戒)는 너무 크거나 높은 침상에 앉지 않는 계이다. 이 세 가지도 재가자가 평상시에 지키기 어려운 계이다. 따라서 팔관재계는 재가자에게 잠시나마 출가계 가운데 일부를 지키도록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동국대 불교대학 강사〉



심재관 교수의 싯다르타 시대의 문화읽기

⑪ 고대 인도의 성씨(姓氏), 고따마

싯다르타 성은 왜 '고따마'였을까

석가모니 붓다의 이름은 고따마 싯다르타(Gotama Siddhārtha)였다고 말한다. 모든 후대의 경전들이 그렇게 반복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을 것이다.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진 사실이다. 여기서 고따마는 씨족의 성(姓) 즉 고뜨라(gotra)를 뜻하고 싯다르타는 이름을 뜻한다고 말한다. 이름을 굳이 풀어서 말하면, '좋은 소의 가문에서 태어나 목적을 성취한 사람' 정도가 될 것이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 석가모니의 이름이 매우 이상하다는 것을 금방 눈치 챌 것이다.

만일 고따마가 석가모니의 출가전 그의 성씨를 말한다면, 이는 그가 크샤트리아 계급이 아니라 브라흐만 계급이었다는 것을 말한다. 리그베다에도 고타마는 현자(Ṛṣi)의 이름(성)으로 등장하며, 고대 인도 논리학파의 철학 논서 〈니야야 수뜨라〉를 지은 이도 고따마로 전해진다. 베다나 라마야나에 등장하는 아할리야의 남편 역시 고따마의 또 다른 예일 것이다. 수많은 인도 경전 속에서 고따마는 명백히 대표적인 브라흐만의 성씨로 등장하며 이 점에는 예외가 없다. 이 외에도 고대 인도사회에서 유명하고 익숙한 브라흐만의 성씨는 카샤파(Kaśyapa), 바라드바자(Bharadvaja), 비슈바미뜨라(Viśvamitra) 등이 그것이다. 그런데, 왜 석가모니의 성씨는 어쩌다 브라만의 성씨인 고따마로 정했던 것일까.

성씨를 의미하는 고뜨라(gotra)라는 말 자체는 아마도 가족의 단위를 의미하는 의미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많은데, 'go'(소)에 'tra'를 붙여 '소를 지키는 사람' 정도의 의미를 만들어냈던 것이다. 소는 고대 인도사회에서 집안의 재산과 같았기 때문에, 재산을 함께 지키는 사람, 즉 같은 가족을 의미했을 가능성이 높다. 또는 '소를 지키는 울타리'의 의미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파생해 한 울타리에 사는 사람들 즉 가족 단위를 의미하는 뜻으로 사용되었을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뜨라는 '결혼을 같이 할 수 없는 가족의 단위'라는 점이다. 이미 기원전 4세기경에 문법학자 빠니니(Pāṇini)는 '고뜨라'라는 말이 가족의 단위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즉, 아들의 후손들을 고뜨라라고 하는 것이다.

따라서 같은 고뜨라 내에서는 결혼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고따마가 석가모니 당시 고뜨라의 하나였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이제 문제는 다소 복잡해진다. 왜냐하면, 석가모니의 아버지 정반왕이(마찬가지로 그의 고뜨라도 고따마라면) 마야부인이 죽고 재혼한 대상이 석가모니의 이모 고따미였기 때문이다. 고따미는 고따마에서 온 말이다. 즉, 고따마의 여인이라는 뜻이다. 싯다르따는 고따미(Gotami)의 손에 컸기 때문에 만일 고따미 마하빠자빠디와 싯다르따의 친모 마야부인이 친자매 관계라면, 싯다르타와 그의 어머니 마야부인은 같은 씨족이 되는 셈이다. 이것은 고대 인도에서 같은 고뜨라 내의 결혼을 금지하는 풍습과 맞지 않게 된다. 사촌간 결혼이 가능하다고 말할 수도 있겠으나, 그럼, 고뜨라 시스템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일 수 있는 것이다.

물론 마하빠자빠띠를 고따미라는 씨족의 이름을 붙인 것은 이미 정반왕과 결혼했기 때문에 정반왕의 씨족 이름을 붙여 그렇게 불렀을 것이라 추측해볼 수 있겠지만 이 역시 고대 인도에서 왕의 씨족 이름을 붙여서 부인을 그렇게 부르는 경우는 드물다. 즉, 결혼한 여자 측은 자신을 낳은 친부(親父)의 성을 빌려와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 라마야나의 여주인공 시따는 자나끼로도 불린다. 그것은 그녀의 아버지가 비데하의 왕 자나까였기 때문이다. 즉, 자나까 씨족의 딸이란 뜻이다. 결혼을 했어도 여성의 이름은 자신의 친아버지의 이름을 빌려서 쓰는 경우가 있다.

어쨌든 석가모니와 그의 이모가 같은 고뜨라일 수 있다는 후대 불교전통의 설명도 여전히 의문이며, 굳이 브라만을 대표하는 고뜨라, 즉 고따마라는 성씨를 석가모니에게 붙인 이유도 잘 해명되지 않는 부분이다. 석가모니가 전통적으로 히말라야 기슭의 농경사회에서 살아왔던 젊은이라면, 더 의문이 갈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베다문화의 주역들인 인도-아리아인의 씨족이 확산되어 이를 석가족 조상의 일원들이 받아들였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이다.

〈상지대 교양대학 교수〉

위빳사나 수행의 소의경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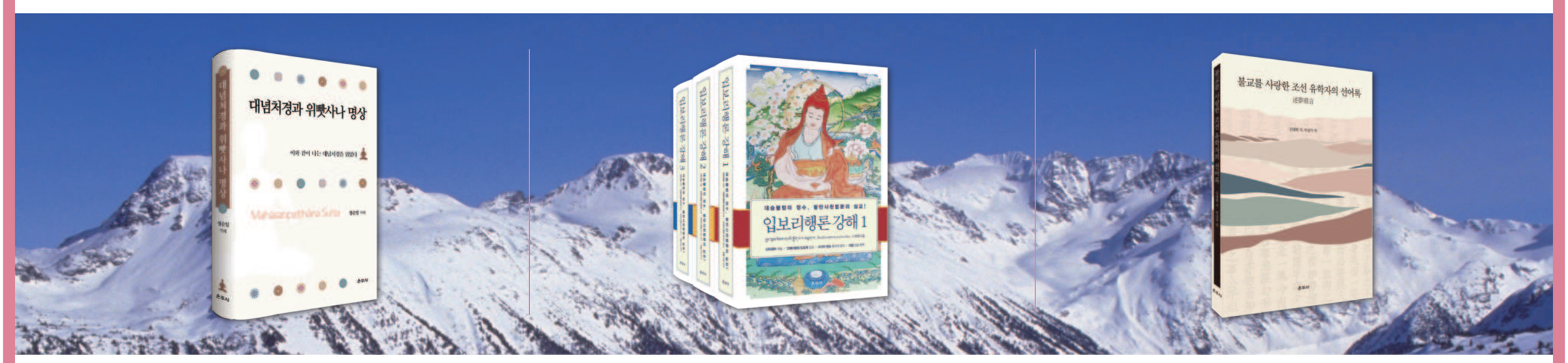
대념처경과 위빳사나 명상

티베트 수행자들이 반드시 배우고 수행하는 논서!

입보리행론 강해 1~3

조선의 유학자, 깨달음을 말하다!

불교를 사랑한 조선 유학자의 선어록



불교 명상의 핵심인 사띠(sati)에 대한 가르침을 담은
『대념처경』의 빨리어 전문을 한 글자도 놓치지 않고
온전히 번역하고 해설!

정순일 역해/신국판/양장/376쪽/값 22,000원

대승불교의 핵심인 보리심과 공성에 대한 샨티데바의
가르침에 진메이펑춰 린포체가 방대한 해설을 달았다.

샨티데바 게송/진메이펑춰 린포체 강설/지엄 편역
신국판/양장/1권 668쪽, 2권 656쪽, 3권 680쪽/각권 값 35,000원

<술몽쇄언述夢瑣言>
꿈이라는 소재를 통해 불교의 깨달음과 수행, 생사 문제를
조리정연하게 설파한 보석 같은 책!

김대현 저/박성덕 역/국판/208쪽/값 12,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 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4㎝ : 4만원/회 ◆가로 9㎝ : 8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 안내

1333호 | 17 | 전면광고

세상의 즐거움은 뒷날 괴로움이 될 것인데
어찌 그것을 욕심내고 집착할 것이며 한번
참아내면 뒷날 영원한 즐거움이 될 것인데
어찌 이를 알고 도를 닦지 않겠는가.



부처님 말씀 읽기 - 《발심수행장》에서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무형문화재 천수바라·작법무 연수원
1. 천수바라, 오공양 작법무
2. 다게작법, 운심게 작법무
3. 염불, 사물, 사주 명리, 회심곡
• 특별반 / 개인 3개월 과정 모집 •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
사 찰 행 사 전 문
(사)대한문화전통불교조계종
총무 010-5511-7000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점안,살풀이,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불 교 용 품
고 가 매 입 전 문
법당철거, 퇴불 정성을 다해 모셔드립니다. 소, 대불 탱화, 개금, 석불, 동불, 특수불 취급, 수미단 제작
이 조 불 교 재 활 용 센 타
010-9177-7842

사찰건축전문
문화재기능962호
대웅전 한옥별장
요사채 재실
누각 산신각
펜션(육송 나무목재만 사용)
원명 010-4300-9104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개인사암, 단독법인 가능함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0-5412-8040 법광

수강생 모집
• 기문둔갑, 실전해단풀이 특강
• 속성 5개월 과정 • 한문 몰라도 됨
• 원하시는 시간에 무료 청강 가능
• 스님 환영합니다
수강료(5개월) 기문둔갑 150만원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용지로95
스님 010-7589-5950

충북 감곡
봉은사
공양주 모십니다
010-5883-2255

★검 색★
GPN
손도사
최고 운명정보, 무료검색
문의 : 010-5105-5000

49재.천도재.점안의식대행
(바라,작법무,화청,살풀이,불교무용)
의식은 불교의 꽃,
40년 수행공덕으로
귀 사찰의 행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010-3263-6544
010-5270-8260

수강생 모집(그림)
• 수업 : 산수화, 풍속화, 달마도, 동자승
• 장소 : 서울 인사동 미술 교육관 (종로오피스텔 4층 401호)
• 매주 목요일 정오12시~6시 [월 4일]
• 수강료 : 월10만원
그림에 소질이 없어도 관심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그릴 수 있습니다. 연락바랍니다.
청곡 이한동 화백
010-3747-8692

부전스님
모십니다.
010-2078-9595

울산 관음사
공양주 모십니다.
010-4589-8188

○ 행자승(20세 ~ 45세) 비구니스님 모십니다.
○ 절에서 요양삼아 기도하고 소일하며 가족같이 지내실 보살님 모십니다. (50 ~ 60대)
경기도 양평 기도영험도량 천인사
031)773-7746 , 010-8777-1775

비구·남여 행자·비구니스님 종도모집
• 준비서류 : 수계증및 법계증
• 주민등록등본 1통
• 입종등록신청서(총무원비치)
• 승려증 발급, 수계증 발급
• 주지 임명장 발급
사단법인 참승조계종 010-5353-39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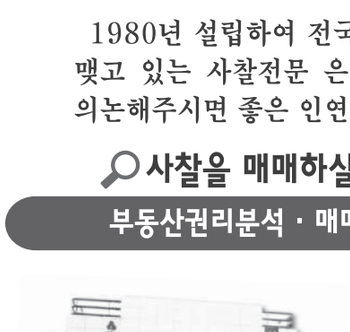
아주 특수한
기도법을 전수 (스님에 한함)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74-1 3층 백선사 대주 합장
☎ 02)963-1148 / 011-741-0867

관상(손금) 성철사주비법 전수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 송사재판, 암, 질병, 유산낙태, 교통사고, 이혼수, 부도, 사업실패, 묘터물찬곳, 조상영가, 승진운
• 스님, 무속인, 일반인, 철학인, 공무원, 불교 무용 배울분
• 출장 개인지도, 관상학, 손금, 성명학, 사주, 명리, 구성학, 타로, 조상영가 뽑는법
상담문의 010-4014-8822

명리·육효강좌
(연결카페http://cafe.naver.com/baikamsa 백암역리원)
영가반 ○ 초보에서 실천완성
명리·육효학 ○ 초보반 : 명리·육효 기초가 전혀없는 왕초보
○ 실전반 : 명리·육효 기초 완성자
백암역리원 02)597-1101
오시는 곳 : 사당역 8, 9번출구 먹거리골목200M

현대불교신문
구독 나눔 캠페인
현대불교신문에는 부처님의 따뜻한 자비의 말씀이 있습니다.
도반과 함께 구독하여 나눔의 기쁨을 누려보세요.
02-2004-8212

향로용 유리알 향운정주(수정모사)



▣ 상품명 : 향운정주 (수정모사)
▣ 재 질 : 크리스탈 유리알
▣ 용 도 : 법당향로, 개인향로, 법당 조화용 화병, 크리스탈 꽃병 등등 다양한 곳에 반영구적으로 사용가능
▣ 규 격 : 1kg : 13 x 15 x 3.5cm (종이박스) / 5kg : 14 x 15.5 x 18.5cm (종이박스)
▣ 특별공급가격 : 1kg : 10,000원 (배송비 별도)
5kg 1BOX (1kg X 5ea) : 50,000원/세트 (배송비 포함)
▣ 구입처 : 전화 : 02-732-1520 , 팩스 : 02-737-0696
▣ 계 좌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주)현대불교신문사
▣ 판매원 : 마하몰 (www.mahamall.co.kr) / 제조원 : ㈜바이넥스 / 원산지 : 대한민국

상품특성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맑고 투명한 작은 구슬로 향로에 사용하던 쌀 등 곡식이나 모래, 흙 등을 대체한 제품입니다.
● 모양과 빛이 아름다워 보는 이로 하여금 정결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향이 잘 꽂아지고 부러지지 않으며, 물로 씻어 정갈하게 대를 물려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 온도에서 원적외선이 방출되어 인체에도 유익합니다.
● 조화용 화병이나 크리스탈 꽃병에 사용하시면 투명한 빛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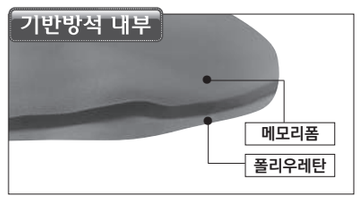
※ 향로에 들어가는 향로용 유리알 수량 (스텐 향로 기준)

종류		크기			수량
향로(스텐)	特大	지름: 20cm	높이: 18.5cm	내부: 13cm	5kg
향로(스텐)	大	지름: 17.5cm	높이: 18.5cm	내부: 11.5cm	3kg
향로(스텐)	中	지름: 13.5cm	높이: 16cm	내부: 10cm	1.5kg
향로(스텐)	小	지름: 12cm	높이: 12.5cm	내부: 8.5cm	1kg

세 계 최 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세로	32cm
높이(뒷면)	8cm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주문은 마하몰 TEL 02)732-1520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달마선의 참마음(眞心)으로 금강경을 풀이하다!

깨달음은
공개된 부처를 비밀스레 찾은 신앙이 아니라
밝혀지지 않은 자성불을 구현하여
제3의 생명으로 거듭남에 있음으로
남을 따르거나 흉내를 내어서는 안 된다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개정판!
~~19,000~~ → 16,150원
이창우 역주 | 46배판 | 양장 | 573쪽

현대불교신문사
구입문의 : 02)732-1520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알기쉬운
구 단 구 궁 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 종헌(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구단구궁법주」로서 자비의 방편학문인「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용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 활동 가능함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수강료	◆스 님 – 오십만원(책값 별도) ◆일반인 – 일백만원(책값 별도) ◆우체국 : 601401-01-001843(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부산 ❷,❸호선 덕천역 2번 출구 20m

구단구궁법 교실 cafe.daum.net/9dan9gung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198 (구포동 147-3) 3층 전층
전화 010-7415-0803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5㎝: 5만원/회 ◆가로 10㎝: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333호 | 18 | 전면광고

때와 처지를 살필 줄 알고 부귀와 쇠망이 교차함을 알라. 이것이 지혜로운 불자의 삶이니라.



부처님 말씀 읽기 - 《잡보장경》에서

광 진 불 사

◎위치 : 서울시
◎대지 : 300평
◎건평 : 100평,외
◎시내중심, 공원옆, 주차가
◎매가 : 40억

◎위치 : 경남
◎종교용지 : 약1800평
◎건평 : 40평외전각
◎종교시설, 요양시설추천
◎매가 : 8억

*40년세월,신용과,믿음으로일합니다. 출장상담받습니다. ***사찰관련 컨설팅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합니다.**
*신행상담, 사찰순례, 채권상담,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찰(급)안내

●위치 : 부산광역시 동래구
●부지 : 1천평, 건물 : 400평
●가액 : 39억
● 佛敎의現代化,佛法의生活化,布敎의大衆化 ● 불교컨벤션 ● 명상힐링캠프 ● 불교복지시설 ● 대한민국 불교의 미래를 선도(先導) 하려는 스님, 보살님, 거사님께 적극 추천합니다.

010-2822-1080

사 찰 안 내

●위치 : 전남 나주 동강면
●대지 230평(임대)
●법당 20평. 산신각 10평
●요사채 2동. 범종각
●영산강 전망이 좋음
●가액 : 3500만원

010-7637-1250

사찰(급)안내

●위치 : 경주시 시래동. 정남향
●대지 194평. 건평 43평
●법당. 칠성. 산신. 용왕. 나반. 방
친견실. 공양간. 샤워실. 화장실
●외부시설 : 용왕연못. 탑. 남여화장실 등
●시설일체. 최고입지요건 갖춘 암자
●가액 : 2억 3천만원(급양도)
●사전 전화요망

010-5427-3699

포 교 원 안 내

●위치 : 대구시 동구 지하철
역세권 대도로접3층
●약 50평, 도시가스, 옥상사용,
주변주차시설양호
●보증금 500만, 월 45만
●시설비 1300

010-7337-5956

사 찰 안 내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양평역 5분거리)
●대지 : 300평 현대식 건물
●건물 : 대웅전 30평 1동 / 카페,
공양간 30평 / 요사채 23평 2층 건물 1동
종무소, 객방 13평 1동
●가액 : 10억(답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법회 즉시 가능합니다.

010-4813-2381

전원주택&토굴 안내

●위치 : 충북 보은군 내북면 성암가고로 36-32
●총1,024평 (계획관리지구)
●대지 285평, 건평 30평, 20평 강의실 10평
●지하수150m 약수물, CCTV, 화목,기름보일러
(전기판넬), 탁트인 들판, 뒤에는 산, 청정지역 명당터임
●기운 좋은 토굴, 접근성좋은 도로, 주차시설 넓음
●가액 : 답사 후 결정

010-5458-2258

사 찰 안 내

●위치: 경남 창원시 마산근교
●법당: 55평 ●요사: 75평
●대지: 500평 ●임야: 4천평
※지하150m 석수 1일
200톤이상 생산가능
●가액 : 11억(대출 2억5천 포함)

010-4547-0023

토 지 안 내

●위치 : 화순군 도암면
우치리
●절터적합, 남향, 긴동굴
있음, 계곡접합
●총17,470평, 전900평,
산16,570평
●가액 5억5천만원
●상담환영

010-3618-6200

사 찰 안 내

●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대지 : 335평
●대웅전.삼존불.목불.목후
불탱화.목조단청12평.
요사채.방3개.목조단청19평.
공양간.방1개.7평목조단청.
화장실 남.여(목조단청)
●상담 후 결정

010-3206-6622

사 찰 안 내

●위치: 북한산(삼각산) 자락에 위치한 절임
●건물 : 법당, 산신각, 평수 : 600평
●가액 : 5억 5천(절충가능)
●조건: 양도시 모든 기물포함(불상,불화등기타)
●주변 주차시설 양호함, 도시가스, 상수도임
●대중교통 편리함(도보로 5분 거리임)
●위치는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쪽

010-3128-2399

지리산 작은암자

●위치 : 경남 하동 적량면
작은암자
●인법당, 별채 두동
황토방 하나
●가액 : 2억 5천

010-6770-8163

멋진토굴(급)안내

●위치 : 경북 김천시내 인근
●대지 : 약 717평방(약 217평)
●멋진 2층건물 1층 방5개 기도처(2층 방3개, 거실, 주방,
밖 휴게공간), 마당, 잔디, 조경좋음 주차공간 확보
●가액 : 3억에서 5천 빼드림(조정가능)
●사정상 시세이하로 계산함

010-3007-5611

사 찰 안 내

●위치 :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부지 : 1648평(대지 927평)
●대웅전(25평). 지장전(15평).
독성각(5평). 목조건물
●요사채 : 조립식 건물 25평.
황토방 7평. 5평
●납골당 5000개 가능
●가액 : 12억(가격절충)

010-5421-1536

사찰 안 내

●위치 : 전남 해남군 소재
●대지 : 350평
●구조 : 철근 콘크리트조
●건물 : 약 80평
(법당, 요사채)
●가액 : 4억 8천만원

010-7710-8334

포 교 원 안 내

◈◈◈
동대문구 왕산로
60평 11년차
◈◈◈

010-3714-1018

사 찰 안 내

●위치 : 경남 진주시내
●대지:100평 ●건물:법당25평.요사채
30평(방3개.큰다락방.다용도실.공양
간.화장실2개) ●해수 관세음보살 입
불상(7m) ●부처님 진신사리3과(기
증) ●가액:3억(대출6천만원 포함)절
충가능 ●전.월세가능
●시내지만 조용하고 즉시 법회가능

010-2678-3499

포 교 원 안 내

●위치 : 경기도 여주시 흥천면
-흥천이포IC 5Km
(이천 여주 광주 시내 25분거리)
●대지299평, 건물 2채 주차시
설, 목조 한옥집(24평), 법당
사무실 방 주방 화장실, 요사
채(18평), 방2개 화장실2 주방
●가액 5억5천만원(절충)

010-6355-6468

사찰 (급) 안내

●위치 :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도심속 산중사찰(위치 좋음)
●법당, 삼존불, 탱화 완벽, 산신각, 현대식 요사채
●양도가 : 9,500만원(지상권), (년간 도지세 20만원)
●조용하고 경치좋은 암자, 토굴기도 비구 비구니
스님, 역학하시는 스님, 보살 최적의 장소

010-7677-8385

사 찰 안 내

●위치 : 제천시 중심가
●대지 약 80평
●법당 15평
한옥요사채 30평
●수행과 포교 적합한 곳
●가액 : 1억 5천만원
●몸만 오시면 됩니다.

010-8478-3234

포 교 원 할 분

●위치 : 서울 강서 화곡동 시장
옆 20평 2층
●보증금 300, 월 45 코너 남향
●공양주, 부전 일할분, 쓸분
결혼할 분 신청하세요.
●신청인 남(50세) 국가자격증
소유, 회사운영
●여(41세) 외동딸, 자영업

010-5381-1419

사찰(급)안내

●위치 : 서울시 세검정 (광화문
까지 자동차 10분)
●대지 84평 / 국유지 70평 (사용가)
법당 / 요사채 76평
●양도시 모든 기물포함(불상,불화등)
●가액 13억 5천만원

010-6325-5112

◈ 사암등록 및 입종안내 ◈

▣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각1통
· 승적원부 및 증빙서류(총무부 비치)
· 사·암 전경, 내·외부사진
· 반명함사진 6매(장삼, 대가사수함)

▣ 상세한 내용 총무부 문의
· 제출한 서류일체 반환불가
· 세무서 고유번호 발급서류
· 사암등록증 및 승려증 발급
· 제반서류 총무부 비치

T. 033-532-1773 / F. 033-532-1774 불교대승 조계종 총무원

무료灸쑥뜸 수행정진하는 사부대중님께 쑥뜸공양 올림합니다.
장소 : 강원동해 향운암 상담 : 010-2873-3446

인천 사찰안내

●위치 :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만수소
방소 건너편) ●평수 : 단독건물, 지하1
층, 지상3층, 건평 110여평 ●건물 : 지
하1층:창고형, 1층:공양간(방3개, 화장
실) 2층:방3, 화장실, 3층:법당, 3존불,
지장불상, 칠성, 산신 ●가액 : 3억 5천
(시세이하, 급양도함, 사찰연력 40여년)
●답사 하실분만 사전전화 요망

010-8360-8259

사 찰 안 내

●위치 : 밀양시 무안면
●약 1400평
●건물 4동, 정동향,
●조경이 잘 되어있음
●가액 : 6억 8천

010-5023-1093

전 원 주 택 지

●위치 : 밀양시 단장면
구천리, 정남향
●계획관리지역 515평,
조경완비
●138평 대지, 토목공사 완료
●대지 198평 전원주택
●가액 : 5억 5천

010-5023-1093

◑ 입 종 안 내 ◐

입종 및 사찰 등록(제출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1통, 호적등본 1통
② 승적원부(본종 소정양식 : 총무부 비치)
③ 승적증빙서류(타 종단 승려는 승려증 사본)
④ 사찰 전경, 내 • 외부 사진 각 1부
⑤ 반 명함 사진 5매(대가사를 수한 사진)

참고사항
① 각종 구비서류는 최근 3개월 내 발행된 것으로 제출
② 제출된 서류는 반환치 않음

총본산 : 충남 부여군 세도면 세도북로 149번길 34 마강사
전화 041)832-4153 **팩스** 041)833-4154

우리불교조계종 총무원 Tel 010-6478-1569

현대불교신문
후원 나눔 캠페인

법보시 후원은 최상의 공덕입니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세요.

02-2004-8212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 전국 지사 안내

구독신청 기사제보 광고게재

항상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사명	지사장	연락처	
대구지사	손문철	T 053-768-8008	H 010-2813-8008
부산지사	이도경	T 051-405-9402	H 010-5640-8883
광주전남지사	양행선	T 062-512-5003	H 010-2629-1508
전북지사	조동제	T 063-910-8977	H 010-8642-7733
경남지사	성낙두	T 051-512-1761	H 010-3860-7008
영주지국	박영애	T 054-634-3429	H 010-9373-3778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

놀라운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석 염주 · 합장주 · 지키미

희담석이란? 희담석(稀潭石 / Batu Hitam)은 대규모의 화산 폭발로 인해 지구 깊숙이 묻혀 있던 무기물들이 용암과 함께 분출된 후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단단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현지 주민들은 이 돌을 옛부터 치료용으로 사용 해왔는데, 그 중에서도 성분 분석과 원적외선 파동 검사를 통해 인체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여 실용화 한 것이 바로 【희담석】입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부를 만큼 생명체에게 유익하며, 방출되는 원적외선의 질과 양은 타 제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납니다. 따라서 세포의 활성화를 통한 최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희담석 합장주(12mm) 판매가 : 12,000원 ➡ 10,000원
- 남자와 여성분들의 손목에 맞추어져 있음.
- 재질 : ABS, 희담석 50%
▪ 팔목이 늘 빠근한 분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앉아 있는 운동이 부족한 불자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희담석 지키미 판매가 : 20,000원
희담석 지키미는 놀라운 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 원석을 휴대하기 간편하도록 제작한 제품입니다.
평상시 주머니에 넣어 다니거나, 틈나는 대로 특정한 통증 부위에 사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희담석108염주(8mm) 판매가 : 39,600원 ➡ 35,000원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수행증진을!!
구성 : 희담석 108염주
크기 : 직경 8mm "희담석 8mm염주는 차걸이용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불교문화상품 전문몰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구매전화 1688-9099 / (02)732-1520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법헌 스님의
만다라&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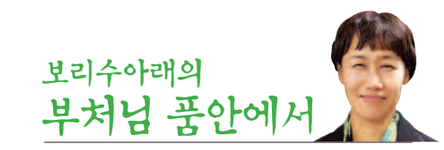
금강부원
(살타원)

태장만다라 중대팔엽원 남방에 위치한 부원으로서 금강부원 또는 살타원이라고도 한다. 본원에서는 주존인 금강살타를 비롯해 21존과 사자 12존으로 총 33존으로 구성돼 있다.

금강을 실담범자로 바즈라(vajra)라 하는데 이는 금속 중에서 가장 강한 금강석 또는 다이아몬드를 말한다. 경론에서는 주로 무기와 보석으로 표현 하는데, 무기라 할 때는 금강저(金剛杵)로 표현하고 예리하고 견고함을 금강석(金剛石)에 비유한다. 보석으로 비유 할 때는 다이아몬드를 말하는데 이는 곧 반야를 체(體)에 비유(譬喩)하며 실상반야(實相般若)를 나타내고, 반야의 쓰임(用)으로는 관조반야(觀照般若)를 나타낸다.

연화부원에서는 자비 원력으로 중생을 제도한다면, 본원에서는 지혜(智慧)를 원력으로 중생을 제도한다.

〈동방불교대학 실담학 교수〉



보리수아래의
부처님 품안에서
⑥ 청각장애인 정인순 씨



광림사 대소사를 돕고 있는 정인순 씨(왼쪽)가 해성 스님과 함께 불단에 올릴 꽃꽂이를 하고 있다.

꽃꽂이 공양 신심에 장애는 없다

연화원 해성 스님을 뵈려고 광림사로 가는 길은 완연한 봄볕으로 따뜻했다. 광림사에는 반가이 맞아주시는 스님의 "어서 와요" 하는 한마디와 법당 한쪽에 놓인 꽃꽂이용 꽃다발의 향기가 어울려 봄이 가득하였다. 연화원의 발달장애 친구들과 안부가 궁금했던 청각장애인 정인순 씨를 만나는 일도 기분 좋은 일이었다.

마침 정인순 씨는 불단에 올릴 꽃꽂이 꽃을 준비하고 있었다. 카네이션, 버들강아지 등 꽃을 한 송이 한 송이 꽂아가는 손놀림이 능숙하고 얼굴에는 기쁨의 웃음이 떠나질 않았으며 꽃꽂이 솜씨는 전문가 못지않은 뛰어난 실력으로 보였다. 그의 꽃꽂이 실력은 2000년 연화원에서 여성 청각장애인들에게 실시한 꽃꽂이 교실에서 교육을 받은 덕이고 청각장애인들을 중심으로 광림사 1층에 열렸던 꽃집 '꽃 사랑 소리사랑' 에서 일하면서 자신감을 얻었다고 한다.

옆에서 꽃꽂이를 도와주시던 해성 스님께서는 대학생 수어동아리와 연계하여 청각장애가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작은 한글교실에서 한글을 공부했던 정인순 씨 이야기를 해주셨다.

늘 한글교실의 모범생이던 당시를 회상하며 일곱 살짜리 아들이 글을 배우면서 모르는 것을 물을 때 대답해 줄 수 없었던 것이 안타까웠는데 아들과 같이 공부하고 책을 읽을 수 있어서 좋다고 강조했던 말은 잊히지 않는다고 하셨다. 정임순 씨는 나와 스님의 대화를 보다 법회 때마다 엄마와 함께 한글을 배우던 그 아들이 올해 대학생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전해주었다. 비장애인인 아이가 청각장애가 있는 부모 밑에서 크다 보면 조금 늦은 편인데 잘 자라 주어서 고맙다고 덧붙였다,

정인순 씨는 광림사에서 공양주 역할을 하고 있다. 재가 있을 때면 장보기 상차림 등 재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고 기타 대소사에도 솔선수범한다고 한다. 직업재활시설인 연화원의 발달장애원생들의 오후 간식을 준비하는 일도 하고 있다.

함께 일하시는 두 노보살님께서 수화로 간단한 대화를 하시는 것은 참 좋은 모습이었다. 노보살님은 처음엔 표정과 눈빛으로 의사소통을 했는데 함께 일을 하다 보니 저절로 수어를 익히게 되었다고 하셨다. 처음부터 수어를 배워 청각장애인을 대해야지 하면 평생 할 수 없고 먼저 마음을 열어 같이 생활하다 보면 수어도 배우고 소통도 잘 된다고 하는 노보살님의 말씀은 의미가 크다.

오랜 세월 동안 해성 스님의 살핌으로 성장하여 오늘의 생활을 할 수 있었다고 고마워하는 정인순 씨에게 해성스님은 언제나 광림사에 와서 부처님을 위해 봉사와 수행을 하니 고마우며 안정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넉넉하게 해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말씀하셨다. 스님은 겸손하게 말씀하셨지만,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장애불자들의 자립생활을 도울 좋은 모델을 보여주신 것이다.

청각장애인들은 장애 특성상 손과 발은 자유로워 이동과 활동에 제약이 덜함으로 사찰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다.

의사소통을 하는 데 처음에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서로가 이해하며 노력해 간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기독교에서는 장애인 목사가 많이 있고 가톨릭에서도 세계 최초 중증장애인 윤석인 수녀와 같은 예가 있다. 불교에서는 장애인이 출가를 할 수 없지만 부처님법을 전하는 포교의 일선에서 포교사, 종무원과 불교연구원 등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들이 주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새로운 콘텐츠들이 개발되어지는 요즘 아주 단순한 업무에서부터 전문적인 종무행정까지 장애불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다양할 것이다. 고정관념의 틀만 조금 바꾼다면 가능하다.

어디선가 장애인 전문 인력이 없어 장애인들은 사찰에 가지 않고 대부분의 불자들은 장애인을 불쌍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다. 공감가는 말이다. 하지만 조금 깊이 생각해보면 부처님과 부처님 법을 전하는 스님들만큼 좋은 장애인전문가는 없으며 조금 불편해도 신심 가득 안고 사찰에 가고자 하는 장애인도 많다. 〈증일아함경〉에 보면 부처님께서 눈이 어둔 아나율의 바늘귀를 끼워주셨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는 있는 그대로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신 부처님의 모습이다. 스님과 불자 대부분의 마음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최명숙 보리수아래 대표〉

그림 족자

幸運(행운)과 福(복)을 선사하는

신묘장구 대다라니, 42수 진언

과거 무량겁에 걸친 불보살님들의 행적을 기록한 다라니를 이제 그림으로 만나세요.
다라니를 지니고 독송하는 사람은 그 진실된 힘의 옹호를 받고 서원을 이루게 됩니다.

소원하는 일에 해당하는 손모양과 진언을 외우면 관세음보살님이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관세음보살님이 손으로 보듬어 주시고 손안에 있는 눈으로 보고 살펴주심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42수 진언을 卍자 형상으로 배치하여 천수천안 관세음보살님의 위신력을 발휘하도록 하였습니다.



신묘장구 대다라니 족자 (레드)



42수진언 족자 (그린)



신묘장구 대다라니 족자 중의
'못자못자' 확대사진



42수진언 족자 중의
'여의수주 진언' 확대사진

법보시용으로 탁월하며 각 가정에 행운과 복을 선사합니다.
10개 이상 구매시 원하시는 문구를 새겨 드립니다.

제품명	신묘장구대다라니	42수진언
크기 및 가격	사찰용 100,000원 가정용 80,000원	
	사찰용 65×145cm 가정용 45×110cm	
색상	그린·레드	그린

특별증정 족자 구입시 10,000원 상당의 「마음에 평안을 주는 천수경」을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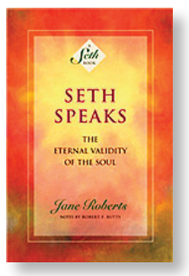
판매처 : 마하몰 ☎ 02)732-1520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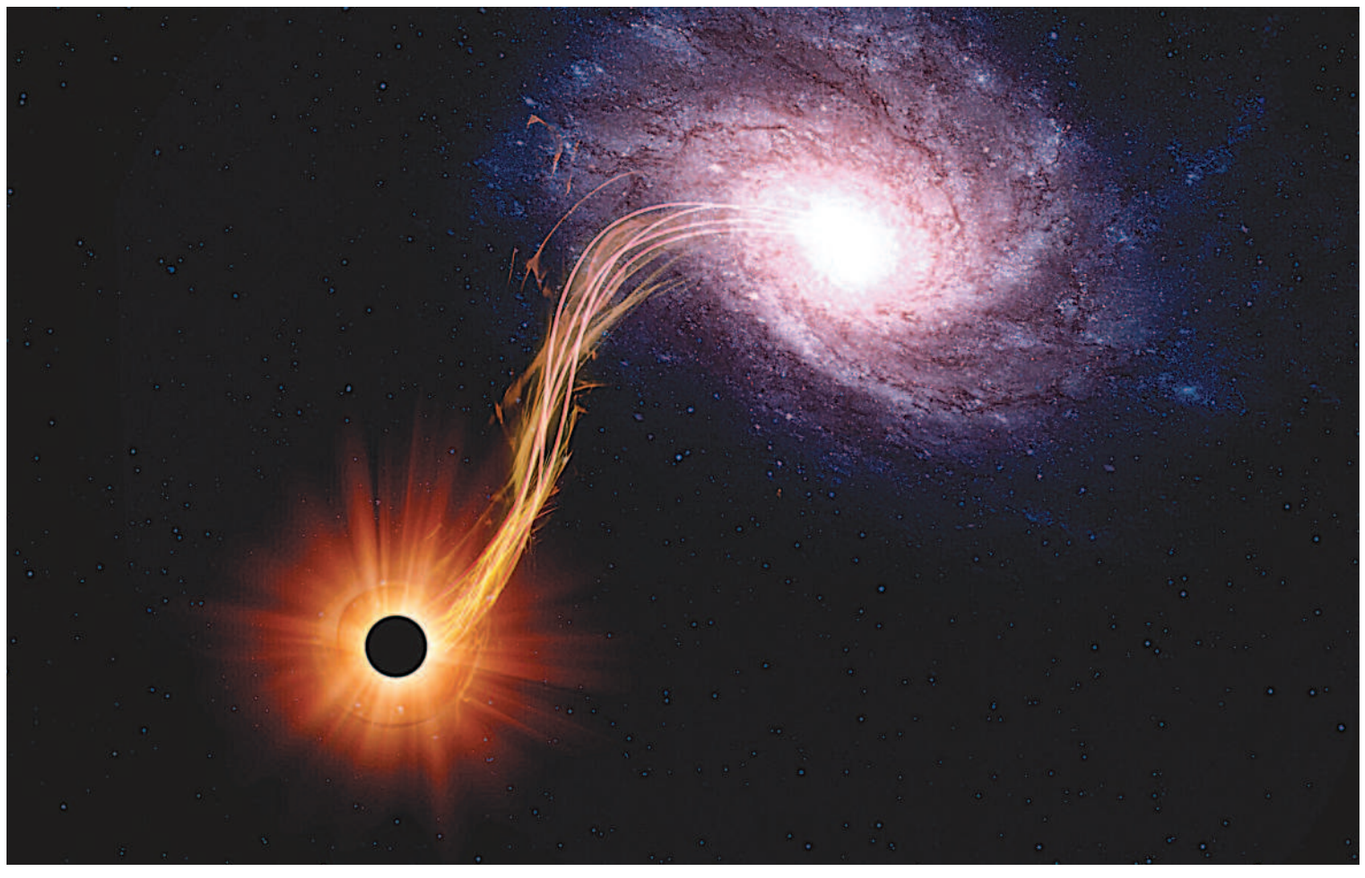
유영일의 '참나' 찾는 **행복한 책읽기** ❻ 제인 로버츠, "세스 매트리얼" ②



▶ 한줄 요약
프레임 벗어나면 고뇌와 갈등이 해소

한계 극복에서 참자유 획득을…





시간 여행과 의식의 영원성

기독교의 성경에는 기존의 과학으로는 아무래도 풀 수 없는 수수께끼 같은 서술이 다수 등장한다. 요한복음 8장 후반부에는 '자신이 말하는 진리를 믿고 따르면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예수와 아무래도 수긍할 수가 없는 유대인들이 치열하게 언쟁하는 장면이 등장한다. 진리를 깨닫는다고 해서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니, 이게 도대체 웬말인가? "아브라함도 죽었고 예언자들도 이미 다 죽었지 아니한가? 그런데도 누구든지 당신의 말에 따라 사는 사람은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다니, 당신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하단 말이오? 당신은 도대체 누구요?" 그들의 거친 항변에 대한 예수의 답변은 그들은 물론 후세 사람들에게도 엄청난 수수께끼를 남겨주게 된다. "당신들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날을 보기를 고대하면서 즐거워하였고, 마침내 그것을 보고 기뻐하였소." 아브라함이 죽은 지가 언제인데, 예수가 활약하는 모습을 보고 기뻐했다니! "아니, 당신은 아직 나이가 쉰 살도 안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단 말이오?" 여기에 대한 예수의 다음 답변은 더욱 더 미스터리이다. "내가 진정으로 당신들에게 밝히겠소.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소!"

헬라어 본문에서 옮긴 영어 성경은 분명히 "Before Abraham was born, I am!"이라고 현재형을 사용하지만, 한글판 성경 중 공동번역은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나는 있었다"라고 과거형으로 번역해 놓았다. 과거 현재 미래로 흐르는 직선적인 시간관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구절이지만, 이런 대목이야말로 예수의 됨됨이와 그가 말하고자 하는 '진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열쇠가 아닌가 싶다.

제인 로버츠가 채널링한 세스라는 존재는 인간의 두뇌 속에서만 존재하는 과거 현재 미래의 고정된 시간관념에 일대 혁명을 가져올 만한 발언들을 통해서 '시간 여행'이라는 것이 우리의 현실 안으로 얼마든지 편입될 수 있음을 누누이 강조한다.

"과거란 것은, 육체의 두뇌와 비육체의 마음 안에 있는 일련의 전자기적인 접속점으로서 존재합니다. 이러한 전자기적인 접속점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미래란 것은 마음과 두뇌 속의 일련의 전자기적인 접속점들로 구성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과거와 현재는 똑같은 정도로 실재합니다. 여러분은 현재의 행위가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현재 행위가 과거 역시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떠한 행위든지 다른 모든 행위를 변화시킵니다. 그러므로 현재 여러분이 하는 행위는 과거의 행위들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과거 속에서, 아직 발생하지 않은 일에 반작용을 가함으로써 여러분 자신의 미래에 영향을 끼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한 개인이 과거 속에서 미래의 사건에 반작용을 가함으로써,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시공간에 대한 우리의 관념은 우리의 신경학적인 프레임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나 '물리적 현실 안에 갇힐 수 없는' 우리의 부분이 있으니, 우리의 그 부분은 오직 '영원한 지금'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모든 것을 아는 그 부분이 우리의 전체 자아이며, 있는 그대로의 우리 자신이다. 그리고 '아브라함 이전에도 있는' 예수의 의식과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단군 이전에도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예수가 신과 동일시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신과 동일시될 수 있는 근거가 자리할 수 있게 된다. 모세가 만난 신이 자기 자신의 정체를 묻는 모세에게 "I am who I am"(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라고 했듯이, 예수도 "스스로 있는 자"이고, 우리의 본질 또한 "스스로 있는 자"인 것이다.

인간 세상은 신의 꿈 놀이마당

세스는 말한다. "여러분이 좋다면, 신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는 있겠지만, 그를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신은 한 개체가 아니라, 에너지의 총합입니다. 신의 에너지는 너무도 믿을 수 없을 정도여서 우주 전체를 형성할 정도입니다. 그 에너지는 모든 우주의, 모든 장과 시스템들의 안과 저변에 있기 때문에,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까지도 알아차립니다. 왜냐하면 신은 떨어지는 참새 자체이기도 하기 때문이지요."

내면의 자아는 무한한 우주
무궁무진한 지식·경험 창고
자아란 굴레를 벗어난 해탈
세상변화 새로운 단초 제공

그렇다면 세계는 어떻게 창조되었고, 창조되고 있는가? 신은 자신의 거대한 상상 속에서, 무한대의 가능성과 의식을 지닌 개인들을 본다. 이런 가능성 있는 개체 자아들은 신의 꿈 속에서 자기 자신들을 보고, 현실 속으로 자신들을 풀어 달라고 목청 높여 외친다. 신은 그들이 풀려 나가기를 열망하면서, 자기 자신 안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수단을 찾는다. 그리고는 마침내, 사랑과 열망으로, 신은 자기 자신의 부분들을 흘러나가게 하고, 그들은 자유를 얻게 된다.

"신은 자신이 창조한 가장 작은 미물에게서까지도 사랑을 느낍니다. 창조를 위해 번민의 상태에서 씨름했던 의식 하나하나의 독특함과 사랑스러움을 알기 때문입니다. 신은 각자의 의식이 성취한 저마다의 진보를 보면서 승리자처럼 기뻐합니다. 자기 자신의 표현이기도 한 이들 각자의 가장 하찮은 창조 행위에도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지요"

"존재하는 모든 것인 신의 모든 부분은 그칠 줄 모르고 변화합니다. 신은 자기 자신을 알기 위해서 끝없이 추구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추구하는 것이 창조적인 행위이자 모든 행위의 핵심이기 때문이지요."

개체적인 자아가 자기 자신을 알기를 추구하고, 신의 한 부분으로서의 자기 자신을 깨닫고, 스스로 한계 짓는 프레임을 열어젖히고 해체하여 신의 사랑에 접속하게 되면, 개체적인 자아가 안고 있었던 모든 고뇌와 갈등이 해소되는 자유와 해방감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개체는 자기 자신의 근원을 기억하고, 한때 신이 자신을 꿈꾸었던 것처럼 이제는 자신이 신을 꿈꾸게 된다. 웅대한 저 근원을 열망하고 동경하면서, 신이 만물을 창조했듯이 개체 또한 자신들의 꿈에 현실성을 부여하고 싶어 한다. 스스로 원한 결과로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개체가 영위하는 모든 삶은 사실 신의 창조성이 개체의 피 속에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내면의 자아는 사실상 무한 용량의 저수지나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서 얼마든지 지식과 경험을 끌어내어 쓸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것이든 선택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수많은 일들은 결국 이 깊은 근원의 반영이자 그림자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당신은 다차원적인 존재로서, 열정으로 가득 찬 이 우주의 드라마를 창조하고, 거기에 참여합니다. 그 드라마는 실현화의 기술을 터득키 위한 것으로, 무한한 창조의 근원 안에서, 진화의 끝없는 가능성 위에서 펼쳐집니다."

실현화의 기술

지구에서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개체적인 자아는 수많은 조건과 한계 상황에 갇힐 수밖에 없고, 한계 상황은 인간으로 하여금 결핍감과 함께 바람(욕망)을 안고 살아가게 하지만, 이미 부여된 신성(불성)의 창조력을 발휘하여 현실의 마스터이자 달인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에게 부여된 운명의 최종 목적지라고 할 수 있다. 세스는 말한다. "당신에게 주어진 가장 경이로운 선물은 무엇일까요? 생각을 외부로 투사함으로써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형상으로 창조하는 능력입니다. 당신은 깊은 무의식의 차원에서, 위대한 분별력과 초자연적인 투시력과 세포 하나하나에 대한 면밀한 지식으로써, 물리적인 형상을 지어냅니다."

세스는, 몇 해 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크게 유행한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해서도 수십 년 전에 이미 세세하게 발언한 바 있다. "강렬한 감정이 동반된 마음의 이미지는 물리적인 대상물이나 환경, 사건 등을 창조하는 일종의 청사진입니다. 느낌이나 생각, 마음의 이미지의 강렬함이 물질화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끌어당기는 자력이 강할수록, 물질화도 더 빨라집니다."

삶 속에 풍요를 창조하는 마음의 법칙을 세스는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마음의 이미지를 생생하게, 그리고 강렬하게 그리게 되면, 물리적인 사건으로 형상화되는 속도도 그만큼 빨라집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자체도 사실은 우리가 언젠가 꿈꾸었던 내용물들이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꿈을 지어 나가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물리적 현실을 지어 나간다. 현재의 불만족스러운 상황들도 사실은 아주 오래전에 우리가 꾸었던 꿈일 수밖에 없다. 지금 나의 형편이나 처지를 다른 사람들이나 환경의 책임으로 돌려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외부의 누군가가 우리에게 삶을 짐 지운 것이 아니다. 나의 삶은 물론이고 세상 전체가, 우리의 됨됨이 자체이다. 세상이란 우리가 지어 온 내면의 자아들이 꿈꾸어 왔던 것이 물질화되어 나타난 것이다.

그러니 지금 어떤 꿈을 어떻게 꿀 것인가? 그것만이 중요하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 입맛에 맞지 않더라도, 변화시켜야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지 다른 무엇이 아니다. 개인이든 집단이든 마찬가지다. 자기 자신의 의식을 확장하는 일, 이것만이 진정한 효험을 발휘할 수 있는 유일한 변화의 길이다. 〈작가〉

20회 세탁 후에도 90% 기능유지!
KOVI 기능성 비말차단 패션·구리마스크
FDA 등록



기능성 비말차단 패션마스크
(연꽃문양/4색)
●재 질 : 폴리에스테르 92%, 스판 8%
●색 상 : 연회색, 백색, 청색, 검정색
●판매가 : 4개 1셋트 15,000원 (개당 3,750원)
/ 3만원 이하 택배비 3,000원 별도
(제주·도서지역 택배비 6,000원)
●기능성 순수 국산원단 사용

100개	300개	500개	1,000개	2,000개
(개당) 2,500원	(개당) 2,400원	(개당) 2,300원	(개당) 2,200원	(개당) 2,000원



기능성 비말차단 구리마스크
(연꽃문양/진회색)
●재 질 : 폴리에스테르 81%, 구리 7%, 스판 12%
●색 상 : 진회색 (그외 색상 주문 가능)
●판매가 : 4개 1셋트 22,000원(개당 5,500원)
/ 3만원 이하 택배비 3,000원 별도
(제주·도서지역 택배비 6,000원)
●기능성 순수 국산원단 사용

100개	300개	500개	1,000개	2,000개
(개당) 3,500원	(개당) 3,400원	(개당) 3,300원	(개당) 3,200원	(개당) 3,000원

Deodorization 소취 · Antibacterial 항균 · Anti-Splash 비말차단 · UV Protection UV차단 · Fast Drying 빠른건조 · Reusable 재사용가능



※ 색상 및 디자인 변경가능하오며, 로고 및 사찰명 인쇄시 장당 300원 별도 추가됩니다.
※ 대량주문 및 전체디자인 변경 등은 별도 문의 바랍니다.
※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문의 : 02)732-1520 www.mahamall.co.kr



대행 스님

모든것을내부모내자식으로보고풀한포기도남으로보지말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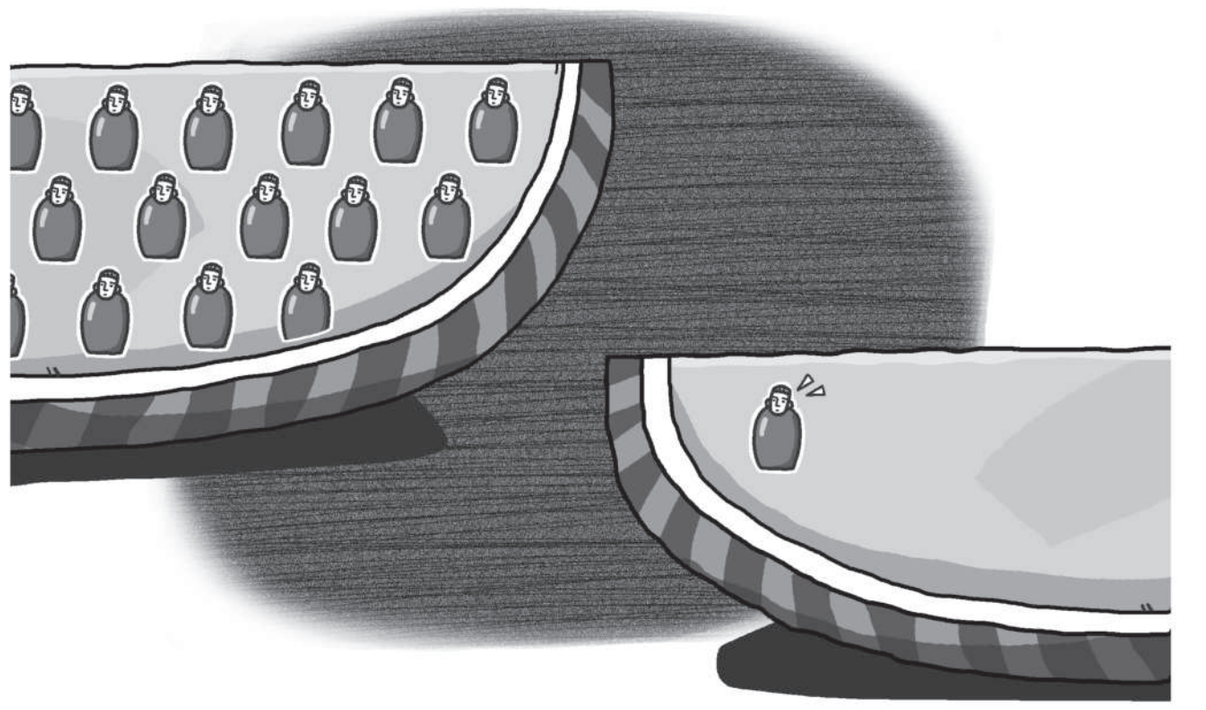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오늘 셋째 일요일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또 여러분과 같이 한자리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 도반으로서 오늘은 실천궁행과, 인간의 도리를 다하는 인간 자체가 첫째 되어야 한다는 문제,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부처가 된다, 보살이 된다, 법신이 된다 이러기 이전에 인간 자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마음으로 들이고 내는 것을 정(定)으로써 한자리에다 두고 들이고 낸다면 정향(定香)입니다, 그게. 그래서 정향부터 되어야 계향(戒香)도 역시 잘 지킬 수가 있는 거죠. 스님네들만 계향을 지키는 게 아니라, 여러분한테 항상 그렇게 말씀드리죠? 평등한 마음으로써 웃으면서 대해 주고, 둘 아닌 그 마음씨로 항상 둘 아니게 나로 보고 내 아픔으로 보고, 모든 것을 내 자식 내 부모 내 형제로 보고 그렇게 풀 한 포기도 남으로 보지 말라고요. 그럼으로써 그 지견이 생기고 해탈이 생기고 해탈지견향(解脫知見香)이 되죠. 사람이 본래 나쁜 사람은 없겠지만 모르는 게 죄가 아니겠습니까? 모든 게 몰라서 죄를 짓고 그 죄의 대가를 받고 인과응보라는 그 엄청난 문제를 천차만별로 받아들이는 게 우리 현실입니다.

여러분한테 항상 얘기하고 넘어가는 말을 오늘은 수박에 비유해 볼까요? 그전에도 내가 한번 얘기한 예가 있죠. 과거는 현실에 짊어지고 나왔으니 없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없다고. 여러분이 만약에 수박 한 덩어리라면 그 수박 속에 씨가 있지 딴 데 있겠습니까? 어저께 수박을 심었더니 오늘의 수박에 그 씨가 도로 들어 있는 걸 모르고 말입니다. 그 수박씨가 싹이 되고 또 그 싹이 수박을 열리게 했기 때문에 수박씨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씨와 넝쿨과 수박, 이게 둘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러면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드리는 것을 이해를 못 하신다면 인간의 뿌리는 보이지도 않을 겁니다. 나무의 뿌리는 보이나 인간의 뿌리는 볼 수 없는 것이고, 나무가 자신의 뿌리를 못 보듯이 그렇게 못 볼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과거의 씨를, 내가 마음 내기 이전이 과거 씨인데 그것을 불성이라고 하죠. 그 불성을 바깥에서 찾으려고 애를 쓰니 바깥에서 찾아집니까? 항상 안에 있는 수박씨와 같은 건데.

그러니 절대로 바깥에서 지식이나 학식에 끄달려서는 아니 되고, 한곳으로 들고 난다는 것을 여러분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24시간을 다 참선을 하고 좌선을 하고 앉았어도 그것이 참선이 아니고 좌선이 아닙니다. 지금 뺑뺑 돌러 돌아가면서 사방이 터지고 이렇게 돌아가는 이치가, 끝없는 진리가 쳇바퀴처럼 돌아가고 있습니다.

항상 말씀해 드렸습니다만 주인공에 모든 것을 놓고 거기에서만이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믿고, 오직 꺼내는 것도 거기요, 넣는 것도 거기, 들이는 것도 거기고 내는 것도 거기라는 것을 꼭 아셔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없으면 세상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또한 내 몸에 중생들도 없을 것입니다. 혹성이라는 이 자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고 그것이 바로 화두라는 것도 얘기했습니다. 요거를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항상 뒷받침이 돼 있어야만이 되겠기에 말입니다. 처음 오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요.

지난번에 이랬죠? 그 무슨 인연으로 병이 생겼으며 병은 어떻게 해야 낫느냐고 문수가 유마힐 거사한테 물었듯이 말입니다. 그 뜻에서 벌써 그랬죠? 내 몸속에 있는 모든 중생들이 나아야 내 몸이 낫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직감적으로 내 몸으로부터 체험을 하고 실험을 하고 또 지혜가 스스로 우러나와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그런 뜻이 숨어 있다는 얘기죠. 말로만 듣고 이론으로만 듣지 마시고 그 뒷면의 뜻을 아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문수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방이 왜 비었으며 왜 시자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유마힐은, 여러분이 다 아시리라고 믿어요. 뭐, 저는 무지랭이니까, 보지 않았으니까 모르겠지만 예전에 이것도 들은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물으니깐 "모든 부처님 국토도 비어 있으며 외도나 마구니가 다 내 시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 빈 것도 아니고 비지 않은 것도 아닌 그것은 어떠한 연고입니까?

여러분한테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전부 빈 것도 아니고, 비지 않은 것도 아닌 그것은 무엇입니까? 만약에 그렇게 누가 물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이건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관문이기도 하고, 물론 말 잘하는 분들은 또 말도 잘하시겠지만 또 말을 함이 없이 하시면 됩니다. 말이라는 건 귀신 방귀와 같으니까요. 말은 하지 않되 하시면서, 종은 쳤는데 종소리만 났지 종 친 사이가 없고, 그 종소리는 우르르 퍼졌는데 퍼진 사이도 없이 퍼졌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 뜻을 이렇게 본다면, 그것은 찰나로 돌아가기 때문에 어떤 것이 돌아갈 때에 나라고 할 수 없으니 비었다고 했어요. 항상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었죠?

예를 들어서 "물과 산이 둘이 아닌 까닭에 물은 물대로 있고 산은 산대로 있느니라." 하는 얘기가 있죠? 그 속에는 뜻이 들어 있어요. 뭐냐? 아까 "모든 부처님의 국토는 비었느니라. 비었으며 또는 마구니나 외도가 다 내 시자인 것입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하고 그 말하고 어디가 똑같으냐 그러겠죠? 빈 것은 찰나로 돌아가니까 비었고, 외도나 마구니가 전부 내 시자라고 한 것은 안팎이 다, 보이는 데나 보이지 않는 거나 다 내 시자인 것입니다, 또 도반이고. 부처도 따로 없고 중생도 따로 없고, 마구니도 따로 없고 외도도 따로 없어요. 언어가 붙지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강은 강이요,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니라." 한 뜻은, 예를 들어서 컵이면 컵대로 물을 담거나 또 커피를 담거나 뭐, 음료수를 담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컵이 필요하겠죠. 그릇대로니까 컵에 담을 물건은 컵에 담고 접시에 담을 물건은 접시에 담고, 대접에 담을 물건은 대접에 담고 이렇게 해야만이 천차만별로 돼 있는 그릇대로 물건을 요리를 해서 한데 떨어뜨리지 않고 차원에 따라서 담아 준다는 뜻입니다. 밥을 한 솥 해서 담아 보십시오. 그렇게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고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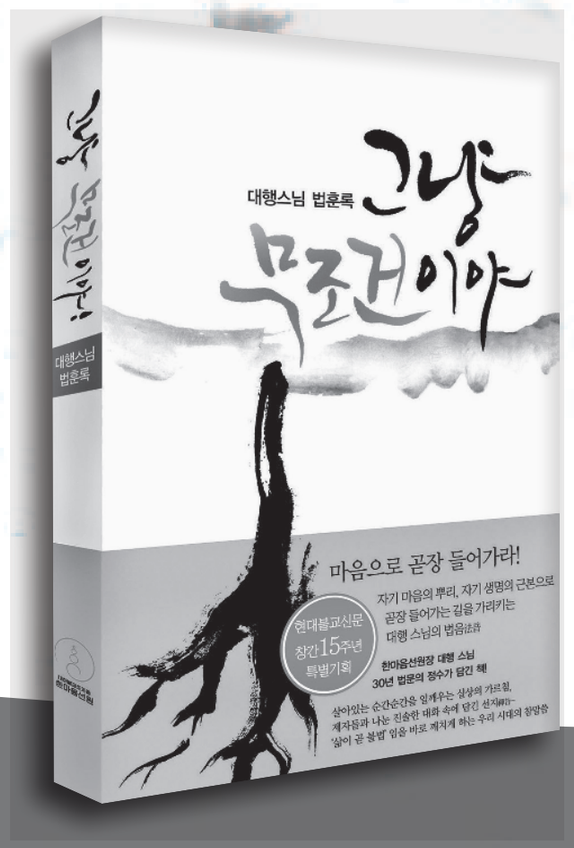
그런데 우리가 이 뜻을 모르면은 이게 자꾸 엇갈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뜻을 알아야 되겠다. 이게 하나가 터지면, 즉 물리가 터지면 전체가 거기 붙어 돌아가요. 따로따로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까 수박이 따로 없듯이. 그러니까 물리가 터지면 모두가 한데 붙어 돌아가죠. 싹과 수박과 씨가 따로 없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산과 물은 둘이 아니나 산은 산대로 있고 물은 물대로 있느니라. 천차만별로 각각 있지만 한데 돌아가고, 한데 돌아가지만 각각 분리가 돼서 네 모습 다르고 내 모습 다르고 네 차원 다르고 내 차원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마음을 보살이라는 이름으로 붙여 놓고 자기가 그냥 천백억화신 노릇을 합니다, 그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동방에는 아촉불이라고 떠억 상표를 붙여 놨습니다. 자기 이름입니다, 그게. 석가가 석가대로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부처가 아니게요? 만약에 부처가 있다면 부처가 아니죠. 그래서 떠억 아촉불로 붙여 놓고 서방정토에는 아미타불로 붙여 놓았죠.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그 마음 말입니다. 자기에게 자기가 이름을 붙여 놓은 겁니다. 해가 뜰 때, 돌아서 동방에서 해가 뜨고 또 서방으로 가고, 서방은 동방이 되고 동방은 서방이 되고, 항상 이렇게 돌아가죠? 그런데 돌아올 때에, 서방에서 올 때는 남방을 통해서 동방으로 통하고, 동방에서 서방으로 갈 때는 북방을 통해서 서방으로 간단 말입니다. 이렇게 돌아가죠. 그러니까 한쪽은 봄소식이 오고 다른 쪽은 가을로 가죠. 겨울로 간단 말입니다, 겨울잠 자러. 표현을 이렇게 해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이해가 빠르리라 믿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바세계엔 뭘로 이름을 붙여 놨느냐 하면 관세음으로 붙여 놨죠. 또 지천국에

☞ 22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삶이 곧 불법'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시대의 참 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www.mahamall.co.kr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6길 36, 606호 현대불교 마하몰

둘이 아닌 도리를 가르치는데 왜 각각 보십니까!

☞ 21면에서 계속

는 무엇으로 붙여 놨느냐. 지장으로 붙여 놨고요. 그러니 자기가 이름을 자기 마음으로 붙여 놓고 자기가 움죽거리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움죽거리는 것은 어떻게 했느냐? 또 한편에는 문수를 놔 놓고 한편에는 보현을 놨습니다. 그럼 이건 누구겠습니까? 아까 수박 얘기했죠? 싹이나 수박이나 씨나 이것이 셋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요. 부처는 생각 내기 이전이 부처라고 보고요, 생각을 냈다 하면은 그게 바로 문수입니다, 법신! 그럼 생각을 낸 것이 뭐냐? 바깥으로 나온 게 보현이에요. 그래서 들이고 내는 것도 보현이요, 모든 걸 보호해 나가면서 화하는 것도 보현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만히 있으면 생각 내기 이전이요, 생각을 냈다 하면 법신이요, 움죽거렸다 하면 화신이고 보신이에요. 여러분이 넘어졌으면, 어디 다리가 다쳤으면 "아이쿠!" 하고 여러분 손이 가서 털고 얼른 일어나지, 딴 사람이 털어 주고, 딴 사람의 손이 와서 털어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깐 바로 보현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보신이며, 그리고 자꾸 찰나찰나 화하니까 화신이죠.

그래서 돌아가면서 이름이 여간 많지 않습니다. 야! 이걸 털어 주고 남이 엎드러졌어도 일으켜서 털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보현이 되고, 또 보이지 않는데도 보호해 나가면 보현이 되지마는, 만약에 그렇지 않고 보호해 주기 위해서 이리로 저리로 화해서 바꿔질 때에는 화신이죠. 그러니 이름이 수차적으로 바뀌져요. 여러분이 부모를 만날 때는 자식이 되고 자식을 만날 때는 부모가 되고 아내를 만날 때는 남편이 되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누구를 만날 때, 내 아내를 만날 때 나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그러니깐 경을 보면은 밑바닥의 백지를 볼 수 있어야만이 경을 올바로 볼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한마디 한마디 경 구절에 있는 것도 그 뜻을 헤아려서 실천궁행을 해야만이 부처님의 참불제자라고 할 수 있고, 만물의 영장이라는 사람으로 될 수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항상 여러분에게 말하죠. 자식한테도 부드럽게 해 주라고, 부드러운 말을 해 주라고, 평등한 마음으로서 그렇게 하라고 그러죠. 그것이 바로 보살행이니깐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빈 것은 어떠한 것으로 비었다고 합니까?" 하고 물었어요. 여러분에게 그렇게 물었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떠한 것으로 비었다고 합니까? 내가 항상 말씀해 드렸죠. 말을 배우라는 게 아니라 그 뜻을 배우시라는 얘기죠. 뜻을 아시라는 거죠. 여러분은 이런 말을 해도 그냥 집어 먹어야 돼요. 말로 옮기려고 하지 말고 그냥 집어 먹어야 되죠. 목마르면 물 먹듯이 말이에요.

"본래 공했기 때문에 비었다고 합니다."라고 대답을 했더래요. 그래서 "본래 공한 것을 어떻게 공이라고 체험을 합니까?" 또 이렇게 물었더래요, 글쎄. 그래 꼬리가 꼬리에 붙어서 돌아간 거죠. 공했다고, "그 분별을 하지 않기 때문에 공한 것을 체험하는 것입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공은 어디서 구합니까?" 부처님 해탈 속에서 구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는데, 공한 것을 어디서 구하느냐니까, "육십이 소견, 외도 소견 속에서 구합니다." "그래, 육십이견은 어디서 구합니까?" 그러니까 "부처님 해탈 속에서 구한다." 그랬어요. 돌아가서 참 묘하게 대답했어요. 그게 왜냐하면 육십이견 속에 소견, 외도 소견 모두를 종합한 겁니다. 지금 이 세상 전체를 한, 그 마음 속에서 구했다는 뜻이죠. 거기서밖엔 구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 그러한 뜻을 우리가 삼키면서, 또 삼키고 행하면서 우리는 지혜를 넓혀 가야 되는 거죠. 옛날에는 "대나무 귀신 방귀를 먹고 넓혀 간다." 이런 말을 했죠. "자기 싹을 구하려면 대나무 방귀씨를 구해야 하고 그 방귀씨를 싹을 틔워서 기르려면 대나무 귀신 방귀를 더 먹이지도 말고 덜 먹이지도 말고 아구창 나지 않게 먹여서 키워야 된다."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낚싯밥인지도 모르죠. 이 도리를 아는 분들은 어디에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육십이견은 어디서 구합니까." 하니깐 부처님 해탈 속에서 구하고, "부처님 해탈은 어디서 구합니까?" 그러니까 중생들 마음속에서 구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거와 같이 "여러분이 아니었더라면, 또 풀 한 포기, 벌레 하나가 아니었더라면 내 어찌 그것을 보고 느끼고 체험했겠습니까? 그러니 모두 벗이요, 모두 도반이요, 모두 스승이요." 하고 말을 했죠. 그쯤 해 놓고요, 요거 한마디를 하고 딴 말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생활을 하시면서 제일 어려운 게 가난과 병고와 우환 등 여러 가지죠. 자식들을 이끌어 가는 데도 그렇고 또 부모가 자식들을 이끌어 가려면 움죽거리는 그 생활도 그렇고 자기 몸 끌고 가는 것도 그렇고, 참 여러 가지로 괴로움이 한두 건이 아니죠. 거기에 조금이라도 이 도리를 알고 공부한다면, 아주 편안하고 자유스러운 도리 또 생산적인 도리, 개발적인 도리를 공부하신다면 이것은 불가사의한 법으로서 그대로 편안하게, 언어조차도 붙지 않는 편안하고 자유스러운 생활을 해 갈 수 있는 거죠.

가만히 보면요, 사람들이 신경이 날카로워지면 바깥에서 유전성으로 오든, 안에서 인과로 인해서 벌어지든, 영계가 들고 뭐, 안팎으로 그런 게 일어나거든요. 생활을 하다가도, 뭐, 회사가 망했다든가 또 공부를 하다가도 그냥 지친다든가 하는 문제들은 도무지 내 능력으로는 따라갈 수가 없죠.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들은요. 그리고 생활 속에서 가정환경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 이런 거를 가만히 보면 여간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만 그것을 다 물리치고 녹이고 나갈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용도에 따라서 오는 대로 거기에 맡겨 놓고 '거기서밖에는 해결을 못 한다' 하고선 거기다 딱! 맡겨 놓고 지켜보는 그것이 관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아니라 관하는 거다 이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켜보고 관한다' 하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인과응보가 무너지고, 습이 녹아지고, 나를 발견하게 되고, 진짜 공부를 하게 된다 이겁니다. 또 한 가지는 바로 입력입니다. 입력! 컴퓨터에 입력하듯이 용도에 따라서 오는 대로 컴퓨터에 입력을 한다. 오는 대로 입력을 해 놓으면 그게 돌아간다. 자동적으로 돌아가게 돼 있는 자동기입니다. 물질적인 것을 떠나서 말입니다.

그러니깐 예를 들어서 이제는 둘이 아니게 내 주인공에, 아들이 아파도 내 주인공에다가 모든 걸 맡겨 놓습니다. 그래서 웬만큼 해 나가서 완벽하게 이게 선다면, 아, 그러면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아까 뭐랬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고 그랬죠? 둘이 아닌 까닭에 물은 물대로 있고 산은 산대로 있죠. 둘이 아닌 까닭에 자식은 자식이고 나는 나다 이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병을 고쳐 주려면, 예를 들자면 특히 정신질환은 더합니다. '네 주인공만이 너를 이끌어 갈 수 있다.' 네 주인공만이 너를 이끌어 갈 수 있다 하는데, 거기에 무엇이 붙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묘한 생각이 있어요. '에이구! 이거는 무슨 어머니 조상이 붙었고 무슨 누구 영계가 죽었는데 여기 붙어서 이럭하고….' 아, 요런 생각들을 한단 말입니다. 만약에 그렇다 할지라도 그 생각을 떠나야 할 텐데, 놔야 할 텐데 거기 뭐가 붙었다고 합니까? 참 이상스럽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들을 하니 십 년이고 몇 년이고 그냥 고통을 받고 애를 쓰는 거예요.

> 용도에 따라 오는 대로 근본 자리에 맡겨 놓고
> '거기서밖에는 해결 못 한다.' 하고선 거기다 딱!
> 맡겨 놓고 지켜보는 그것이 관하는 것입니다.

왜 각각 보십니까! 둘이 아닌 도리를 가르치는데 왜 각각 보시느냐 이겁니다. 요거는 내가 꼭 말을 하고 넘어가겠다고 다짐을 한 거거든요, 하도 애를 쓰니까. 그래서 영과 영이 열 개가 한데 합쳤어도 둘이 아닌 까닭에, 야, 아무가 들어왔더라도 주인은 주인 아니겠는가. 그러니 주인공이야, 그냥. 당신이 그 마음속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바로 주인공 아닌가. 그러니 '이 몸을 이끌어 가는 것은, 정상적으로 이끌어 가는 것은 당신밖에 없어.' 뜻으로다가 속의 주인공을 이렇게 탁 잡아 주는 겁니다.

시식을, 제사를, 천도를 수백 번 드리는 것보다 그 한생각이 필요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땀 흘리고 돈 벌어다가 허탈히 쓰는 법을 버리고 돈 쓰는 법도 배워야 됩니다. 돈 버는 것만 배우지 마시고 쓰는 법도 배워야 합니다. 올바르게 써야지 올바르지 않게 쓰는 것은 귀신 놀음이나 한가지고 도깨비 장난이나 한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못 사는 것도 여러분의 차원 때문입니다, 모르는 차원. 죄가 있어서 그렇게 고생하는 게 아니라 모르는 차원 때문에. 난, 여러분이 과거에 무슨 죄가 있으니까 뭣이 없다 이런 소리는 안 합니다. 못 들어보셨죠? 이거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열 명이 들어갔어도 당신이 바로 주인공 아니겠는가!' 하고 주인공만이 속의 뜻을, 말로 하지 말란 말이에요. 뜻으로서 '주인공만이, 당신만이 이 애를 정상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다' 는 신념과 믿음, 그것을 가지고 그저 만날 적마다 그렇게 해 준다면, 또 만나지 않을 때도 그렇고 만나서도 그렇고, 먼 데 있으나 가깝게 있으나 똑같습니다, 마음은 체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주를 달린대도, 탐험을 한대도 둘이 아닌 까닭에 마음은 그저 어디도 갈 수 있다는 얘깁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산이 높아서 못 넘는 게 아니고 물이 깊어서 못 건너가는 게 아니고, 은산철벽이 두꺼워서 못 뚫는 게 아니라고요. "사방은 툭 터졌느니라." 하고 말입니다. 그것을 얘기해 드렸으니 인제는 모든 마음을 같이 이렇게 들면서 중용을 하세요. 활용이 아니고 중용입니다. 안팎이 다 들리는 그런 활용 말입니다. 그것이 중용이에요.

또 한 가지 말씀해 드릴 것은, 여러분이 각자 말입니다, 내가 항상 "오신통, 오신통" 했는데 오신통이라는 것은 이름일 뿐이지, 그게 무슨 대단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다 가지고 계시니깐요. 무슨, 없는 것을 발견을 해야 그게 대단한 거지, 본래 있는 것인데 여러분이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그냥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떡하면 알아듣기 쉬울까 해서 현실의 물질적인 요소를 가지고 현대 용어로써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만약에 머리 위에 신통이 다섯 개라면, 줄창 말을 하죠? 숙명통이니 타심통이니 천이통이니 신족통이니 또는 천안통이니, 이 다섯 가지 문제가 여러분한테 재료로 주어져 있다고요. 만약에 그걸 벗어나서 대뇌로 돌아간다면 모두 통신이 된다 하는 걸 레이더망으로다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신족통이라는 것은 아까 팩스로 한번 비교해 봤죠? 가고 옴이 없이 가고 오니까요. 또 탐지기 보셨죠? 그것은 타심통에다가 비유할 수 있다고 항상 얘기했죠. 그런데 내가 왜 이런 말을 되풀이하느냐 하면 얘기할 게 있어서 그래요.

(다음 호에 계속)

※위 법문은 1990년 3월 18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전국 주요 서점과 인터넷 서점에서 동시 판매중!

다만 그윽한 마음을 내라

대행 스님 법문의 정수가 담긴
2019년 최고의 결정판!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 초창기 법문의
핵심을 모아 한 권으로 엮은 책

삶의 지침이 될 지혜의 가르침들이
내 마음에 꽃이 되어 피어나다!

한마음선원 출판부 엮음 | 양장본 | 총 384면 | 책값 18,000원

현대불교신문사 02)732-1520 무진향 031)470-3118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 현불 논단 |

바른 교육이 중요하다

법장 스님
해인사승가대학 학감



동안거 해제 후 종단 교육 확대
출가자 · 불교신도 감소 상황서
가장 중요한 기틀은 불교 교육

부처님, 계 · 정 · 혜 삼학 강조
삼학 중 계학은 불교인의 근원

출가자라도 감정대로 방화하거나
사리 사욕만 챙기는 모습을 보며
불교교육 방향 · 역할에 책임느껴

동안거가 해제한 뒤 불교계 여러 교육기관에서는 새롭게 일정이 시작되고 있다. 조계종에서는 새로 출가한 행자들의 수계교육과 5급 승가고시를 시행하여 사미와 사미니를 배출하였고, 전통 승가대학(강원)과 율학승가대학원 등에서도 신입 입방자를 모집하고 있다. 그리고 곧 있으면 비구, 비구니 수계교육과 4급 승가고시가 시행되어 새롭게 출가자를 배출할 것이다.

따스한 봄기운과 함께 불교 내에서도 새로운 시작과 준비로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점차 출가자와 불교신도가 줄어들고 있는 요즘 불교 내의 교육은 어떤 포교방법보다도 중요한 기틀이다. 모든 것이 풍요로운 현대에 많은 사람들이 종교의 필요성과 그 가치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 경우가 많다.

불교를 처음 접하는 많은 이들이 불교가 교육과는 무관한 그저 (자신들이 생각하는) 수행만을 하고 세상과는 단절된 삶을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조선시대의 폐불이나 탄압의 어려운 시기를 거치며 생겨난 폐쇄적이고 어두운 불교의 이미지가 아직까지도 남아 많은 이들에게 전달되고 있기 때문이다.

불교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출가에서부터 철저히 자신의 삶을 바라보고 그 삶의 주인공이 되어 모두와 함께 깨달음으로 향해가는 종교이다. 그렇기에 부처님의 전도선언과 같이 누구보다도 그 시대를 아우르는 언어와 표현을 지녀야 한다. 그래야만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고 이치와 문장을 갖춘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불교를 기복적이고 무속적인 이미지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깨달음이라는 것이 마치 어떤 관문과도 같아 그것을 통과하면 하늘도 나르고 미래도 내다보는 초인적 능력을 갖게 되고, 수행을 통해 영원불변의 자신을 발견하여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도 한다.

안타깝게도 이런 무속적인 불교는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을 전하는 경전 어디에도 나타나 있지 않다. 부처님의 깨달음을 설한다는 〈자설경(udāna)〉을 보더라도 부처님께서는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이 원인과 결과(인과)에 의해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무상, 고, 무아'를 설하신다. 이처럼 불교는 우리의 삶과 모든 현상을 여실하게 바라보고 그것으로부터 떠나는 것이 아닌 보다 깊이 그 안으로 들어가 참된 삶을 사는 종교인 것이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불교인이 닦아야 할 수행으로 '삼학(계, 정, 혜)'을 말씀하셨다. 삼학은 모든 불교인이 반드시 익히고 불교적 삶의 토대로 삼아야할 수행과 교육의 기본이다. 나쁜 일을 멀리하고 다른 이들과 조화를 이루는 선한 일을 하며, 불교인다운 생각으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그것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여 자신을 비롯한 모든 이들과 함께 깨달음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삼학의 가르침이다. 특히 삼학 중 계학은 불교인의 근원이 되는 것이다. 계율을 지닌다는 것은 바로 불교인이 되는 것이기에 불교에 입문을 하면 곧바로 익혀야 하는 것이 불교인의 자세인 계율이다. 그러나 최근의 불교는 마음과 수행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계율과 교육을 다소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있다. 불교인이 불교적 생각과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과연 불교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렇기에 경전에서도 불교는 내부의 사람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하듯이, 불교인에게 바른 불교를 가르치고 실천하게 하는 불교의 교육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무지는 무명과도 같다. 출가하였으면서도 세속의 생각과 욕망에 사로잡혀 자신의 감정대로 사찰에 불을 지르거나, 사리사욕만을 챙기는 모습들을 보며 깊은 참회심과 더불어 불교교육의 방향과 앞으로의 역할에 대해 보다 확고한 책임감을 느낀다.

社 說

미얀마 민주화 운동 지지한다

악화일로. 미얀마 사태를 두고 표현할 수 있는 수식어다. 40여 일동안 이어지고 있는 미얀마 민주화 운동은 군과 경찰에 의해 폭력적으로 진압되고 있다. 현재까지 약 160여 명이 군 · 경찰에 의해 희생된 것으로 전해졌다. 불교국가 미얀마에서 벌어진 일이라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불교계가 미얀마 민주화 운동을 지지하고 나선 것은 환영할 일이다. 한국불교 장자종단 조계종은 3월 16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미얀마 민주화와 평화를 위한 연대와 관심을 촉구했다. 앞서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스님들은 미얀마 민주화 운동에 연대하고 군부의 폭력을 비판하며 미얀마 대사관에서 UN인권위원회 사무소까지 오체투지를 했다. 이는 미얀마 현지에도 알려져 미얀마 시민들의 열띤 호응을 받았다.

전국비구니회는 미얀마평화기원법회를 봉행하고 불교여성개발원과 샤카디타코리아와 공동으로 '미얀마 민주항쟁을 지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도 3월 18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미얀마 국민들과 함께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건설에 동참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국종교지도자들의 모임인 한국종교인평화회의 역시 미얀마 민주화를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지금의 미얀마 민주화운동은 우리 국민에게는 낯설지 않다. 1980년대 군부 독재에 맞서 민주화운동을 펼쳤던 역사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 역사에서도 확인되지만, 미얀마 민주화 운동은 시대적 요구고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미얀마 군부도 이제라도 총을 거두고 참회로서 민주화의 길에 나서야 한다. 미얀마 민주화 운동을 지지한다.

선학원, 분원 향한 '갑질' 멈춰라

재단법인 선학원의 전횡이 이어지고 있다. '성범죄 이사장'으로 세간의 지탄을 받았던 법진 스님의 후임으로 성운 스님이 이사장에 취임했지만, 분원장들의 고충은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엔 '분담금 표적인상' 논란이다. 2019년 성범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전 이사장 법진 스님을 상대로 '이사장지위부존재 확인소송' '이사장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분원들에 대해 분담금을 25~100% 인상했다고 한다.

특히 (재)선학원측이 분담금 인상 분원을 '채권자'로 지칭하고 인상 이유를 '소송비용'이라고 설명했다는 증언까지 나오면서, 법진 스님의 이사장 자격을 문제 삼은데 대한 '재갈물리기식' 조치라는 의혹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재)선학원은 애초 소송이 시작된 이유를 돌아봐야 한다. 일제강점기 왜색불교 청산과 불교정화운동에 앞장서는 등 청정승풍의 상징이었던 선학원 이사장이 여직원 성추행으로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이사회는 이를 묵인했다. 분원 스님들이 나선 것은 선학원 정체성을 흔드는 '성추행 이사장'에 대한 우려이자 선학원을 향한 애정의 발로임에도, (재)선학원은 분담금 인상으로 그에 답했다. 안타까울 따름이다.

뿐만 아니다. 그동안 창건주 · 분원장 스님들은 (재)선학원에 대해 정관과 분원관리규정의 공개, 재정 투명성과 분담금 사용내역 등을 공개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지만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100년 역사로 이어진 선학원의 정체성과 그 본질을 되짚어 봐야 한다. (재)선학원은 분원이 있기에 존재함을 잊어선 안 된다. (재)선학원은 이제 창건주 · 분원장을 향한 '갑질'을 멈추고, 누구를 위한 재단법인인지 돌아봐야 할 것이다.



지인 스님의
병상포교일기

'마지막'이 준 깨달음

전국비구니회CPE센터를 개원하고 드디어 CPE 봄학기 기본과정을 들어갔다. 비구니회장 본각 스님을 비롯하여 비구니회 교육부 등 많은 스님들의 도움으로 첫 출발을 시작한 것이다.

둘째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스님들의 CASE STUDY 등 적극적인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 한 스님께서 호스피스 환자를 만나고 온 사례를 가져오셨는데, 사례 속의 환자는 자신의 임종을 받아들이고 계신 분이었다. 나는 교육생들에게 "아무리 임종이 가깝다는 것을 알아도 모든 호스피스 환자가 자신의 임종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는 설명을 하던 중 5년 전, 정말 당황스러웠던 환자에 대해 떠올리게 되었다.

호스피스병원 의사선생님의 권유로 임종을 앞둔 30대 젊은 여성 환자를 만나게 되었다. 성격이 좀 예민하고 특히 너무 젊은 나이의 말기암 환자여서 본인의 병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사연이었다.

걱정스러움을 안고 환자를 찾아 인사를 나누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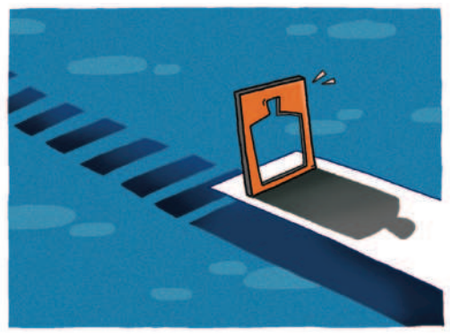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환자의 호기심어린 눈빛에 다소 안도감을 느끼고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었다. 우선 나에 대한 거부감이 없다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다. 그 순간 내가 좀 방심했던 것 같다. 무슨 이야기 중에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자 갑자기 환자가 불같이 화를 내기 시작했다.

나는 순간 너무 당황하여 얼음처럼 굳어버리고 말았다. 펑펑 울기 시작하는 환자를 보며 어떻게 할지 몰라 안절부절 했다.

그 후 정말 병원의 지도법사 소임을 그만두고 싶을 정도의 자괴감에 시달리며 며칠을 보내야 했다. 환자는 며칠 후 이생의 짧은 삶을 마감하였다. 나 역시 고통의 감정에 허우적거리다 결국 환자와는 화해를 하지 못한 채 귀한 시간을 허비하고 말았던 것이다.

나는 수치스러움을 직면하며 수퍼바이져에게 이 사실을 고백하였고 수퍼비젼을 청했다. 수퍼바이져는 "스님, 우리 모두는 실수를 통해서 배웁니다. 스님은 그 환자를 통해서 큰 깨달음을 얻으신 것이죠. 무엇을 배우셨습니까"하고 질문했다. 나는 순간 수치스러움과 공포와 자괴감 등 나를 감싸고 있던 부정적인 감정들의 옷을 벗을 수 있었다. 그 순간 배움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이다.

환자가 '마지막'을 얼마나 무서워하고 있는지를 나는 그 환자를 통해 비로소 알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의 받아들임의 속도에 맞춘 단어 사용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말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지도법사 · 일산 기쁨정사 주지〉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김재진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대 구 지 사 : 010-2813-8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EM쌀뜨물 발효기를 필요한 지역 공동체에 무료로 드립니다

하천과 바다 오염의 주범은 생활 하수, 그 중 60%가 쌀뜨물입니다.
쌀뜨물 1리터를 정화하는데 물 500리터가 필요!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심각한 물 스트레스 국가로 분류되었으며 2025년이면 '물 기근 국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보고되었습니다. (출처:OECD 환경국)

em지구를 살리는 사람들은

2018년 4월 승가결사체 "EM지구사랑 작은실천"을 발족하였으며,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의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환경 교육과 함께 EM쌀뜨물 발효기를 지역 공동체에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체와 자연에 유해성분이 전혀 없는 친환경 EM제품을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그 수익금은 EM쌀뜨물 발효기를 제작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EM 쌀뜨물 발효기를 무료로 제공받고자 하는 지역공동체는 연락주세요!

EM쌀뜨물 발효기 3종

<정기후원에 함께 해주시면 더 많은 발효기가 제작됩니다>

농협 351-1025-0694-33
(예금주) EM지구사랑작은실천



200리터(48만원) 120리터(40만원) 30리터(32만원)



EM원액 1리터 15병 (12만원)

em 지구를 살리는 사람들

EM지구를 살리는 사람들 (031)470-3215, 010-5095-0509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282